



시 정 연  
2004-R-35

##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Facilitating Cultural Activities of The Youth In Seoul

200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진

---

연구책임 이 무 용 • 도시사회연구부 부연구위원

연구원 김 성 희 • 도시사회연구부 위촉연구원

---

자문위원 김 세 훈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영 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 교수

김 영 호 • 안양청소년수련관 관장

박 재 정 • 경신고등학교 교사

심 한 기 •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대표

안이영로 • 기분좋은트랜드하우스 QX 대표

유 연 식 • 서울시 문화과 문화정책팀장

이 호 영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희 란 • 서울시 체육청소년과 총괄팀

전 성 민 •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 MIZY 소장

전 효 관 • 시민문화네트워크 Tea-Pot 대표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및 정책건의

---

## I. 연구 개요

### 1. 연구배경 및 목적

-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담론은 청소년 보호, 선도, 수련, 교화 등에서 보듯 청소년을 훈육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음. 이는 청소년을 세상을 자기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는 주체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수동적 단일집단으로 대상화시켜왔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청소년을 둘러싼 현대도시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즉 정보통신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이 크게 변화되고 있고, 대중문화 환경이 다양화되면서 청소년의 이질화, 정체성의 다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청소년을 훈육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창의적인 문화실천의 주체이자 이질적이고 다양한 생활주체로 인식해야 하며, 그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 문화지향적 전환(cultural turn)이 요구되고 있음.
- 즉 청소년들이 문화주체로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체득하도록 도와주고, 자신과 다른 문화적 취향과 문화정체성에 대해 이해와 비판능력을 제공해주며,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자기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방향으로 청소년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의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문화적 환경에서 창의적인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과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이를 위해 서울시 청소년이 처해있는 사회적 여건과 문화환경, 그에 따른 청소년들의 문화적 삶의 양태, 청소년들의 주체적 문화활동 실태를 연구함으로써, 청소년 문화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 연구범위 및 내용

- 연구내용은 청소년 문화연구의 패러다임 전환, 청소년의 문화환경 현황, 청소년의 문화활동 실태,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청소년 문화연구의 패러다임 전환 부분에서는, 청소년의 개념을 둘러싼 담론변화와 청소년 문화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문화환경과 문화정체성을 정립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정책의 함의를 도출함.
- 청소년 문화환경 현황 부분에서는, 서울과 관련된 청소년 문화정책과 서울시의 청소년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봄.
- 청소년의 문화활동 실태 부분에서는,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향수 실태와 주체적인 문화활동 실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사례 등을 살펴봄.
-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부분에서는,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프로세스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 방안, 서울지역 내 민관학 네트워크 구성방안, 청소년의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서울시 청소년 문화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함.

## II. 연구결과 및 정책건의

### 1. 청소년 문화정책의 비전 및 목표 수립

-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
  - 그동안 청소년은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수동적 소비주체로서 단일한 성격의 집단으로 인식되어옴. 그러나 현대도시에서 청소년은 개별화, 다양화된 이질적 문화주체로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변화추진자로 인식되고 있음.
  - 따라서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와 감수성, 욕망들을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단순한 문화소비자가 아닌, 적극적인 문화생산자로서 청소년을 이해함으로써, 청

소년의 문화권리와 생산적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그동안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을 관리와 규제, 선도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보호, 육성, 복지 중심의 정책이 지배적이었음. 그러나 21세기 문화도시에서는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자립심, 분권을 중시하는 자율, 참여, 문화 중심의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청소년의 참여없이 기성세대가 결정, 집행하는 정책,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실천되지 않는 정책, 민간의 협조와 자발적 참여가 결여된 정책이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학이 연계하여 청소년의 문화환경을 만들어가는, 고객·지역·파트너십 중심의 청소년 문화가버너스 실현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2. 서울의 청소년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보완

○ 청소년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기존 문화시설의 청소년 이용 강화

- 서울 전체 문화시설(총 705개) 중 청소년 문화시설은 131개(청소년시설 68개, 지역복지관 63개)로 전체의 약 19%에 불과함. 더구나 이중 청소년 전용시설은 전체 문화시설의 10%(68개)로서, 청소년 시설 1개당 10,548명의 청소년이 이용해야 하는 열악한 수준임. 또한 지역편차도 상당히 커, 강서구와 양천구는 각각 8개의 청소년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광진구, 도봉구, 마포구는 청소년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음.
- 따라서, 청소년 전용 문화시설 확충, 공공시설 및 기존 문화시설의 청소년 이용 극대화(특히 야간시간대 비운영시설 청소년 활용 할당제 도입 및 관리지원)가 요구되며, 지역별 청소년 인구와 활동을 고려한 청소년 문화시설의 균형적 제공(뉴타운사업, 문화예술인프라 조성사업 등과 연계)이 요구됨.

○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참여, 홍보, 네트워킹 강화

- 청소년 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와 양은 문화관광부 주최 프로그램 4개분야

100여개 사업, 서울시 주최 프로그램 36개 사업 12억원 지원, 97개 민간단체 주최 프로그램 등 다양함. 그러나 청소년의 참여율 저조 및 주체적 참여 부족, 사후 연계 프로그램 부재, 홍보부족, 지역네트워크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일회적·행사별 지원이 아닌 지속적·연계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자치구, 민간단체 등과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중복지원 탈피 및 시너지 강화가 필요함. 아울러 홍보시스템 구축, 청소년들의 일상공간인 학교나 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3. 서울 청소년의 문화적 삶의 양태에 토대를 둔 지원

#### ○ 청소년의 문화향수 및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 확대

- 10대 청소년의 예술행사 관람율은 2003년의 경우 93%로, 전체 연령층 중 청소년층의 관람율이 최대임. 그러나 장르별 연간 관람율을 보면 영화(86.4%) > 대중가요콘서트(20.4%) > 미술전시회(18.4%) > 연극(15.5%) > 음악회·오페라(10.7%) 순으로, 영화를 제외하고 문화예술 향유가 저조한 상황임. 청소년들의 문화관련시설 이용경험 역시, 수련관(50.4%)을 제외하고 이용경험이 저조한 상황임.
- 따라서, 순수문화예술 분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공연기부좌석제, 할인제 등의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수련관 등 전용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홍보 강화, 청소년문화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한 일상적·체계적 정보지원 등이 요구됨.

#### ○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적 문화공간의 적극 개발

-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집(79.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PC방(20.5%), 공원 및 놀이터(16.5%), 노래방(10.1%), 학교(9.0%), 길거리(8.2%) 순임.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여가장소 역시 길거리(35.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학교(25.6%), 공원 및 놀이터(24.3%), PC방(19.8%), 집(18.4%), 노래방(16.8%), 공공장소(11.3%), 극장(7.9%)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 전용 문화시설이 매우 부족하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즐겨 찾는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집근처 지역커뮤니티에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길거리·학교·공원 및 놀이터 등 공공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PC방 활용 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적 문화공간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음.

#### ○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활동 장애요인의 제거 및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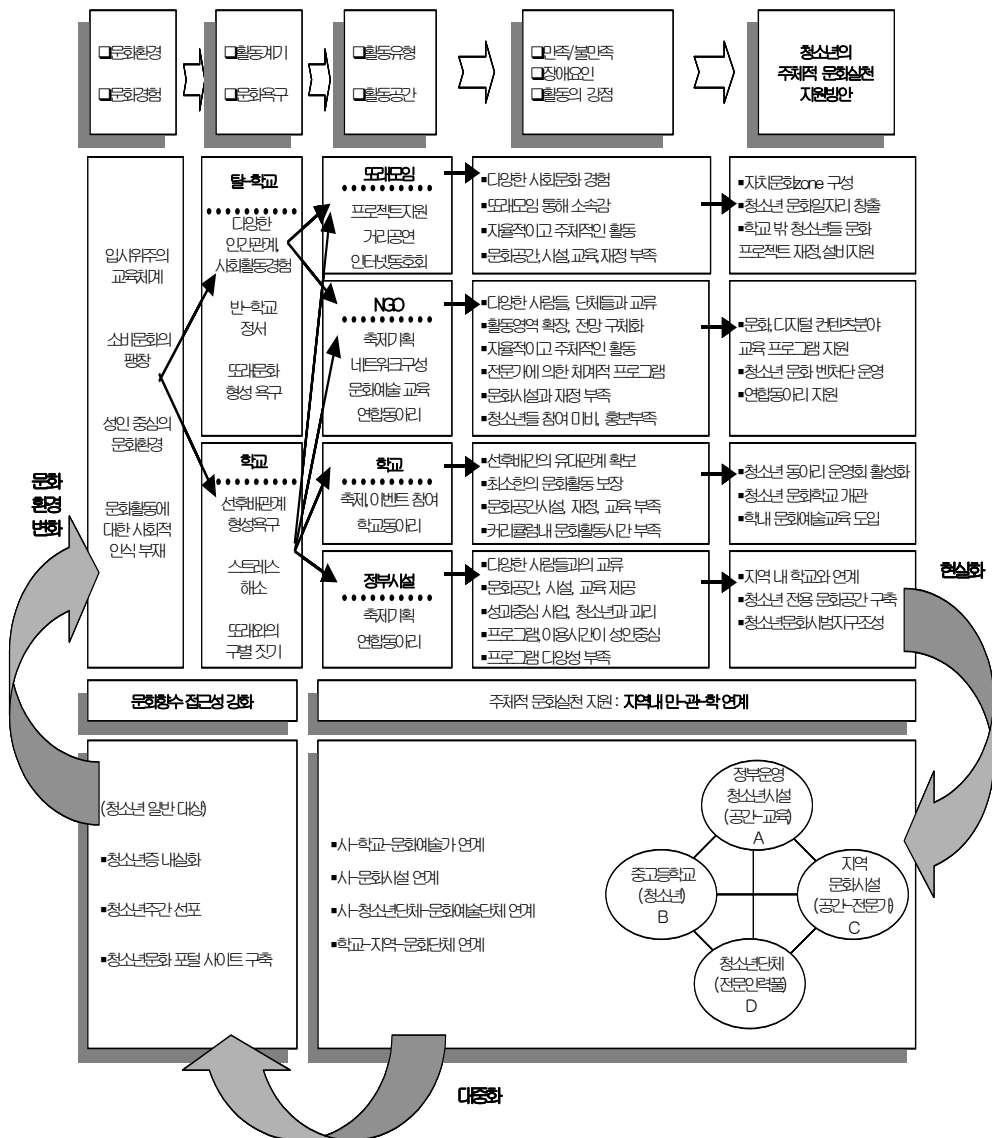
- 주체적으로 문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문화활동의 장애요인은 학업 이외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사회 인식의 부재’, 문화활동 비용을 청소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재’, 문화관련 학내 커리큘럼 부재와 문화담당 교사의 전문성 부족, 성인 중심 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체계적인 문화교육의 부재’, 문화역량을 키우고 활동성과를 발표 및 공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활동기회의 부족’,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홍보 부족, 성인중심 프로그램과 시간대, 성과중심적 사업추진, 지역내 네트워크 부족 등 ‘기존 청소년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등 크게 다섯가지로 요약됨.
- 이러한 장애요인 속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개선사항은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청소년 전용공연시설을 비롯한 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청소년 문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채널 구축’, ‘문화예술 관람에 있어 청소년 할인제 확대 적용’, ‘문화활동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교 내 문화관련 커리큘럼 확충’, ‘청소년 문화 분야의 성인 및 청소년 전문가 양성’,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및 정책 참여기회 확대’, ‘문화시설 및 교육체계의 지역 중심 재배치를 통한 청소년들의 접근성 강화’ 등 크게 아홉가지임.

## 4. 서울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 ○ 청소년의 문화 활동 참여 프로세스에 의거한 단계별 지원 방안 마련

- <그림 1>에서 보듯이, 현재 청소년이 처한 문화환경은 입시위주의 교육체계, 소

비문화의 팽창, 성인 중심의 문화환경, 문화활동에 대한 사회인식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문화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 문화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청소년들이 각기 처한 위치와 상황에 따라 상이한 활동유형과 공간을 갖게 됨.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문화활동의 장애요소와 활동의 성과 및 만족을 느끼게 됨.



<그림 1> 서울 청소년의 문화활동 프로세스에 따른 활성화 방안

-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단계들에 개입하여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가지 차원, 즉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 이를 보다 현실화시키기 위한 ‘지역내 민관학 네트워크 지원’, 이를 적극적인 문화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적인 청소년들에게 대중화시키기 위한 ‘청소년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 지원’이 순환적·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청소년들이 처한 문화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그림 1 참조).

○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 방안

-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문화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이 ‘활동공간’의 부족임. 또한 청소년들은 체계적인 ‘문화교육’을 받고 싶어 하고 있음.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문화는 점차 단순한 놀이나 여가선용이 아닌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일’로 다가오고 있음.
- 따라서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 지원’, ‘교육 지원’, ‘직업연계 지원’ 정책이 요구됨.

<표 1>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 프로그램(1): 공간지원

| 공간 지원: 지역 사회 내 문화활동 공간 구축   |                                                                                                                                                                        |                                                                                                                                                   |
|-----------------------------|------------------------------------------------------------------------------------------------------------------------------------------------------------------------|---------------------------------------------------------------------------------------------------------------------------------------------------|
| 프로그램                        | 단기과제                                                                                                                                                                   | 장기과제                                                                                                                                              |
| 청소년 동아리활동 공간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문화시설 현황 정밀 조사</li> <li>*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을 동아리활동공간으로 제공 (동아리활동실적에 따른 예산지원)</li> <li>*서울시 지원 청소년행사에 동아리 명칭 소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문화 활동 유형에 따른 공간지원형태 차별화, 대안공간 개발</li> <li>*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li> <li>*일반문화시설의 청소년 활용 할 당제 실시</li> </ul> |
| 청소년 자치문화 Zone /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문화해방구 제공</li> <li>*청소년이 기획하고 주최하는 동아리 축제공간화</li> <li>*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지원</li> <li>*문화존 청소년 운영단모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특성화된 유스존 조성 및 대안공간 개발</li> <li>*청소년 자치 운영</li> </ul>                                                  |
| 청소년 문화시범지구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관학 네트워크 잠재력 큰 지역 우선 시범지구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특성화된 시범지구 조성</li> <li>*청소년문화와 지역문화 조화 유도</li> </ul>                                                   |

- ‘공간 지원’은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청소년 전용 문화시설의 확충, 지역내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의 청소년 이용 확대, PC방 등 청소년 일상여가공간의 대안적 문화공간화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을 활용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공간 활성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문화활동의 해방구를 제공하는 청소년 자치문화 ZONE 및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지역사회가 함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는 청소년 문화시범지구 조성 등이 요구됨(표 1 참조).
- ‘교육 지원’은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콘텐츠 분야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학내 문화예술 교육 확대 도입 및 문화활동 교육 실시, 청소년 문화학교 개관 등이 요구됨(표 2 참조).

<표 2>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 프로그램(2): 교육지원

| 교육 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                                                                                                     |
|------------------------------|----------------------------------------------------------------------------------------------------------------------------|-----------------------------------------------------------------------------------------------------|
| 프로그램                         | 단기과제                                                                                                                       | 장기과제                                                                                                |
| 문화콘텐츠분야<br>교육 프로그램<br>지원     | *청소년 선호 및 청소년 특화가능<br>문화콘텐츠분야 교육 및 교사 지원                                                                                   | *청소년문화벤처산업 선정 지원                                                                                    |
| 학내 문화예술<br>교육확대 및<br>문화활동 교육 | *학내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 평가<br>*문화예술관련 커리큘럼 확충<br>*문화예술교사 인력풀제 활성화<br>*학교밖 청소년시설과 연계, 전문교육프로그램 개설                                   | *지역-학교 연계 커리큘럼 마련                                                                                   |
| 청소년<br>문화학교 개관               | *청소년문화시설과 학교 연계 시범<br>문화학교 개관<br>*학점운영제, 학교 예체능과목 대체이수 인정<br>*서울시 문예진흥기금 수혜자 교사로 활용<br>*청소년 예비지도자 및 지도자 대상<br>전문가교육프로그램 개설 | *‘일반문화시설-청소년문화시설-학교’ 연계 지역별로 특성화된<br>문화학교 개관<br>*학교교육과 문화교육의 조화<br>*청소년 문화전문가/지도자 양성<br>기관화(대학과 연계) |

- ‘직업 연계 지원’은 청소년들의 문화산업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된 직업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일과 문화적 욕구를 조화시키는 것임. 이를 위해 청소년을 위한 문화분야 일자리 창출, 청소년 문화벤처단 운영 활성화, 학교밖 청소년들의 프로젝트형 창작 프로그램 지원 등이 요구

됨(표 3 참조).

<표 3>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 프로그램(3): 직업연계 지원

| 직업연계 지원: 청소년의 문화산업활동 지원 |                                                                                                         |                           |
|-------------------------|---------------------------------------------------------------------------------------------------------|---------------------------|
| 프로그램                    | 단기과제                                                                                                    | 장기과제                      |
| 청소년 문화일자리 창출            |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에 청소년 우선 취업 인센티브 제공<br>*문화예술시설의 업무, 운영실태, 인력 수요 등 파악<br>*전문교육과정 이수 희망하는 일하는 청소년 장학금 등 혜택 부여 | *문화예술시설 청소년 고용할당제 도입      |
| 청소년 문화 벤처단 운영 활성화       | *청소년문화예술 동아리 대상 문화교육 지원 및 문화봉사활동 유도                                                                     | *청소년문화벤처 전문가 양성 지원        |
| 학교밖 청소년들의 프로젝트형 프로그램 지원 | *직업적 전망과 문화활동 연계<br>*지역내 문화인과 mento-mentee 관계맺기                                                         | *문화활동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후원 |

○ 지역내 민관학 네트워크 구성 지원 방안

-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함. 현재 서울의 청소년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즉 사후 연계 프로그램의 부재와 지속적·연계적 지원 프로그램 미비 등을 해결하고, 중앙정부와 지치구, 민간단체와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중복지원 탈피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원의 재배치와 재분배가 요구됨.
- 따라서, 지역을 중심으로한 민관학 네트워크 구성에 우선점을 두어, 지역내 학교와 문화시설, 청소년단체, 정부운영시설 등간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하며, 그 네트워킹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한 정책 지원 방안으로는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기존 지역사회 민관학 네트워크 지원’, ‘네트워크형 문화기획사업 지원’, ‘다양한 네트워크 모델 개발’(예를 들어 정부시설 중심모델, 청소년민간단체 중심모델, 문화예술인 중심모델, 지역리더 연계모델) 등이 요구됨(표 4 참조).

<표 4> 지역내 민관학 네트워크 지원 방안

| 프로그램                                 |                                      | 단기과제                                                                                                                       | 장기과제                                                                               |
|--------------------------------------|--------------------------------------|----------------------------------------------------------------------------------------------------------------------------|------------------------------------------------------------------------------------|
| 네트워크<br>협의체 구성                       |                                      | *서울시 청소년과(혹은 서울문화재단) 내<br>청소년 네트워크 지원 전담팀 구성<br>*네트워크 실태조사<br>*네트워크(networker) 협의체 구성<br>*주체별/사안별 협의체 구성<br>*청소년문화포럼 정기 개최 | *수도권 및 전국 네트워크 협의체<br>구성<br>*상설협의기구화<br>*일반문화시설(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및<br>연계 |
| 지역사회<br>민관학 네트워크<br>지원               |                                      | *네트워크 모델화 가능지역 지원<br>*네트워크 실태조사 사업 지원<br>*지역별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 구성주체<br>및 참여주체 선정 지원                                             | *지역별 네트워크 모델화<br>*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자<br>원의 효과적 활용                                   |
| 네트워크형<br>문화기획사업<br>지원                |                                      | *시의 청소년지원 공모사업시 네트워크<br>기획사업 지원 항목 설정<br>*청소년 문화관련 공모사업 제안서에 네트<br>워크 평가항목 설정<br>*네트워크 운영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적, 장기적<br>연계지원 강화                                                      |
| 네<br>트<br>워<br>크<br>모<br>델<br>개<br>발 | 정부시설<br>중심모델<br>(공공성<br>강화모델)        |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집, 하자센터, 스스<br>로넷 등이 네트워크 주체<br>*공동사업기획, 청소년 동아리 시설 및 기<br>자재 지원, 청소년지도자들과 동아리 회<br>원들간 커뮤니티 구성               | *지역 내 문화시설, 청소년동아리,<br>학교, 청소년단체, 지역인사, 정부,<br>기업등과 안정적 네트워크 구축<br>*새로운 모델의 지속적 개발 |
|                                      | 청소년<br>민간단체<br>중심모델<br>(주체성<br>강화모델) | *청소년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주체화<br>*지역청소년 문화공동체 형성, 지역 청소년<br>공동기획단 구성, 학교 문화활동에<br>인력지원                                                |                                                                                    |
|                                      | 문화예술인<br>중심모델<br>(전문성<br>강화모델)       | *문화예술가단체의 네트워크 주체화<br>*지역문화활동에 초점, 인적자원 확보, 청<br>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                                                                                    |
|                                      | 지역리더<br>연계모델<br>(커뮤니티<br>강화모델)       | *청소년문화시설의 네트워크 주체화<br>*지역 내 관련기관 연계, 청소년 보호 및<br>상담활동, 공동사업 기획                                                             |                                                                                    |

○ 청소년의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 지원 방안

- 청소년들의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청소년 문화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청소년의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증대시켜주는

프로그램, 소외계층 및 지역 청소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세부적으로 ‘청소년 문화포털 웹사이트 구축’, ‘청소년증 내실화’, ‘청소년주간 선포’, ‘소외계층 청소년 공연무료 관람’, ‘취약지역 학교 특별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요구됨(표 5 참조).

<표 5>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 지원 방안

| 프로그램                      |                  | 단기과제                                                                                                         | 장기과제                                                                               |
|---------------------------|------------------|--------------------------------------------------------------------------------------------------------------|------------------------------------------------------------------------------------|
| 청소년 문화포털 웹사이트 구축          |                  | *청소년문화 DB구축<br>*청소년문화포럼, 청소년지원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 허브사이트 등 여타 청소년 문화 사이트와 연계<br>*청소년 네트워크단체에서 운영<br>*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공간화 | *청소년문화 종합 정보 실시간 제공                                                                |
| 문화향수<br>증대                | 청소년증 내실화         | *학생증 폐지, 청소년증으로 통합<br>*문화예술활동(극장, 공연, 음악회, 연극, 전시 등)의 청소년 할인제 확대                                             | *스마트카드화<br>(여행, 여가, 교통, 소비 결합)<br>*업계대상 청소년사랑 인증제                                  |
|                           | 청소년주간선포          | *특정시즌 청소년주간 정례화<br>*청소년 주최, 기획 축제 개최<br>*청소년 다중이용지역에서 개최                                                     | *다양한 청소년주간 운용 (주5일수업제와 연계된 youth day, youth week, youth month 등)<br>*실질적 네트워킹의 계기화 |
|                           | 예술관람 경험증대        | *청소년 문화의 날 지정, 박물관·미술관 무료입장 실시                                                                               | *순수예술체험 정규교과 반영, 현장 교육 강화                                                          |
| 소외계층<br>청소년<br>공연무료<br>관람 | 소외계층 청소년 공연무료 관람 | *찾아가는 문화행사(이동식공연장 확대)<br>*모셔가는 문화행사<br>*최종 리허설 관람 기회 부여<br>*방학기간 중 낮 시간대 영화관람 할인                             | *프로그램의 일상화<br>*소외지역 문화시설, 프로그램 확충                                                  |
|                           | 취약지역 학교 특별활동 지원  | *문화예술동아리 대상 전공지도교사 파견 및 물품지원<br>*개인교습희망 저소득층학생 대상 무료교습 실시                                                    | *예술가 지역상주 프로그램 실시                                                                  |

## 5. 서울시 청소년 문화정책 기본계획(SYP) 수립

- 이상에서 제시한 청소년 문화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청소년 문화정책 기본계획(가칭 SYP, Seoul Youth Plan)’이 수립되어야 함.
- SYP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문화정책 중장기 마스터플랜(원칙, 비전, 목표, 방향, 전략, 실행과제, 예산계획)’, ‘CIS(콘텐츠, 인프라, 추진체계) 추진 방안’, ‘청소년의 문화활동 프로세스에 따른 세 개의 지원영역(주체적 문화

실천 영역, 지역내 민관학 네트워크 지원 영역,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 영역) 세부 추진방안, ‘중앙정부, 자치구, 서울문화재단, 민간재단(다음세대재단, 아름다운재단 등) 등과의 연계 및 역할분담 방안’ 등임.

- 아울러, SYP는 최소 1년 내지 3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등 정부정책과 연계시켜야 함. 또한 지원사업 평가시스템(기준, 항목)을 마련하고, 다양한 재원조성 방안(청소년 문화축진기금 조성 등)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SYP에 포함되어야 함.

## 6.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사업별 우선순위

-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사업을 우선순위별로 제시하면 <표 6>과 같음.

<표 6>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별 우선순위

| 사업명                      |                         | 우선순위               |                    |                    |
|--------------------------|-------------------------|--------------------|--------------------|--------------------|
|                          |                         | 1순위<br>(2005-2006) | 2순위<br>(2007-2008) | 3순위<br>(2009-2010) |
| 주체적<br>문화실천<br>지원        | 청소년 동아리 활동공간 활성화        | ●                  |                    |                    |
|                          | 청소년 자치문화존 /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 ●                  |                    |                    |
|                          | 청소년 문화시범지구 조성           |                    |                    | ●                  |
|                          | 문화콘텐츠 분야 교육프로그램 지원      | ●                  |                    |                    |
|                          | 학내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문화활동 교육  |                    | ●                  |                    |
|                          | 청소년 문화학교 개관             |                    |                    | ●                  |
|                          | 청소년 문화일자리 창출            |                    | ●                  |                    |
|                          | 청소년 문화벤처단 운영 활성화        | ●                  |                    |                    |
| 지역내<br>민관학<br>네트워크<br>지원 | 학교밖 청소년 프로젝트형 프로그램 지원   |                    | ●                  |                    |
|                          |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 ●                  |                    |                    |
|                          | 지역사회 민관학 네트워크 지원        | ●                  |                    |                    |
|                          | 네트워크형 문화기획사업 지원         | ●                  |                    |                    |
| 문화향수<br>접근성<br>강화        | 네트워크 모델 개발              |                    | ●                  |                    |
|                          | 청소년 문화포털 웹사이트 구축        | ●                  |                    |                    |
|                          | 청소년증 내실화                |                    | ●                  |                    |
|                          | 청소년 주간 운영               |                    | ●                  |                    |
|                          | 순수예술 관람 경험 증대           | ●                  |                    |                    |
|                          | 저소득층·소외계층 청소년 공연관람 확대   | ●                  |                    |                    |
| 기타                       | 취약지역 학교 문화예술 특별활동 지원    | ●                  |                    |                    |
|                          | 서울시 청소년 문화정책 기본계획 수립    | ●                  |                    |                    |

# 목 차

---

|                             |    |
|-----------------------------|----|
| 제1장 연구 개요 .....             | 1  |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 3  |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 6  |
| 제2장 청소년 문화연구의 패러다임 전환 ..... | 9  |
| 제1절 청소년을 둘러싼 담론 변화 .....    | 11 |
| 제2절 청소년 문화연구의 경향 .....      | 17 |
| 제3절 청소년의 문화환경과 문화정체성 .....  | 22 |
| 제4절 청소년 문화정책에 주는 함의 .....   | 25 |
| 제3장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환경 현황 .....  | 27 |
| 제1절 청소년 문화정책 현황 .....       | 29 |
| 제2절 청소년 문화시설 현황 .....       | 34 |
| 제3절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현황 .....     | 41 |
| 1. 문화관광부 주최 프로그램 .....      | 41 |
| 2. 서울시 주최 프로그램 .....        | 45 |
| 3. 청소년 민간단체 주최 프로그램 .....   | 54 |
| 제4장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실태 .....  | 63 |
| 제1절 청소년의 문화향수 실태 .....      | 65 |
| 1. 청소년 인구 및 교육 현황 개관 .....  | 65 |

|                                       |            |
|---------------------------------------|------------|
| 2. 일반 청소년의 문화향수 실태 .....              | 70         |
| 제2절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활동 실태 .....            | 77         |
| 1. 적극적 문화실천 청소년 대상 심층인터뷰 .....        | 77         |
| 2.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일상문화 .....              | 79         |
| 3. 청소년의 문화활동 내용과 만족도 .....            | 86         |
| 4. 청소년의 문화활동 장애요인과 문화욕구 .....         | 94         |
| 제3절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사례 .....      | 105        |
| 1. 서초구 ‘구립 서초 유스센터’ 모델 .....          | 105        |
| 2. 강북구 ‘청소년 문화공동체 품’ 모델 .....         | 108        |
| 3. 부천시 ‘부천 청소년수련관’ 모델 .....           | 110        |
| 4. 여주시 ‘밀머리 미술학교’ 모델 .....            | 113        |
| <b>제5장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b> | <b>115</b> |
| 제1절 청소년의 문화활동 프로세스에 따른 지원 방안 .....    | 116        |
| 제2절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 방안 .....         | 119        |
| 1. 공간적 지원: 지역사회 내 문화활동 공간 구축 .....    | 119        |
| 2. 교육적 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 .....  | 123        |
| 3. 직업연계 지원: 청소년들의 문화산업활동 지원 .....     | 126        |
| 제3절 지역 내 민-관-학 네트워크 구성 지원방안 .....     | 129        |
| 1.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                  | 129        |
| 2. 지역사회 민관학 네트워크 구성 .....             | 131        |
| 3. 네트워크형 문화기획사업 지원 .....              | 132        |
| 4. 네트워크 모델개발 .....                    | 133        |
| 제4절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 지원방안 .....            | 138        |
| 1. 청소년 문화포털 웹사이트 구축 .....             | 138        |

|                                    |            |
|------------------------------------|------------|
| 2. 청소년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 증대 .....        | 139        |
| 3. 소외계층 및 지역 지원 프로그램 .....         | 142        |
| <b>제6장 결론 및 제언 .....</b>           | <b>145</b> |
| 제1절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 종합 .....    | 147        |
| 제2절 서울 청소년 문화정책 기본계획(SYP) 수립 ..... | 151        |
| 제3절 지원사업별 우선 순위 .....              | 153        |
| <b>참고문헌 .....</b>                  | <b>157</b> |

## 표 목 차

---

|                                               |    |
|-----------------------------------------------|----|
| <표 2-1> 한국의 시기별 ‘청소년’ 담론 변화 .....             | 14 |
| <표 2-2>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청소년 문화연구 경향 .....       | 19 |
| <표 3-1> 청소년 관련 행정 기구 .....                    | 30 |
| <표 3-2> 문화관광부 청소년정책 혁신 방향 .....               | 32 |
| <표 3-3> 서울시 청소년정책의 기본 방향 .....                | 33 |
| <표 3-4> 전국 시도별 문화시설 현황 .....                  | 34 |
| <표 3-5> 서울시 구별 지역문화복지시설 현황 .....              | 36 |
| <표 3-6> 서울시 구별 문화시설 순위별 현황 .....              | 37 |
| <표 3-7> 청소년 수련시설의 연도별 현황 .....                | 38 |
| <표 3-8> 서울시 청소년 문화시설 및 인구 현황 .....            | 39 |
| <표 3-9> 문화관광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현황(청소년수련마을) .....    | 42 |
| <표 3-10> 문화관광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현황(국제교류) .....      | 43 |
| <표 3-11> 문화관광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현황(문화기획 및 활동) ..... | 45 |
| <표 3-12> 서울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현황(청소년전용광장) .....     | 47 |
| <표 3-13> 서울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현황(국제교류) .....        | 48 |
| <표 3-14> 서울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현황(체험활동) .....        | 50 |
| <표 3-15> 서울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현황(탐험활동) .....        | 51 |
| <표 3-16> 서울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현황(문화기획 및 활동) .....   | 53 |
| <표 3-17> 민간단체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현황(국제교류) .....       | 55 |
| <표 3-18> 민간단체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현황(체험활동) .....       | 57 |
| <표 3-19> 민간단체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현황(탐험활동) .....       | 58 |

|                                              |     |
|----------------------------------------------|-----|
| <표 3-20> 민간단체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현황(문화기획 및 활동) ..... | 60  |
| <표 4-1> 청소년 인구 추이 .....                      | 66  |
| <표 4-2> 시도별 고등교육기관 세부 진학률 .....              | 67  |
| <표 4-3> 시도별 중도탈락률(2002) .....                | 68  |
| <표 4-4> 청소년들의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 .....             | 69  |
| <표 4-5> 청소년들의 사회단체 참여도 및 참여분야 .....          | 74  |
| <표 4-6> 청소년들의 사회단체 참여도 및 만족도 .....           | 74  |
| <표 4-7> 인터뷰 대상자들의 기본 사항 .....                | 77  |
| <표 4-8> 심층 인터뷰 질문항 .....                     | 78  |
| <표 4-9> 서울 청소년들의 time schedule(평일) .....     | 79  |
| <표 4-10> 서울 청소년들의 time schedule(토요일) .....   | 80  |
| <표 4-11> 서울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와 공간 .....             | 83  |
| <표 4-12> 서울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장애요인 .....            | 101 |
| <표 4-13>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욕구 .....         | 102 |
| <표 5-1> 네트워크 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              | 130 |
| <표 5-2> 지역사회 민관학 네트워크의 기능 및 구성 .....         | 131 |
| <표 6-1>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 과제(1): 공간지원 .....        | 147 |
| <표 6-2>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 과제(2): 교육지원 .....        | 148 |
| <표 6-3>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 과제(3): 직업연계 지원 .....     | 148 |
| <표 6-4> 지역내 민관학 네트워크 지원 과제 .....             | 149 |
| <표 6-5>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 지원 과제 .....              | 150 |
| <표 6-6> 해외도시의 청소년 문화정책 비전 .....              | 151 |
| <표 6-7>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사업별 우선 순위 .....         | 153 |

## 그림 목 차

---

|                                              |     |
|----------------------------------------------|-----|
| <그림 1-1> 연구체계 .....                          | 8   |
| <그림 3-1>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 구분 .....               | 38  |
| <그림 4-1> 청소년 인구구성비 .....                     | 65  |
| <그림 4-2> 진학률 .....                           | 67  |
| <그림 4-3>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방법 .....                 | 69  |
| <그림 4-4> 연령에 따른 예술행사 관람률 .....               | 71  |
| <그림 4-5> 장르별 예술행사 연간 관람율 .....               | 72  |
| <그림 4-6> 서울시 청소년들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          | 73  |
| <그림 4-7> 서울시 청소년들의 여가활용 공간 .....             | 75  |
| <그림 4-8> 서울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장애요인 .....           | 76  |
| <그림 4-9> 서울 청소년들의 주체적 문화활동 유형 .....          | 86  |
| <그림 4-10> 구립 서초 유스센터 네트워크 모델 .....           | 106 |
| <그림 4-11>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네트워크 모델 .....           | 109 |
| <그림 4-12> 부천 청소년수련관 네트워크 모델 .....            | 111 |
| <그림 4-13> 밀머리 미술학교 네트워크 모델 .....             | 113 |
| <그림 5-1> 서울 청소년의 문화활동 프로세스에 따른 활성화 방안 .....  | 117 |
| <그림 5-2> 민관학 네트워크 모델(1): 정부시설 중심모델 .....     | 134 |
| <그림 5-3> 민관학 네트워크 모델(2): 청소년 민간단체 중심모델 ..... | 135 |
| <그림 5-4> 민관학 네트워크 모델(3): 문화예술인 중심모델 .....    | 136 |
| <그림 5-5> 민관학 네트워크 모델(4): 지역리더 연계모델 .....     | 137 |
| <그림 5-6> 파리의 청소년증 사례 .....                   | 140 |

|                                |     |
|--------------------------------|-----|
| <그림 5-7> 파리의 청소년 교통카드 사례 ..... | 141 |
| <그림 5-8> 영국의 커넥션즈 카드 사례 .....  | 141 |

# 제 1 장

## 연구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제1장 연구 개요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담론은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의 시선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청소년 보호, 청소년 선도, 청소년 수련, 청소년 교화 등 우리가 익히 들어본 청소년 정책의 문구들은 청소년을 훈육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배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은 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지만 잘만 이끌면 건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에는 청소년이 세상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는 주체적인 존재이기보다는 기성세대의 가치체계를 전수 받아 정상적인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 해갔으면 하는 바램이 담겨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소수자(minority)로서 존재해왔을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사회정책은 이처럼 소수자를 정도에서 벗어난(deviant) 사람들로 정의한 후 이들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생각해내는 데 몰두한다.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을 대상화시키는 권력의 정책적 의도에 따라 변화해왔다. 하지만 정작 그 정책들은 청소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했다. 지구화, 정보화로 요약되는 최근 10여 년간 사회 변화는 청소년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가 기성세대가 살아온 시대와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을 둘러싼 주요한 환경변화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사회로부터 정보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정책의 강조점이 사회경제적 '구조'로부터 '과정(process)'으로, '지위'로부터 '기능(function)'으로, '역할'로부터 '이니셔티브(initiative)'로 옮겨졌다(Council of Europe, 1998).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인터넷 환경의 보편화, 모바일 문화의 파급력 확대, 쌍방향 통신의 영향력 증대 등에 따라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이 크게 달라졌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정보 기술을 가장 빨리 습득하는 연령층이자 이 기술을 자신의 표현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세대 집단보다 훨씬 능숙하다.

둘째, 오늘날의 청소년은 내적 다양성과 역동성에 있어 과거 세대와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청소년이 상업문화에 물들고 있다’ ‘청소년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청소년 사이에 왕따 현상이 심각하다’ 등의 말들은 청소년을 단일한 특징을 지닌 문제적 집단으로 단순화시키는 담론의 대표적 예다. 하지만 이러한 담론은 청소년이 외부(기성세대)와의 구별 짓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부(기성세대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또래집단) 사이에서의 구별짓기(distinction)를 통해 주체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다.

셋째, 현대 청소년들은 지식의 노후화 속도가 대단히 빠른 시대를 살고 있다. 약 12-16년간의 교육으로 살아가는 데 별 문제가 없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시대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과 평생교육은 이제 불가피한 의무가 되었다.

청소년 정책은 구조적 도전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선진국가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개개인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청소년 정책은 최근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규범적 통제를 중심으로 한 소극적 대안제시에 머무르는 경향이 지배적이며, 특히 청소년 대상 문화정책은 대부분 연령에 따른 규제에 강조를 두고 있다. 이는 기존의 청소년 대상 문화정책이 변화하는 환경과 그에 따른 청소년들의 변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문화정책은 청소년 정책의 문화지향적 전환(cultural turn)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청소년을 창의적인 문화실천 주체이자 변화추진자로 인식하고, 사회구조와 문화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와 청소년집단의 이질화를 주목하면서, 청소년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 청소년 문화정책은 문화의 ‘공공성’과 청소년의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양립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를 현재 청소년이 좋아하고 즐기는 문화에 국한시키지 않고, 청소년이 문화적 주체로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체득하도록 도와주는 것, 자신과 다른 문화적 취향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 등이 청소년 문화정책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서울의 청소년들이 지금보다 나은 문화적 환경에서 창의적인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과 정책대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청소년들의 ‘문화실천능력(empowerment)’, ‘문화마인드(respect)’, ‘문화참여(participation)’ 등을 핵심컨셉으로 하는 청소년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및 비전 제시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청소년이 처해있는 사회적 여건과 문화환경, 그에 따른 청소년들의 문화적 삶의 양태를 고찰함으로써 청소년 문화를 내부로부터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주체적 문화 활동 및 실천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연구하여, 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은 청소년 문화연구의 패러다임 전환, 청소년의 문화환경 현황, 청소년의 문화 활동 실태, 청소년의 문화 활동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언 등 크게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1-1 참조).

첫째, 청소년 문화연구의 패러다임 전환 파트에서는, 청소년의 개념을 둘러싼 담론 변화와 청소년 문화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문화환경과 문화정체성을 정립 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정책의 함의를 도출한다.

둘째, 청소년 문화환경 현황 파트에서는, 서울과 관련된 청소년 문화정책과 서울시의 청소년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본다.

셋째, 청소년의 문화 활동 실태 파트에서는,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향수 실태와 서울시 청소년의 주체적인 문화 활동 실태,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사례 등을 살펴본다.

넷째, 청소년 문화 활동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제언 파트에서는,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 활동 프로세스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방안과 서울지역 내 민관학 네트워크 구성방안, 청소년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서울시 청소년 문화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심층인터뷰, 현장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문헌연구에서는 청소년개발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연구자료와 관련 학계의 연구논문, 서울시,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기관의 정책자료, 청소년 전문단체의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학계, 청소년단체, 문화전문가, 청소년활동가,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심층인터뷰는 정부운영 청소년시설, 청소년 민간단체, 청소년 동아리, 인터넷 동호회, 또래모임 등에서 활동하는 총 31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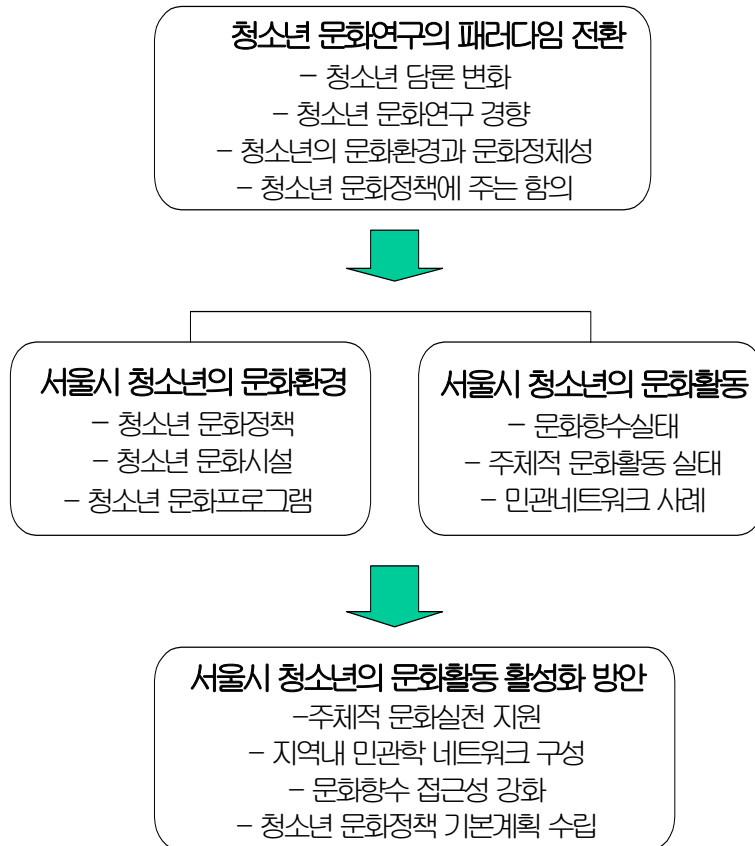
현장조사는 청소년 문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유스센터(방배, 서초), 청소년 전문단체(품), 청소년 수련관(부천) 등 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시설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청소년 범위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 13~18세의 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청소년<sup>1)</sup>은 본래 소년과 청년을 합친 말이어서,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이들로 규정짓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삶의 양태에 있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학생, 대학생에 각각 해당하는 연령층의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이 크게 다른데다, 청소년의 주체적인 문화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인 대학생과 초등학교생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비교적 문화환경과 삶의 양태가 비슷한 중학교생 연령층(만 13세에서 18세)으로 대상을 국한시켰다.

---

1)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청소년’이란 근대의 사회적 구성물이다. 조선시대의 청소년 문화를 말하려고 할 때 당혹감을 느끼는 것은 이 때문이다. 청소년을 연령구분에 따른 사회적 집단이라고만 정의하면 당연히 조선시대에도 청소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어른과 아이 사이에 어떤 다른 범주도 없었다. 현재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이란 범주는 “아직 완전히 성숙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기 행동을 책임질 수 있고 미래를 예비하는 존재”를 지칭한다. 근대 초기 이런 개념이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되었을 때 청소년에 대한 그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이광수는 <소년>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청소년을 근대성의 각각의 주체로 설정하였으며, ‘청년이여, 분발하라’는 구호가 근대 잡지마다 넘쳐났다. ‘청춘의 꽃은 피’는 민족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육체적으로 나약하고, 정신적으로 어리광이나 부리고 철부지 같은’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10대 말의 연령층을 자각시키기 위해 등장했다(신동원, 『조선사람의 생로병사』, 한겨레신문사).

<http://my.dreamwiz.com/khceng/history/hist012.htm>에서 재인용



<그림 1-1> 연구체계

## 제 2 장

### 청소년 문화연구의 패러다임 전환

제1절 청소년을 둘러싼 담론변화

제2절 청소년 문화연구의 경향

제3절 청소년의 문화환경과 문화정체성

제4절 청소년 문화정책에 주는 함의

## 제2장 청소년 문화연구의 패러다임 전환

### 제1절 청소년을 둘러싼 담론 변화

‘청소년(youth)’ 혹은 ‘사춘기(adolescence)’는 근대의 사회문화적 창조물이다. 그것은 당대의 철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생물학적 입장들을 반영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개념적 고안물이다. 실제로 근대 이전 14~16세 사이의 젊은이들은 가정의 경제적 재산이었으므로, 소수의 엘리트층을 제외하고는 사회활동에서 유예된 존재로서 사치를 즐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권두승·조아미, 1998: 17). 기본적으로 그들은 어른들의 생산과 공동체 활동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그들은 ‘작은 어른’이었고 그 과정은 단절적인 것이 아니었다(조한혜정, 2000: 136). 서유럽에서 청소년에 관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난 것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다. 17~18세기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부분의 시골에서는 아동(child), 청소년(youth), 젊은이(young people)가 비슷한 말이었고, 7~8세 이후에는 성인과의 연령 구분이 분명치 않았다.

‘청소년’ 혹은 ‘사춘기’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19세기 중반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가족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부터였다. 평균수명 연장, 출생률 증가, 핵가족 문화의 정착 등으로 부모가 10대 자녀들을 보살피게 되었고, 자녀들이 집을 떠나는 속도가 점차 늦춰졌다. 그 때부터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옮겨가는 것으로만 여겨졌던 삶의 흐름에 중간단계로 ‘청소년’이 삽입되었다. 그런 만큼 청소년 담론도 처음에는 이러한 중간단계의 특성을 조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시기를 독자적인 삶의 시기가 아니라 그저 미래를 준비하는, 제대로 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채비를 갖추는 시기로 본 것이다(정유성, 1998: 3). 즉, 청소년은 성인을 준비하는 발달단계의 한 과정에 놓인 미성숙한 존재이자 의존적인 존재로서 규정되었다.

이는 ‘청소년’ 혹은 ‘사춘기’에 녹아 있는 ‘주체’에 관한 철학적 이해를 살펴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우선, ‘청소년’은 정상적인 성인 자아에 대한 철학적 개념에 반하여 정의된다. 여기서 성인 자아란 계몽주의적 주체를 말하며 안정적, 불변적, 자율적, 독립적이고 스스로를 책임지고 선택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한다. 따라서 청소년은 이와 반

대로 불안정적, 유동적, 타율적, 의존적인 주체로 규정된다. 또한 ‘사춘기’는 성적인 성숙함을 획득하는 문제나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발달의 과정과 연관된다. 이 맥락 속에서 사춘기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며, 반항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학습능력이 뒤쳐지는 무능력한 생애의 기간으로 이야기된다(Besley, 2003: 154). 물론 ‘청소년’은 사회학적·철학적 담론에서 주로 이야기되었고, ‘사춘기’는 생물학적·심리학적·교육학적 담론 속에서 다루어져 왔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론적 전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용어에 대한 연대기적 정의는 관료적인 전통과 지위를 반영한다. 둘 다 모두 성인들의 가치와 세계를 포함한 성인문화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즉, ‘청소년’이나 ‘사춘기’는 정상적인 주체로 간주되는 ‘성인’에 대립되는 ‘비정상적’ 혹은 ‘병리적’ 주체로 정의되어 왔다.

청소년 담론이 청소년 혹은 사춘기를 독자적인 삶의 시기로 보고, 청소년들의 삶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유럽사회에 풍요와 안정이 찾아오면서 아이들의 수는 늘어났고, 교육기회가 확대되었으며, 노동세계로의 전이과정이 복잡해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의 삶이 눈에 띄게 되었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인 이해를 위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세대갈등이나 사회일탈의 ‘문제범주(problem category)’로서의 관심이었다(Cohen, 1997: 193). 더구나 대중매체의 선정적인 보도가 가세하면서 청소년은 기존질서와 세대를 거부하고 사회의 ‘도덕적 공황’을 야기하는 존재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전후세대로서 첫 번째 풍요의 수혜자이자, 교육기회 확장의 수혜자인 청소년은 ‘세대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아’로 간주된 것이다.

반면 풍요의 수혜자로서, 소비사회의 주된 고객으로서 청소년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였다. 소비사회의 도래와 함께 레저와 소비, 여가의 영역에서 접근기회의 동등성이 보장되면서 세대론 속에 담겨있던 청소년에 대한 무계급성의 신화는 지속되었다. 1920년대부터 존재하던 갭 문화, 청소년문화는 부르주아적 성향을 띠고 있는 오락산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배문화에 편입되었고, 청소년은 여가사회의 전위부대로 부각되었다. 이로써 1960년대 중반까지 청소년 문화는 상업적 선택의 문제, 그리고 취향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청소년은 ‘즐기는 존재로서 청소년(youth as fun)’으로 재정의되었다(최이숙, 2002: 11).

이후 청소년은 끊임없이 대상화되고 소외되지만, 1960년대를 기점으로 ‘사회변화의 상징’적 주체가 된다. 1960년대에 사회적 불황이 다가옴에 따라, 교육을 받은 중산층 청소년들이 반(反)문화, 저항문화 운동을 이끌면서 사회변화의 직접적인 주체로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청소년을 각종 사회문제의 원천이자 희생자로 묘사했던 기존의 단일한 시각에서 벗어나, 정치·사회·문화의 다양한 배경 속에 청소년을 위치짓고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보다 최근에 청소년기는 생애과정(life course)에서 중요하고 전략적인 시기로 재평가되고 있다. 성장 과정이 점차 개별화되면서 초래된 이런 개념적 변화는 성년기로 가는 경로가 다변화되었음을 시사한다(Council of Europe, 1998). 그리고 이 변화의 배경에는 근대적 사회에서 탈근대적 사회로의 전환이 자리하고 있다. 청소년 개인은 사회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라기 보다, ‘협상’ 과정을 통해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협상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본과 가족의 지원, 성과 학력 등의 다양한 변수에 달려있다.

요컨대, 서구에서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사회화의 한 단계이자 삶의 과도기에 놓여있는 미완성 존재로, 문제범주이자 세대갈등의 주범으로, 소비사회의 주체로, 사회변화의 상징적 주체이자 저항주체로, 그리고 차이와 다양성을 지닌 이질적 존재로 변모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 담론은 ‘문제’에서 ‘문화’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사회에서도 ‘청소년’을 둘러싼 담론변화가 진행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담론의 변화는 자본주의의 발달양상, 국가 및 사회제도의 성숙과정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청소년이 국가의 정치적, 정책적 관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왔다는 의미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담론의 변화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기는 청소년이 기성세대와 대비되는 세대개념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1970년대고, 두 번째 시기는 청소년이 대학생 집단과 구분되면서 청소년에 관한 담론이 ‘학생’에 관한 담론과 동일시되던 1980년대다. 세 번째 시기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의 시기로, 신세대, X세대, N세대 등의 개념이 새로이 등장하던 시기다(표 2-1 참조).

<표 2-1> 한국의 시기별 ‘청소년’ 담론 변화

| 구분          | 1시기<br><1970년~1979년>                              | 2시기<br><1980년~1987년>                                                    | 3시기<br><1987년~현재>                                                                           |
|-------------|---------------------------------------------------|-------------------------------------------------------------------------|---------------------------------------------------------------------------------------------|
| 일반적<br>사회조건 | 권위주의적 통치체제 확립<br>경제발전, 사회안정에 주력<br>대중문화의 폭발과 통제   | 국가정통성 확보에 주력<br>교육기관, 언론기관 활용<br>지배이데올로기 옹호<br>노동통제 강화/유화정책             | 최초 민간정부 출현<br>형식적 민주주의 형성<br>사회주의권 몰락<br>본격적인 소비사회의 도래                                      |
| 청소년<br>사회조건 | 중등교육 팽창, 도시산업화<br>→청소년·청소년기에 대한<br>인식형성           | 대학생 증가, 대학에 대한<br>사회적 의미변화<br>→대학생 특화                                   | 소비수준 상승<br>→청소년 소비세대로 등장<br>신세대·X세대·N세대                                                     |
| 청소년<br>정책   | “규제와 보호의 논리”<br>미성년자 보호법<br>아동복지법<br>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 “육성업무로 전환”<br>청소년문제에 관한 관심<br>국가정책으로 인정<br>두발자유화, 교복자유화<br>야간 통행금지 전면해제 | 복지정책·보호정책 공존<br>보호정책·선도정책 공존<br>청소년헌장(90, 98)<br>청소년육성법(91)<br>정보법(97)<br>청소년육성5개년계획(93,98) |
| 청소년<br>규정   | 미래주역, 국민으로 동원<br>보호대상, 미성숙존재<br>제약된 주체<br>청년문화 배제 | 보호·육성의 대상<br>본격적인 정부정책 대상<br>청소년과 대학생 분리                                | 소비 주체<br>프로슈머(prosumer)<br>보호대상, 미성숙존재                                                      |
| 청소년<br>문화   | 국가관·민족관 확립<br>애국애족의 문화생산 강조                       | 제약된 소비주체인 10대<br>문화생산 주체인 대학생                                           | 탈선과 비행의 온상지<br>소비문화의 주 주체<br>생산적 문화실천의 장                                                    |
| 담론적<br>대립   | 학생 대 근로청소년<br>학생 대 비행청소년                          | 학생 대 비학생<br>학생 대 비행청소년                                                  | 학생 대 소비자                                                                                    |

\* 참고: 최이숙, 2002, ‘1970년 이후 신문에 나타난 청소년 개념의 변화’

국가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위해 온 국민의 일치단결이 강조되었던 제 1시기의 청소년 개념은 새마을운동, 국민정신교육의 강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국민동원 전략 속에서 등장하였다. 여기서 청소년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규정되었지만, 사실상 청소년 당사자의 욕구와 욕망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특히 ‘선성장 후복지론’이라는 정책적 배경 하에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책임보다는 가정과 학교의 노력만이 강조되었으며, 그 노력 역시도 ‘규제·통제’의 맥락만이 강조되었다. 이로써 이 시대 청소년은 올바른 민족관과 국가관을 가진 미래를 짊어질 존재로서 ‘키워지기’

위해 ‘통제’되어야만 하는 존재였고, 동시에 이제 막 불을 일으키고 있는 ‘유해한’ 대중문화로부터 ‘보호’ 받아야할 존재였다.

유신체제의 뒤를 이은 제5공화국은 학생, 지식인, 노동자 등 저항세력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성립된 정권이었다.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여전히 반공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국민정신교육의 강화를 통해 국민을 동원하려고 했던 국가는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으로 위치지었다(최이숙, 2002: 52). 그러나 제1시기에 비해 저항세력의 영향력이 컸던 탓에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에 국가는 사회복지체제의 일환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통제·규제’의 전략을 ‘육성’의 전략으로 바꾸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청소년집단이 분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학정원의 확대와 대학문화·민중문화의 확산은 청소년 집단에서 대학생을 특화시켰다. 이로써 청소년은 소비대중문화의 주된 향유층으로서, 그리고 대학생은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새로운 민중문화의 주체로서 구분되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 소득수준의 향상, 소비의 확대가 일어났던 제3시기에는 여러모로 청소년에 관한 담론이 풍성했던 시기였다. 다양한 종류의 청소년 정책이 구현되었고, 동시에 각종 청소년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청소년이 소비문화의 주된 고객으로 부각되면서 청소년은 시장에 의해 다양한 이름으로 대상화되었다. 또한 영상문화, 사이버문화, 디지털문화 등 새로운 문화적 경향을 이끄는 문화적 주체이기도 했다. 하지만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논리를 부추겼고, 때문에 소비주체로서의 청소년과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청소년 담론이 끊임없는 갈등을 낳게 되었다.

요컨대,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에 관한 담론 변화는 청소년에 관한 정책 변화와 더불어 진행되어 왔다. 청소년에 관한 정책이 규제·보호·선도의 논리였던 1970년대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자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육성의 논리로 청소년 정책을 전환했던 1980년대 청소년은 사회정책의 주요 관심대상이자 육성대상이었다. 보호와 복지의 논리가 동시에 존재했던 1990년대에는 소비문화의 주체이자 보호대상으로서, 대중문화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프로슈머(prosumer)로서 청소년을 규정한다. 가장 최근에는 청소년에 관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주체화 논리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하고 이질적인 소비·표현·체험 주체로서, 다변화된 변화추진자로서 청소년을

바라보기도 한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재정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에 대한 담론은 ‘보호와 육성’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에 관한 담론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변화해왔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실은 청소년에 관한 대부분의 담론에서 청소년 본인은 항상 배제되어 왔다는 점이다. 청소년은 언제나 성인을 중심으로 규정되고, 대상화되고 분류되어 왔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몇 가지 편견이 발견되는데 첫째, 청소년을 단일한 속성을 가진 사회집단(social aggregate)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청소년을 생애라는 단선적 과정의 일부에 속하는 연령층으로 정의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구성 과정을 간과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지식사회학적인 이해를 하지 못한다.

둘째, 청소년을 시민사회의 구성원(young citizen)으로 인정하지 않고 온전한 시민이 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불완전한 시민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것의 효과는 청소년을 분류하고, 진단하고, 범주화하고, 명명하고, 궁극적으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귀결된다(Besley, 2003: 154). 예를 들어 학교의 행동발달상황란에 등장하는 주의력 부족, 빼먹함, 부적응, 태도 불량, 건방짐, 학습 부진 등의 단어들은 정해진 이상형으로부터 벗어난 아이들에 대한 병리학적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청소년을 모범생/문제아, 불량감자/우량감자 등으로 양분하는 논리는 신체와 정신을 분리하고 신체에 대한 정신의 우위를 강조하는 칸트주의에서도 발견될 뿐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를 압도해온 성장 위주의 발전론 속에 이미 배태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분법은 학교와 가정에서 주입되어 청소년 자신들에게 내면화된다.

셋째, 청소년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결정을 내리고 주어진 것을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주어진 것을 소화하는, 혹은 소화하지 못하는(안 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로 축소해버린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주변적 위치를 차지해왔다. 청소년의 욕망은 금기시되었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은 욕망하는 주체가 아니라 대리욕구를 충족시키는 객체로서 이해되었다. ‘자라나는 사람들(growing-ups)’과 ‘다 자란 사람들(grown-ups)’ 사이에 놓여진 이러한 주·객체 논리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담론에서 자주 드러난다.

## 제2절 청소년 문화연구의 경향

아리에스에 따르면 각각의 시대마다 그 시대에 상응하는 특정 연령층이 특권화 되고, 삶에 대한 특정한 시기 구분이 널리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예를 들어, 17세기에는 청년기가, 19세기에는 아동기가, 20세기에는 청소년기가 특권 연령층에 해당된다(Ariès, 2003: 86). 특히 20세기는 되도록 일찍 청소년기에 진입하고 오래오래 청소년기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이른바 청소년기 애호의 시대였다. 하지만 서구에서조차 이른바 청소년 문화(youth culture)라고 불리는 현상은 20세기의 산물이다.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확대, 전후 소비문화의 폭발적 팽창,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등이 청소년이라는 연령집단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청소년 문화연구는 ‘문제’ 청소년의 이탈문화에 관한 연구, 예를 들어, 1920년대부터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와 범죄심리학자들이 청년 갱단의 이탈행위들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관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코헨(Cohen, 1955)은 1950년대 시카고 지역의 청소년 갱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행청소년들이 지배문화의 편입에 실패하고 좌절을 보상받기 위해 대안적 문화형태를 추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업성적이 저조한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은 지위 좌절을 극복하고 대안적인 자기평가 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갱 조직에 가담하며, 그 속에서 갱의 언어와 신념체계, 행동양식과 복장 스타일 등 독특한 갱 문화를 습득하게 된다(조성남 외, 2002: 28). 특히 비행청소년들은 노동계급인 부모세대의 핵심 가치를 재현하면서도 동시에 쾌락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부모문화에 대한 동일시와 저항 사이에서 끊임없이 타협하고 있었다.

노동자계급 부모문화와의 긴장은 영국의 청소년 하위문화에서도 나타났다. 본래 영국의 하위문화론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까지 등장한 모드, 테디보이, 스킨헤드, 펑크 등의 다양한 청년문화축들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재개발에 따른 공동체 공간의 해체, 새로운 주택 분배방식에 따른 친족간 유대관계의 붕괴, 자동화된 기술의 도입에 따른 노동계급의 분열 등과 같은 영국의 불안정한 사회상황은 부모세대와는 다른 청년문화를 출현시켰다. 당시의 하위문화는 이데올

로기 수준에서 보자면 전통적인 노동계급의 청교도주의와 소비라는 새로운 쾌락주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순의 변종이며, 경제적 수준에서 보자면 사회적 이동가능성을 가진 엘리트로서의 미래와 새로운 롬펜프롤레타리아로서의 미래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순이라는 중심주제의 변종(Cohen, 1998: 33)이었다. 불안정한 사회에 대한 방황, 불안, 공포, 모순과 갈등을 하위문화를 통해 ‘마술적’으로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영국의 하위문화 연구는 버밍엄대학교의 현대문화연구소(CCCS)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전후 영국 청소년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세대간 대립, 하위문화의 형성과 정체성 등을 연구하였는데 주로 이데올로기,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간 상호작용, 남성 노동자 청소년의 저항문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사춘기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하위문화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획득해나간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윌리스(Willis, 1977)는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이 자신을 ‘사나이’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행동과 스타일을 취하는지, 그리고 그 하위문화적 실천이 계급재생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영국의 하위문화론은 청소년 하위문화의 스타일과 대중문화의 수용양상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헵디지(Hebdige, 1979)는 다양한 청년문화족들의 스타일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집단 정체성과 저항적 의미 표출 방식을 살펴보았다. 헵디지에게 있어 스타일은 집단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호체계다. 그것은 외모의 지배적인 약호를 벗어나 하위집단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새롭게 재구성되며, 공개적 전시를 통해 차별성과 정체성을 획득하게 한다. 하지만 동시에 소비주의적 문화산업의 메커니즘에 의해 지배문화에 편입되면서 스타일의 저항성이 희석되기도 한다(조성남 외, 2002: 29).

한편,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문화연구는 1990년대 이후에서야 활성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신세대’ 담론이 언론과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비행이나 일탈과 관련된 ‘청소년 문제’로부터 ‘청소년 문화’라는 보다 적극적인 문제들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조성남 외, *ibid*: 27). 이 때부터 문화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이 청소년 연구와 결합하기 시작했으며 청소년의 ‘목소리’가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화하고 분류하는 한국사회의 열악한 청소년담론과 생산(자)/소비(자), 어른/아이, 능동/수동의 이분법적 편견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그룹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청소년의 문제를 ‘인권’ 혹은 ‘문화’의 관

점으로 전환시키면서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한 청소년문화 연구의 경향을 대략 분류해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청소년 문화 연구경향

| 구분        | 주제                                                      | 주요 연구내용 및 청소년에 대한 관점                                                                                               |
|-----------|---------------------------------------------------------|--------------------------------------------------------------------------------------------------------------------|
| 실태 조사형    | *여가활동 현황·욕구·만족도<br>*문화산업 소비행태 및 규모<br>*문화 관련 기관·시설·프로그램 | *청소년의 여가참여 제약요인과 대안모색<br>*대중문화 소비의 문제점과 대안모색<br>*프로그램 조사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 정책 프로그램 형 | *수련, 육성, 복지 차원에서 문화<br>*지역사회의 공공시설·공공정책                 | *수련시설, 복지시설에서의 문화 활동<br>*청소년 문화정책, 프로그램 지원방안<br>*소외계층 청소년, 공적인 제도장치 마련                                             |
| 소비 문화형    | *미디어, 대중문화의 역기능<br>*문화상품 소비행태<br>*수용집단, 소비자의 특성         | *하위문화의 주체이자, 소비문화의 주체<br>*문화 산업론, 카타르시스·사회학습론<br>*수동적 소비자로서 청소년 간주                                                 |
| 하위 문화형    | *또래문화, 하위문화<br>*청소년문화 담론에 문제제기                          | *청소년문제→청소년주체·하위문화로<br>*청소년의 또래문화와 하위문화가 지니는 긍정성 발견, 적극적 문화실천 행위 평가<br>*하위문화론, 문화자본·구별 짓기<br>*문화 소비자, 비판적 수용자로서 청소년 |

1990년대 한국 청소년문화 연구 경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연구경향은 ‘실태조사형’으로서, 청소년의 여가활동이나, 청소년문화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와 같은 실태조사 보고서가 있다. 청소년 관련 정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현황조사가 대표적인데,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여가 활용 시간, 여가활동 유형, 여가활동 장소, 여가활동 제약 요인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실태조사가 목적인만큼 객관적인 현황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 문화 활동에 관한 세세하고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주로 1990년대 중반에 많이 이루어진 연구경향이지만, 최근 주5일 수업제 실시와 관련하여 다시 기본연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두 번째 연구경향은 ‘정책프로그램형’으로서,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문화정책과 관련한 문화연구가 있다. 1980년대 이후로 줄곧 강화되어온 청소년에 관한 육성정책

에 힘입어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 집 활성화 방안 연구, 수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문화 정책 개발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공공적 보장과 책임을 제기하면서, 복지 차원에서 청소년 문화활동에 접근하고 있다.

세 번째 연구경향은 ‘소비문화형’으로서, 매스미디어와 청소년문화, 대중문화와 청소년문화간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들은 1980년대 소비문화의 획기적인 붐과 함께 시작되었다. 특히 매스미디어와 함께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어 가는 소비문화가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였다. TV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나, 문화산업의 상품논리가 청소년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카타르시스 이론, 사회학습 이론, 사회인지 이론 등을 주로 인용하면서 미디어와 청소년 혹은 청소년 문화간 관계를 규명한다. 하지만 청소년을 수동적 소비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으며, 따라서 미디어 교육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연구경향은 ‘하위문화형’으로서, 청소년 또래문화 혹은 하위문화에 관한 연구들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 하위문화에 관한 연구가 부쩍 증가해왔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 담론이 ‘청소년 문제’에서 ‘청소년 문화’로 본격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수동적인 소비자나 시청자로만 간주되던 청소년이 문화실천자로서, 문화생산자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의 또래문화가 주목받았고, 그 속에서 청소년들이 펼쳐내는 다양한 스타일의 ‘구별짓기’ 전략들이 연구되었다. 청소년들의 대중음악을 통한 실천 행위 연구, 프로슈머(prosumer)로서 청소년 놀이문화에 대한 연구, 동아리 활동을 통한 공동체 경험과 대중문화 수용방식에 관한 연구, 저소득층의 하위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언더그라운드문화에 대한 연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체로 선행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기술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대중문화의 소비, 스타일, 여가 방식 등의 다양한 특성들, 지배규범과의 관계, 정체성 형성 등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 기성세대와 구분된 일반적인 청소년 세대이거나 혹은 지나치게 특정한 하위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전자는 청소년 세대 자체의 분화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고, 후자는 다양한 청소년의 하위문화를 다루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었다(조성남 외, 2002: 31). 따라서 청소년의 세대적 특수성과 청소년 내부의 다양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질적인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조사하고 청소년 문화집단의 세분화에 따른 지원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영역과 공간에서 펼쳐지는 청소년 문화활동과 문화욕구 연구를 통해 다양하고 세분화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소의 극복의 다양한 경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제3절 청소년의 문화환경과 문화정체성

청소년들의 일상은 매우 단조롭고 기계적인 것으로 묘사되지만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데 쉽게 동의할 뿐, 청소년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또 사회화 과정의 차이에 따라, 자신의 기호와 욕망에 따라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문화적 정체성과 그 형성양식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청소년이 어떤 수단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정책은 청소년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화(culture)’란 단어는 매우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윌리엄스(Williams, 1976)는 20세기에 들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화에 관한 정의를 세 가지, 즉 ‘지적·정신적 그리고 미학적 발전의 일반과정’, ‘한 민족, 한 시대, 한 집단, 혹은 인류 전반의 특수한 삶의 방식’, ‘지적, 특히 예술적 행위의 작품들이나 실천들’로 구분한 바 있다. 윌리엄스는 문화에 관한 폭넓은 정의, 즉 두 번째 정의에 나머지 정의들을 접합시키려 노력했고, 특수한 삶의 방식 속에 녹아 있는 ‘의미의 생산과 순환’ 체계를 혹은 ‘정서구조’를 파헤치고자 했다. 따라서 포괄적 의미에서 문화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생활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문화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특정집단 내에서 인간의 가치, 신념, 태도,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간의 총체적인 삶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해준다(권두승·조아미, 1998: 293).

문화에 관한 폭넓은 정의를 따르다면, ‘청소년 문화(youth culture)’는 “청소년의 가치, 신념, 사고에서부터 그들의 심미적 취향 및 행동양식에 이르는, 청소년 집단이 공유하는 특징적인 생활양식의 총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예술창작활동과 그 성과물, 여가활동, 또래 놀이문화 등 모든 유형의 문화활동과 스타일, 생활양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정의에 해당한다. 즉, 청소년문화는 “청소년들에 의하여

독특하게 구축되고 개념화된 의미체계이자 하나의 상징체계”를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은 “삶의 의미체계를 구성하고 생활방식을 형성하는 활동이며, 예술체험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형성과 같은 일상적인 교류도 포함된다”(김미운, 2002: 43). 또한 청소년 문화에는 세대적 특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는 청소년 하위문화(youth subculture)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부모 세대 혹은 지배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복종과 저항, 타협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청소년 하위문화는 자신들만의 특정한 활동, 가치, 물질적 활용, 공간영역을 가지게 된다. 또한 청소년 하위문화는 청소년 집단 내에서 이질적인 차이를 드러내면서 언제나 복수로 존재한다.

이렇듯 청소년 문화는 지배문화와의 관계와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즉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의 주어진 삶의 조건에 의해 규정되기도 하고, 그 조건을 반영하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문화환경의 변화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포스트모던 문화환경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문화와 인식, 경험은 소비주의, 세계화·지구화, 마케팅, 매스미디어, 정보기술의 영향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의 문화정체성을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은 소비문화의 가장 강력한 주체다. 그들은 시장에서 끊임없이 ‘소비자’로 인식된다. 1980년대 이래 다국적 기업들은 특정한 연령이나 관심에 따른 타겟 그룹을 설정하고, 그들의 다양한 정체성, 차이, 욕망, 구매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히 기업들은 청소년들에 주목하고, 그들을 소비주의에 길들이고 훈육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로인해 현재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시장에서 발견하곤 한다.

둘째, 현대 청소년은 ‘짜깁기’ 혹은 ‘혼성화(hybridization)’ 된 문화정체성을 지닌다. 지구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지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이 결합되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친 지역문화에 기반해, 글로벌 시장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 선택은 시장에 의해 강요된 선택이며, 그 까닭에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주체성은 파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아울러 지구화 시대 청소년들의 정체성은 단선적인 발달 단계를 따라 형성되지 않으며, ‘진정한’ 자아라는 본질주의적인 개

념에 기반한 정체성 모델도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장은 정체성을 바느질하는 혼성화의 과정일 뿐이다.

셋째,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통해 정체성을 구성한다. 역설적이게도 세계는 지구화를 통해 단일성과 다양성 양자를 동시에 추구하게 되었다. 이는 보다 빠르고 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 과거에 정보와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기술로부터 차단되어 있던 공동체는 유사하면서 전통적면서, 예측가능하고 익숙한 사회화 과정을 지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자신들이 배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새롭고 적절한 정체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청소년은 미디어로부터 받아들인 이미지와 아이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넷째, 하지만 청소년은 소비주의나 미디어의 단순한 볼모는 아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문화·인종적 배경 속에서, 미디어로부터 정체성을 구성하고 창조하는데 필요한 이미지나 아이디어를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선택한다. 즉 청소년들은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혼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상이한 문화적 스타일을 혼합한다. 비록 새로운 문화·심미적 창조물을 발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소재를 새로운 생산물로 만드는 과정을 밟는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하위문화론이 붐을 일으키던 시대에 청소년 문화는 저항으로 특징지어졌고, 이는 세대격차나 도덕적 공황의 상황을 반영한다. 청소년은 소외되어 있고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으며 훈육되지도 않은 이들이었다. 반면 포스트모던 시대의 청소년은 선택, 다양성, 유동성, 새로운 것, 스타일 그리고 소비주의, 시장과 같은 개념이 그들의 정체성을 특징짓는다. 또한 포스트모던 문화의 유동성은 청소년의 활동적인, 열광적인, 충족적인 것들을 통해 가장 잘 포착된다.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새로운 정보기술은 교사의 권위를 위협하고, 영상문화의 확산은 문자세대와는 다른 인식·사고·문제 해결 방식을 낳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 제4절 청소년 문화정책에 주는 함의

이상에서 살펴본 청소년에 대한 담론과 문화환경 변화, 그에 따른 청소년 문화정책의 변화 등은 새로운 청소년 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청소년 문화는 그들 커뮤니티에서의 다양한 언어와 감수성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즉 청소년 세대 내에는 특수한 감수성과 견해를 갖는 다양한 차이와 이질성이 존재하며, 청소년 문화는 부모세대뿐 아니라 자녀세대들 내의 차이와 구별 짓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문화 내의 관념, 가치,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 그 차이들 간의 소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은 소비문화의 주체이자 문화생산의 주체이며, 문화적 자율성을 가장 활발히 펼칠 수 있는 주체이자 문화적 모순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디지털 문화의 확산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폭넓은 문화 참여 기회와 활동의 장을 보장해주었다. 반면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문화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화 내부의 모순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자본주의적 가치에 반항하지만 자본주의의 소비문화에 깊이 빠져있고,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동류집단과 차별화를 시도하지만, 결국 집단의 문화를 따라하는 데 급급한 것 역시 사실이기 때문이다.

셋째, 따라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생산적인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소비문화의 강요된 선택에 유혹되고, 나열된 상품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경험과 정체성을 짜집기 한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화적 환경은 그들의 주체적 역량이 모자라서라기보다는, 청소년들의 문화경험의 기회를 박탈하고, 오로지 ‘입시’만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사회의 문화환경과 문화마인드에 보다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환경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관리’와 ‘보호’, ‘통제’로 대표되는 낡은 문화정책을 버리고 자율, 참여, 분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문화 패러다임으로 정책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정책참여, 청소년의 경

제적 자립능력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문화정책의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민-관-학-지역이 연계한 청소년 문화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 제 3 장

###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환경 현황

제1절 청소년 문화정책 현황

제2절 청소년 문화시설 현황

제3절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현황

## 제3장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환경 현황

### 제1절 청소년 문화정책 현황

한국에서 청소년 정책의 시작은 한국전쟁 이후 정부와 민간단체 및 국회 자선단체들이 벌였던 전쟁고아 및 미망인자녀 보호사업에서 출발했다. 정부의 초창기 청소년 정책이 이렇듯 불우청소년을 구제하는 구휼활동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 대상이 요보호청소년, 비행청소년에 국한되었다(김만오, 2002:3). 1960년대 중반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립되고 난 뒤 약 20여 년 동안 한국의 청소년 정책을 관통한 핵심적 문제의식 역시 문제청소년, 비행청소년을 선도, 단속, 규제하는 것이었다.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청소년 정책론의 방법론이 부분적으로나마 달라졌다.

중앙정부가 청소년 정책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1년 노태우 정부가 기존의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변경하면서부터다. 1991년에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1993년 ‘제1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1993~1997)이 시행되었으며, 1998년부터는 ‘제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1998~2002)이 시행되었다. 이 중에서도 청소년 문화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개발된 것은 ‘제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에서다. 2차 계획은 정책의 목표를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21세기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함양’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서 ‘청소년 권리보장과 참여기회 확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 중심의 수련활동 체계구축’, ‘국제화 정보화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강화와 참여확산’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문화 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 ‘청소년문화의 활성화’, ‘청소년 정보화’와 같은 주제들을 중점추진과제로 추가하면서 청소년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 진흥정책과는 정반대로 청소년을 통제·보호하려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1997년 청소년보호법을 계기로 청소년 일탈과 비행 현상들에 개입하려는 국가의 청소년 정책은 사실상 부정적인 보호정책의 일환으

로 만들어진 것이다. 유해환경과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논리는 이중의 전략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 소수의 비행청소년들을 격리·훈육시켜 다수의 선량한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논리와, 문화적인 방임과 표현의 자유를 적절하게 규제하고 음란물의 유통을 관리함으로써 사회의 성적 문란함을 통제하겠다는 이중전략이 바로 그것이다(김영지, 2000: 108).

<표 3-1> 청소년 관련 행정 기구

|                  |                  |                              |                                                                                                                                                 |                                                     |
|------------------|------------------|------------------------------|-------------------------------------------------------------------------------------------------------------------------------------------------|-----------------------------------------------------|
| 중<br>양<br>기<br>구 | 행정<br>조정<br>기구   | 청소년<br>육성위원회                 | *관계 부처들의 청소년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것으로<br>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원장, 청소년 정책에 대한 주요<br>사항을 심의                                                                       |                                                     |
|                  |                  | 청소년육성<br>실무위원회               |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br>검토·조정·심의                                                                                                         |                                                     |
|                  |                  | 청소년위원회                       | *청소년들이 관련 정책 사안에 직접 참여하는 통로                                                                                                                     |                                                     |
|                  | 행정<br>기구         | 문화관광부<br>(청소년국)              |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청소년 육성실무위원회의 운영에<br>관한 사항을 담당, 각 부처별 청소년 육성 관련 업무의<br>기획·총괄 기능을 수행하여 청소년육성 추진 전담기구                                                 |                                                     |
|                  |                  | 문화관광부<br>이외<br>부처의<br>청소년 정책 | *교육인적자원부: 초·중·고등학생 각종 체험 활동 지원<br>*보건복지부: 요보호 청소년의 복지<br>*노동부: 근로청소년의 권익옹호사업<br>*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비행 청소년의 예방과 처우<br>*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과 보호업무 총괄 |                                                     |
|                  |                  | 청소년<br>보호위원회                 |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br>보호 시책의 추진                                                                                                      |                                                     |
|                  |                  | 한국 청소년<br>진흥 센터              |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br>서비스 제공                                                                                                       |                                                     |
|                  |                  | 한국청소년<br>개발원                 |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통한 정책과 프로그램<br>개발                                                                                                           |                                                     |
|                  | 지<br>방<br>기<br>구 | 광역시<br>도청                    | 시·도<br>청소년과                                                                                                                                     | *중앙과 청소년 업무 연계 추진 체제 강화, 지방 청소년<br>업무의 청괄·조정 기능을 수행 |
|                  |                  | 시<br>군구                      | 청소년<br>담당자                                                                                                                                      | *청소년 행정을 수행                                         |

이처럼 청소년 정책체계는 크게 ‘보호’와 ‘육성’의 관점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 관련 업무체계를 이원화시키고 있다. 즉, 중앙정부의 청소년 정책체계는 문화관광부 내의 청소년국에서 청소년 육성업무를 총괄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국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지원과, 청소년수련과 3개 과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에 대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청소년수련, 상담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산하에 설치되어 있다(신경희, 2000: 19). 청소년 관련 행정기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사실상 청소년 관련 정책업무는 그 특성상 대단히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시각이 요청될 뿐 아니라 관련 업무간의 통합적 추진이 필요하다(유문무, 2000: 409). 그러나 중앙정부의 청소년 정책의 큰 틀은 여전히 ‘육성’과 ‘보호’라는 이원화된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업무 추진방식에서 기인한다. 특히 기성세대 중심의 시각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됨으로써 청소년의 욕망과 요구는 언제나 배제되어 왔다. 때문에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혹은 청소년 문화의 변화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항상 뒤처지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청소년 정책의 혁신이 시도되고 있다. 청소년의 참여 없이 기성세대가 결정·집행하는 청소년 정책, 지역사회에서 실천되지 않는 청소년 정책, 민간의 협조와 자발적 참여가 결여된 청소년 정책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업무 추진방식을 반성하고 ‘고객중심’, ‘지역사회 중심’, ‘민관협력 중심’으로 정책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표 3-2 참조).

이처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정책적 흐름이 청소년 ‘참여’와 ‘네트워크’로 상당부분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청소년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사실상 몇몇 학교의 청소년 대표들의 엘리트주의적인 모임이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 활동을 위한 지역자원들의 네트워크 구성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표 3-2> 문화관광부 청소년정책 혁신 방향

| 청소년정책 방향                       | 세부과제                                                                                                      |
|--------------------------------|-----------------------------------------------------------------------------------------------------------|
| 고객 중심<br>(Client-oriented)     | -청소년 위원회 구성·운영활성화: 각급 지방자치단체<br>-청소년 운영위원회 활성화: 청소년 시설<br>-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특별회의 개최<br>-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에 청소년 포함   |
| 지역사회 중심<br>(Community-based)   | -지방공무원 및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연수<br>-“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선정·지원<br>-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제 도입<br>-지역사회 이니셔티브 적극 수용            |
| 민관협력 기반<br>(Partnership-based) | -분야별 정책자문위원회 적극 활용(정책, 교류, 문화, 복지 등)<br>-민관 합동 TF 운영<br>-지역사회 민관 네트워크 구성, 지원(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br>-수시 연수 기회 제공 |

\* 자료: 문화관광부 2004, ‘2004년도 주요 업무현황’

한편, 서울시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건전 육성과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국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진흥, 체육시설, 청소년육성, 청소년시설운영, 청소년보호 팀으로 나뉘어 있으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청소년 건전육성과 건강한 시민생활 지도’라는 세부적인 정책 목표를 지니고 있다. ‘보호’ 업무는 유해환경 감시단 구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육성’ 업무는 청소년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청소년육성정책의 기본 방향에서는 “청소년이 오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주체적인 삶을 영위토록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5개의 하위 추진목표(표 3-3 참조)를 선정하는 등 문화관광부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참여와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 3-3> 서울시 청소년정책의 기본 방향

| 정책방향               | 추진 목표                         | 추진 시책                                                                                |
|--------------------|-------------------------------|--------------------------------------------------------------------------------------|
| 청소년<br>건전육성과<br>보호 | 청소년의 권리신장<br>및<br>자발적 참여기반 구축 |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br>-청소년증 발급<br>-청소년 정보이용 안내체계 구축·운영                                    |
|                    | 주5일제 대비<br>창의적 청소년활동<br>여건 조성 | -청소년 시설 확충<br>-청소년 시설 운영 및 기능 강화<br>-청소년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수준향상<br>-새로운 청소년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평가 |
|                    | 취약계층 청소년<br>복지지원 강화           | -청소년 대안 교육프로그램 운영<br>-청소년 교화 선도사업 추진<br>-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
|                    | 청소년 보호<br>및<br>유해환경 정화        |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관리<br>-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지원<br>-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지원<br>-가출청소년 보호·지원          |
|                    | 추진체제 정비<br>및<br>범국민적 참여 확산    | -서울청소년 종합상담실 기능 강화<br>-청소년 위원회 운영 활성화                                                |

\* 자료: 서울시, 2004, '서울청소년육성 2004년도 시행계획', 서울시 내부자료.

그러나 문화관광부나 서울시의 주목할 만한 정책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서울시 역시 이원화된 청소년 정책을 새로운 틀로 전환해야만 한다. 이는 보호정책과 육성정책의 상호보완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개념과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청소년 보호나 청소년 유해매체 규제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인권과 정치참여, 노동, 복지, 교육에 대한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 문화정책 기본 계획』이 보다 체계적, 정례적으로 수립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제2절 청소년 문화시설 현황

문화 인프라는 문화의 수준과 질 이전에 양적인 차원에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만 하는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문화적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사회 상황에서 문화시설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문화환경 조성 및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문화시설을 꾸준히 증가시켜왔다.

<표 3-4> 전국 시·도별 문화시설 현황

| 구분     | 시, 도 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
| 합계     | 2,263     | 762 | 538 | 474 | 404 | 424 | 175 | 2,121 | 580 | 595 | 894 | 869 | 1,056 | 1,207 | 1,014 | 230 | 13,596 |  |
| 공연시설   | 365       | 87  | 58  | 61  | 48  | 44  | 23  | 198   | 58  | 41  | 39  | 47  | 46    | 67    | 71    | 21  | 1,274  |  |
| 공공공연장  | 36        | 10  | 7   | 10  | 9   | 2   | 3   | 41    | 29  | 14  | 16  | 19  | 22    | 30    | 15    | 7   | 269    |  |
| 민간공연장  | 112       | 32  | 14  | 10  | 12  | 16  | 10  | 23    | 7   | 7   | 2   | 5   | 9     | 4     | 19    | 3   | 285    |  |
| 영화관    | 218       | 45  | 37  | 41  | 27  | 26  | 10  | 134   | 22  | 20  | 21  | 23  | 15    | 33    | 37    | 11  | 720    |  |
| 전시시설   | 330       | 68  | 48  | 17  | 54  | 27  | 7   | 95    | 41  | 47  | 38  | 41  | 58    | 38    | 50    | 39  | 998    |  |
| 박물관    | 73        | 9   | 6   | 3   | 6   | 13  | 1   | 36    | 17  | 14  | 20  | 14  | 11    | 19    | 22    | 12  | 276    |  |
| 미술관    | 23        | 3   | 0   | 3   | 3   | 2   | 0   | 14    | 2   | 2   | 3   | 0   | 3     | 2     | 1     | 2   | 63     |  |
| 전시실    | 25        | 12  | 4   | 6   | 5   | 6   | 1   | 39    | 22  | 26  | 14  | 22  | 39    | 17    | 25    | 11  | 274    |  |
| 화랑     | 222       | 45  | 39  | 5   | 41  | 8   | 5   | 16    | 4   | 6   | 4   | 9   | 9     | 2     | 6     | 14  | 435    |  |
| 문화복지시설 | 161       | 71  | 45  | 65  | 41  | 37  | 11  | 256   | 157 | 108 | 76  | 152 | 136   | 197   | 127   | 41  | 1,681  |  |
| 문예회관   | 6         | 4   | 4   | 5   | 3   | 1   | 1   | 15    | 11  | 6   | 8   | 12  | 13    | 12    | 11    | 1   | 113    |  |
| 시군구민회관 | 18        | 0   | 3   | 0   | 2   | 0   | 0   | 14    | 7   | 12  | 7   | 6   | 20    | 14    | 6     | 3   | 112    |  |
| 문화의집   | 23        | 2   | 1   | 1   | 2   | 2   | 3   | 16    | 9   | 5   | 6   | 12  | 7     | 9     | 16    | 9   | 123    |  |
| 복지회관   | 87        | 45  | 22  | 43  | 19  | 16  | 2   | 122   | 71  | 38  | 24  | 82  | 63    | 98    | 40    | 7   | 779    |  |
| 청소년시설  | 28        | 20  | 12  | 16  | 14  | 18  | 6   | 88    | 60  | 45  | 29  | 47  | 34    | 65    | 54    | 24  | 560    |  |
| 문화전수시설 | 25        | 9   | 7   | 6   | 9   | 6   | 3   | 36    | 23  | 16  | 24  | 28  | 32    | 33    | 30    | 2   | 289    |  |
| 문화원    | 22        | 7   | 7   | 3   | 5   | 5   | 3   | 31    | 18  | 12  | 17  | 14  | 22    | 23    | 20    | 2   | 211    |  |
| 국악원    | 1         | 0   | 0   | 2   | 3   | 1   | 0   | 1     | 1   | 3   | 2   | 7   | 4     | 6     | 2     | 0   | 33     |  |
| 전수회관   | 2         | 2   | 0   | 1   | 1   | 0   | 0   | 4     | 4   | 1   | 5   | 7   | 6     | 4     | 8     | 0   | 45     |  |
| 도서관    | 1,427     | 537 | 385 | 352 | 250 | 310 | 131 | 1,756 | 361 | 396 | 713 | 621 | 818   | 964   | 745   | 132 | 9,898  |  |

\* 자료: 문화관광부, 2003, 『청소년 백서』, p. 288.

전국의 문화시설 현황을 보면(표 3-4 참조), 서울시(2,263개)가 가장 많은 문화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2,121개), 경북(1,207개), 전남(1,056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시설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부분에서 서울시가 가장 많은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문화복지시설의 경우 서울시는 경기(256개), 경북(197개)에 이어 강원(157개)이나 전북(152개)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문화전수시설의 경우도 25개로 중간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전체 공연시설 365개 중에서 영화관(218개)이나 민간공연장(112개)이 공연시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시시설 330개 중에서도 개인화랑(222개)이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문화복지시설을 포함한 공공문화시설의 부족을 의미한다. 때문에 현재 계획·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사업, 예를 들어, 첨단 이동식 공연장 설치, 시립미술관 분관, 전용공연시설 확충, 지역문화 예술회관 건립 지원 계획 등은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공공 문화시설의 부족과 함께 서울시 문화시설의 현황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문화시설의 지역적 편중 현상이다. 이는 공연·전시시설에서 특히 심각하게 드러난다. 공연·전시 시설의 대부분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상업적 혹은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특정 지역에 밀집 형성되어 있다(표 3-5 참조).

전체 공연시설 203개의 지역적 분포현황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종로구(50개), 중구(29개), 강남구(24개), 송파구(17개), 마포구(11개)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강북구(1개), 금천구(1개), 성동구(1개), 중랑구(2개)가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시시설 342개의 지역적 분포는 종로구(136개), 강남구(83개), 서초구(16개), 성북구(13개)로 한 개의 전시시설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강북구, 강서구, 금천구, 은평구, 중랑구에 비해 상당한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문화예술회관이나 구민회관은 상대적으로 지역별 격차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역 종합복지관은 공연·전시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역들이 오히려 많은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소외지역에 대한 공공정책이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종합복지관 110개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강서구(11개), 강남구(9개), 노원구(9개), 동작구(7개), 구로·서초·송파(6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5> 서울시 구별 지역문화복지시설 현황(총 705개)

| 구    | 지역 문화 복지 시설 |       |        |      |     |       |
|------|-------------|-------|--------|------|-----|-------|
|      | 공연 시설       | 전시 시설 | 문화예술회관 | 구민회관 | 문화원 | 종합복지관 |
| 강남구  | 24          | 83    | —      | 1    | 1   | 9     |
| 강동구  | 4           | 1     | —      | 1    | 1   | 2     |
| 강북구  | 1           | —     | —      | 1    | 1   | 4     |
| 강서구  | 2           | —     | —      | 1    | 1   | 11    |
| 관악구  | 2           | 2     | 1      | 1    | 1   | 5     |
| 광진구  | 7           | 3     | —      | 추진   | 1   | 3     |
| 구로구  | 2           | 1     | —      | 1    | 개원  | 6     |
| 금천구  | 1           | —     | —      | —    | 1   | 3     |
| 노원구  | 7           | 1     | 1      | 1    | 1   | 9     |
| 도봉구  | 1           | 2     | —      | 1    | 1   | 4     |
| 동대문구 | 2           | 5     | —      | 1    | 1   | 2     |
| 동작구  | 5           | 2     | —      | 1    | 1   | 7     |
| 마포구  | 11          | 8     | —      | 1    | 1   | 2     |
| 서대문구 | 9           | 12    | 1      | —    | 1   | 2     |
| 서초구  | 6           | 16    | —      | 1    | —   | 6     |
| 성동구  | 1           | 1     | —      | 1    | 1   | 2     |
| 성북구  | 2           | 13    | —      | 1    | 1   | 4     |
| 송파구  | 17          | 10    | 1      | 1    | 1   | 6     |
| 양천구  | 4           | 1     | —      | 1    | 1   | 5     |
| 영등포구 | 5           | 6     | —      | 1    | 1   | 5     |
| 용산구  | 7           | 9     | —      | 1    | 1   | 2     |
| 은평구  | 2           | —     | 1      | —    | 1   | 3     |
| 종로구  | 50          | 136   | —      | 1    | 1   | 2     |
| 중구   | 29          | 30    | 1      | 1    | 1   | 2     |
| 종량구  | 2           | —     | —      | 1    | 1   | 4     |

\* 자료: 서울시 내부 자료, 2004. ([www.seoul.go.kr](http://www.seoul.go.kr))

전시·공연시설과 문화예술회관·구민회관·문화원·지역종합복지관을 순위별로 비교해보면 <표 3-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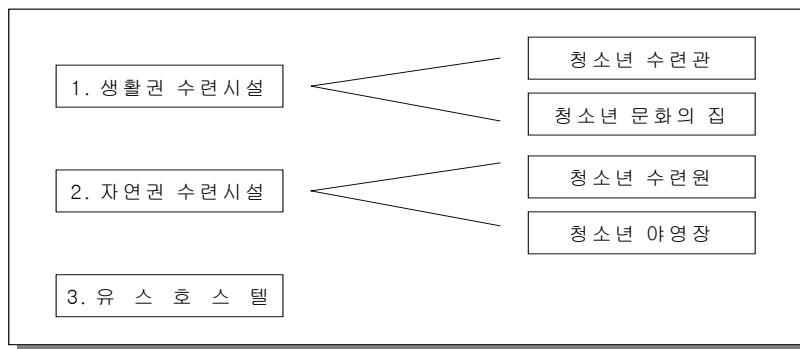
<표 3-6> 서울시 구별 문화시설 순위별 현황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구        | 종로구 | 강남구 | 중구 | 송파구 | 서초구 | 서대문 | 마포구 | 용산구 | 성북구 | 영등포 | 광진구 | 노원구 | 동대문 | 동작구 | 강동구 | 양천구 | 관악구 | 구로구 | 도봉구 | 강서구 | 성동구 | 은평구 | 종로구 | 강북구 | 금천구 |
| 전시<br>공연 | 186 | 107 | 59 | 27  | 22  | 21  | 19  | 16  | 15  | 11  | 10  | 8   | 7   | 7   | 5   | 5   | 4   | 3   | 3   | 2   | 2   | 2   | 2   | 1   | 1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구        | 강서구 | 강남구 | 노원구 | 동작구 | 송파구 | 관악구 | 구로구 | 서초구 | 양천구 | 영등포 | 강북구 | 도봉구 | 성북구 | 종로구 | 은평구 | 강동구 | 광진구 | 금천구 | 동대문 | 마포구 | 서대문 | 성동구 | 용산구 | 종로구 | 중구 |
| 문화<br>복지 | 13  | 11  | 11  | 9   | 9   | 8   | 7   | 7   | 7   | 7   | 6   | 6   | 6   | 6   | 5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 자료: 서울시 내부 자료, 2004. ([www.seoul.go.kr](http://www.seoul.go.kr))

한편, 청소년을 위한 문화환경에서도 문화인프라는 중요하다. 입시경쟁 속에서 학교-학원-집을 오가는 청소년들의 라이프스타일은 공간적으로 매우 협소하다. 이러한 협소한 활동공간을 넓혀주고, 보다 다양한 문화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바로 문화시설이다. 물론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문화시설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환경이지만, 청소년들의 특이성과 욕구를 고려한 청소년들만의 전용 문화시설 역시 필요하다. 청소년 시설 혹은 청소년 문화시설은 현재 ‘수련시설’로 이야기되는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직업체험학교’나 예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학교’ 등 특수시설이 존재한다. 여기서 ‘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거리 및 시설의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크게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및 ‘유스호스텔’로 나뉘며, 이는 시설의 규모와 세부 내용 등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세분된다(그림 3-1).



<그림 3-1>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 구분

\* 자료: 문화관광부, 2003, 『청소년 백서』, p. 273.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는 2003년 1월 현재 654개소(표 3-7)로서 수요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극히 열악한 실정이며,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그러나 지난 1991년 수립된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이를 보완하여 수립한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의 시행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가 활발히 추진되어 증가추세에 있다.

<표 3-7> 청소년 수련시설의 연도별 현황 (단위:개소)

| 구분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자연권   | 114   | 146  | 179  | 222  | 235  | 259  | 272  | 297  | 300  | 336  | 336  |
| 생활권   | 37    | 93   | 145  | 162  | 174  | 185  | 211  | 208  | 219  | 241  | 255  |
| 유스호스텔 | 4     | 7    | 14   | 23   | 31   | 40   | 50   | 55   | 62   | 63   | 63   |
| 계     | 155   | 246  | 338  | 407  | 440  | 484  | 533  | 560  | 581  | 640  | 654  |

\* 자료: 문화관광부, 2003, 『청소년 백서』, p. 277.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문화시설을 꾸준히 증가시키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은 생활권 수련시설을 지역마다 구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 문화 시설은 서울시 청소년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3-8> 서울시 청소년 문화시설 및 인구 현황

| 구    | * 지역<br>복지관 | 청소년 시설 |     |      | 학교  |      | 인구(2000년총인구) |         |
|------|-------------|--------|-----|------|-----|------|--------------|---------|
|      |             | 문화의 집  | 수련관 | 기타시설 | 중학교 | 고등학교 | 10~14        | 15~19   |
| 강남구  | 9(4)        | -      | 2   | -    | 23  | 21   | 31,960       | 47,408  |
| 강동구  | 2(2)        | 1      | 1   | -    | 16  | 12   | 33,668       | 43,950  |
| 강북구  | 4(2)        | -      | 1   | -    | 12  | 5    | 18,688       | 25,901  |
| 강서구  | 11(1)       | 6      | 1   | 1    | 19  | 20   | 34,003       | 43,331  |
| 관악구  | 5(4)        | 3      | 1   | 1    | 15  | 16   | 24,952       | 37,147  |
| 광진구  | 3(3)        | -      | -   | -    | 11  | 9    | 22,611       | 28,777  |
| 구로구  | 6(3)        | -      | 1   | -    | 12  | 11   | 22,869       | 30,197  |
| 금천구  | 3(2)        | -      | -   | 1    | 9   | 6    | 16,171       | 20,520  |
| 노원구  | 9(3)        | 2      | 1   | -    | 25  | 23   | 43,208       | 51,925  |
| 도봉구  | 4(3)        | -      | -   | -    | 12  | 7    | 25,256       | 29,398  |
| 동대문구 | 2(2)        | 2      | 1   | -    | 16  | 9    | 19,675       | 27,623  |
| 동작구  | 7(4)        | 1      | 1   | 1    | 16  | 7    | 20,922       | 29,056  |
| 마포구  | 2(0)        | -      | -   | -    | 12  | 8    | 18,445       | 24,712  |
| 서대문구 | 2(1)        | 3      | -   | -    | 12  | 6    | 18,990       | 25,262  |
| 서초구  | 6(5)        | 1      | 2   | 1    | 15  | 11   | 21,706       | 31,114  |
| 성동구  | 2(2)        | 1      | -   | -    | 9   | 5    | 17,734       | 22,923  |
| 성북구  | 4(2)        | -      | 1   | -    | 15  | 13   | 24,906       | 34,757  |
| 송파구  | 6(5)        | 1      | 2   | 1    | 24  | 16   | 42,817       | 55,631  |
| 양천구  | 5(4)        | 6      | 1   | 1    | 18  | 13   | 33,802       | 42,635  |
| 영등포구 | 5(1)        | 1      | 1   | 3    | 11  | 8    | 21,536       | 28,033  |
| 용산구  | 2(1)        | -      | -   | 1    | 9   | 10   | 11,371       | 15,756  |
| 은평구  | 3(2)        | 1      | 1   | -    | 16  | 14   | 25,880       | 33,433  |
| 종로구  | 2(2)        | 2      | -   | -    | 9   | 14   | 9,369        | 12,606  |
| 중구   | 2(2)        | -      | 2   | 2    | 8   | 12   | 6,547        | 8,742   |
| 종로구  | 4(3)        | 3      | 1   | -    | 14  | 8    | 28,995       | 34,946  |
| 총합계  | 110(63)     | 34     | 21  | 13   | 358 | 284  | 595,971      | 785,793 |

\*지역복지관의 괄호안 숫자는 청소년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수임

\*\*출처: 서울시 내부 자료, 2004.

2004년 현재 서울시 청소년 문화시설은 청소년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센터 등 청소년 전용시설 68개와 지역복지시설 중 청소년 문화 관련 프로그램 및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63개 시설로 총 131개가 존재한다(표 3-8 참조). 이는 서울시 전체 문화시설 705개 중(표 3-5) 약 19%에 불과하는 수치다. 더구나 이 중 청소년 전용시설의 비중은 전체 문화시설의 약 10%(68개)로, 청소년 문화시설의 비중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문화시설의 부족함은 서울시 청소년 인구와 비교해

보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청소년 시설 1개당 청소년 10,548명의 청소년이 이용해야 하는 수준이다.

청소년 시설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서구와 양천구가 8개로 가장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관악구·영등포구(5개), 서초구·송파구·중구·중랑구(4개), 노원구·동대문구·동작구·서대문구(3개), 강남구·강동구·은평구·종로구(2개), 강북구·구로구·금천구·성동구·성북구·용산구(1개)가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진구·도봉구·마포구(0개)가 최하위에 놓여있다.

하지만 시설현황을 지역 내 청소년 인구를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면, 시설 1개당 청소년 인구가 가장 적게 배치되는 지역은 중구(약 3,800명)다. 반면 광진구, 도봉구, 마포구는 각각 청소년 인구 약 5만 명이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화시설이 단 한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시설의 부재는 현재 서울시가 금천, 성동, 서대문, 도봉, 중랑, 마포, 광진, 용산구에 건립 계획 중인 청소년 문화시설이 완공되면 조금은 해결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여전히 청소년 문화시설은 지역 내 많은 청소년 인구를 수용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며, 지역간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2004년 서울시가 계획 추진 중인 인프라 구축안을 살펴보면 예비군 훈련장을 이용한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 운영, 영어체험마을 건립 등이 있다.

### 제3절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현황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대상 문화프로그램을 주최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문화관광부 주최 프로그램, 서울시 주최 혹은 위탁 프로그램, 청소년 민간단체 주최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문화관광부 주최 프로그램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은 청소년육성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총 4개 분야, 즉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사업’, ‘찾아가는 청소년수련마을’, ‘수련거리 개발 보급’,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있다. 이 중 청소년육성 기금 지원 사업은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 연간 약 100여개 사업에 대해 총 20억 가까이를 지원하고 있다(문화연대, 2003: 41). 문화관광부의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 어울 마당, 문화학교, 수련마을

청소년 어울 마당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학업과 근무에서 오는 평소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서로 어울려 우정을 나누고 함께 놀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0년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문화관광부, 2003: 177).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전국 시·군·구 약 250개 기관에서 매월 1회씩 개최하는 지역단위 프로그램인 어울 마당은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운영되며, 청소년들의 건전문화 정착 및 21세기 청소년상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 전통 민속놀이, 자연 혹은 문화 유적 탐장, 생활체육, 레크레이션, 천체관측, 인터넷정보검색 교육, 영상 제작 등이 있다. 전국적으로 1년 동안 약 1,300회 이상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60만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서울에서만 약 117회, 2만여명이 참여한다. 또한 청소년수련마을은 지역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수련활동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이나 도시벽지 등 소외지역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의 체험기회를 제공한다(표 3-9). 대부분 각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며 전통문화, 디지털문화, 과학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표 3-9> 문화관광부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현황(청소년 수련마을)

| 구분          | 사업명                        | 주관                | 프로그램 내용                                                            | 대상                    |
|-------------|----------------------------|-------------------|--------------------------------------------------------------------|-----------------------|
| 청소년<br>수련마을 | 찾아가는<br>청소년 모험학교           | 충주시<br>청소년수련원     | *천체관측, 모형로켓, 모형비행기제작,<br>전기전자키트제작, 해설이 있는 과학영화                     | 전국<br>소외<br>지역<br>청소년 |
|             | 찾아가는<br>청소년<br>디지털문화학교     | (사)한국청소년<br>마을 주관 | *1인 인터넷 방송 제작, 영상제<br>학교홈페이지와 연계 학교신문 제작,<br>가상스튜디오를 통한 성과물제작 등    |                       |
|             | 찾아가는<br>장승 축제              | (사)문화마을<br>들소리 주관 | *체험활동(장승 만들기 등)<br>*참여활동(달집태우기, 강강수월래 등)<br>*감상활동(사물놀이, 타악 퍼포먼스 등) |                       |
|             | 열기구와 함께<br>찾아가는<br>청소년과학캠프 | (사)청정청소년<br>복지후원회 | *공기에 대한 이론 교육,<br>모형 열기구 제작, 열기구 비행 체험,<br>충격흡수 구조물 만들기 대회         |                       |
|             | 청소년<br>과학체험교실              | (사)한국우주<br>정보소년단  | *천체관측, 모형로켓, 모형비행기제작,<br>전기전자키트제작, 해설 있는 과학영화                      |                       |

또한 문화관광부는 입시문제나 지역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수련활동의 기회가 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도구 및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청소년 지도자들이 직접 청소년을 찾아가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을 1996년부터 실시하여 왔다(문화관광부, 2003: 179)

다음으로 문화학교는 문화관광부 산하의 문화예술 기관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문학, 미술, 국악, 예절 등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소년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 전국 각지의 공공도서관, 박물관, 문화원에 설치·운영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예술의 전당’ 문화학교에서 각 분야별 미술이론 및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미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2) 국제 교류

문화관광부는 개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 청소년교류’, ‘국제 청소년

행사 개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해외연수’ 등 다양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거나 민간차원의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있다(표 3-10 참조). 정부는 국가간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청소년뿐 아니라 청소년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정기적인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헝가리, 핀란드, 칠레, 멕시코, 러시아, 이스라엘 등 14개국과 청소년 교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3-10> 문화관광부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현황(국제 교류)

| 구분    | 사업명          | 주관             | 사업기초                                                                | 프로그램 내용                                                                                                                  | 대상           |
|-------|--------------|----------------|---------------------------------------------------------------------|--------------------------------------------------------------------------------------------------------------------------|--------------|
| 국제 교류 | 소외청소년 해외파견연수 | 문광부            | *선진국의 청소년문화 및 시설견학 통해 청소년간의 우의 증진                                   | *선진복지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 학교생활 견학                                                                                           | 소외 청소년       |
|       | 청소년 국제교류     | 문광부            |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기회                                                      | *외국 청소년대표 초청<br>*한국 청소년대표단 해외파견                                                                                          | 소외,일반 청소년    |
|       | 청소년 해외봉사단    | 한국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 | *한민족의 얼, 뿌리 재발견<br>*자원봉사의 새 모델 정착<br>*자원 봉사 형 민간외교 (카자흐스탄, 러시아, 몽골) | *농장일손 돕기, 집수리<br>*태권도, 사물놀이, 판소리, 난타 전통무용, 그룹댄스, 전통 놀이, 문화공연, 상호문화교류체험 등<br>*수지침, 한글교육, 민간구호 재할용물품 전달 등<br>*한민족 역사 뿌리 찾기 | 중,고, 대학생 지도자 |
|       | 국제청소년 캠프     | 국립중앙 청소년 수련관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류활동을 통해 상호이해 증진                                  | *청소년참여, 인권 워크샵<br>*풍물배우기, 모듬활동, 다도체험<br>한복입기, 민속놀이, 문화재견학, 한국음식 체험                                                       | 청소년, 대학생     |
|       | 한일공동 미래프로젝트  | 국립중앙 청소년 수련관   |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만 15~24세 일본 청소년을 초청하여 문화교류                            |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정신계승<br>*청소년교류확대 사업<br>*글로벌리더십훈련, 문화체험                                                                      | 한일 청소년 300명  |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는 대상국의 청소년기관 및 단체·시설 방문, 양국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와의 친선교류회, 민박, 문화센터, 역사유적지 답사, 산업시설 견학 등이 있다. 특히 ‘소외청소년 해외파견연수’는 해외경험의 기회가 적은 소외청소년들이 선진국의 청소년문화 및 시설을 견학,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고 세계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

표를 지닌다. 또한 카자흐스탄, 러시아, 몽골 등에 청소년 해외봉사단을 파견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를 전파하고 상호문화교류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자원봉사형 민간외교를 실천하고 있다.

그 밖에 현재의 국가간 교류사업이 동남아·동유럽 등 개도국 중심의 10일 내외 단기방문 프로그램임을 감안하여,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합법적인 취업을 통해 체재 경비 조달과 방문국의 문화 및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취업관광 프로그램(Working Holiday Program)을 호주(1995), 캐나다(1996), 일본(1999), 뉴질랜드(1999) 4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3: 624).

### 3) 문화기획 및 활동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문화기획 및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은 대개 ‘청소년문화 활동 활성화’ 방안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부는 지역사회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 단체·시설에 관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청소년 시설 및 공공시설을 거점으로 하는 자발적인 청소년 동아리 결성을 유도하고 5명 이상의 청소년클럽에 대해 장소와 시설, 지도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지역 사회 내 청소년 동아리들의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외청소년들과의 문화교류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청소년문화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청소년 책읽기 운동’을 추진하며, 온라인 게임을 통한 역사체험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표 3-11).

그 밖에 2004년 문화관광부의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봉사활동·탐험활동·취미활동·사회체육활동 등 다양한 영역별로 청소년 스스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활동을 이수할 때마다 이수증을 발급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도입’,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체력 향상에 나서도록 단계적인 청소년 체력기준을 설정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청소년체력 인증제 도입’, 체계적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는 ‘청소년자원봉사 기반 확충 및 인증제 도입’을 실시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문화 존’을 추진하고, 정보사회의 새로운 마인드 향상을 위한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프로젝트인 ‘Youth Voice 2004’를 기획하며, 한-중과 한-일의 청소년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표 3-11> 문화관광부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현황(문화기획 및 활동)

| 구분        | 사업명            | 주관              | 사업기조                                        | 프로그램 내용                                                                                        | 대상              |
|-----------|----------------|-----------------|---------------------------------------------|------------------------------------------------------------------------------------------------|-----------------|
| 문화기획 및 활동 | 세계청소년 문화축제     | 청소년단체 (매회 순환)   | *문화표출, 창의력 배양<br>*세계 각국의 문화 교류<br>*국제 감각 고양 | *노래·춤 경연대회, 해외공연, 대학응원단 공연, 도전 골든 벨, 평화활동, 청소년단체 홍보, 이색동아리, 전통문화마당, 세계문화체험, 게임·놀이 공간           | 해외<br>한국<br>청소년 |
|           | 청소년 한강축제       | 한국해양 소년단연맹 공동주최 | *건강한 자기육구 발산<br>*21세기 해양강국을 위한 해양문화 및 활동 이해 | *고궁낙하, 헬기퍼레이드, 수상축제, 시범공연(해군의장대 등), 마당축제, 유람선 승선체험(유료)                                         | 전국<br>청소년       |
|           | 청소년 책임기운동 2004 |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     | *청소년들의 책임기 생활화<br>*새로운 청소년문화 형성             | *책향기 가득한 “책키북키 학교”<br>*도서산간벽지 및 어려운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책을 보내는 “마음의 책 홀씨 날리기”<br>*지속적인 책임기운동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 전국<br>청소년       |
|           | 온라인게임 체험전시회    | 문광부             | *온라인 게임 속에서 새롭게 복원된 문화유산을 게임으로 즐기며 역사공부     | *게임을 통해 한국지역 관람<br>*중국 8개성 18개 박물관에 산재한 삼국지 관련 진품 유물 350여점의 대규모 기획전<br>*삼국지 온라인 게임존에서 게임       | 전국<br>청소년       |

## 2. 서울시 주최 프로그램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은 대개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2003년 36개 사업에 대해 약 12억원을 지원했으며, 2004년에는 수련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목표로 약 16억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육성의 차원으로 ‘청소년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수준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청소년 단체 및 유관단체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에는 크게 문화감각, 과학정보, 국제감각, 봉사협력, 모험개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련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활동 프로그램은 푸른교실 만들기, 인성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 감시단 운영,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등이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어 서울시가 주최 혹은 위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주요 현황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청소년 전용광장

서울시의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프로그램은 ‘청소년 전용광장’의 운영이다. 청소년 전용 광장은 ‘주말전용광장’과 ‘이동 청소년수련광장’으로 나뉜다. 주말전용광장은 청소년들에게 건전 여가 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올바른 청소년을 육성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주말전용광장의 경우 토·일·공휴일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프로그램의 주관단체의 특성에 따라 동아리 발표회, 우리문화체험교실, 육상활동, 수상활동, 과학활동, 풍물, 레크리에이션, 축제 등을 진행하게 된다. 청소년여가선용지도협회(뚝섬지구), 한국청소년서울연맹(보라매공원, 이촌지구), 한국청소년수련활동 협회(여의도공원),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잠원지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서울지회(중계공원), 홍사단(월드컵공원)이 주말전용광장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동청소년수련광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수련활동 및 다양한 놀이문화체험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 자신감, 표현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 홍사단이 이동청소년수련광장을 진행했다(표 3-12 참조).

주말전용광장은 평일에는 학교생활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주말을 이용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아리발표회 등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기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청소년 주말전용광장 프로그램이 해당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된다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문화연대, 2003: 61). 그러나 이와 같은 청소년 전용광장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참여율 저조로 그 목적과 의의를 상실해가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청소년들의 고정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사후 프로그램의 부재, 홍보 부족, 전문 진행자와 자원 활동가의 마인드 부재 등의 문제점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사후 프로그램의 고민, 특히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국청소년서울연맹, 홍사단, 청소년지도자협회, 민예총의 경우에는 지역 학교

나 대학생 자원활동가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하고 있다.

<표 3-12> 서울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현황(청소년전용광장)

| 구분                                        | 사업명                  | 주관                            | 사업기조                                                                                 | 프로그램 내용                                                                                 | 대상                     |
|-------------------------------------------|----------------------|-------------------------------|--------------------------------------------------------------------------------------|-----------------------------------------------------------------------------------------|------------------------|
| 주<br>말<br>청<br>소<br>년<br>전<br>용<br>광<br>장 | 뚝섬지구<br>청소년<br>전용광장  | 청소년<br>여가선용<br>지도협회           | *건강한 놀이문화 형성<br>*건강한 청소년육성                                                           | *풍물놀이, 댄스, 스포츠,<br>고공체험, 서바이벌 등 청소년<br>참가프로그램                                           | 청소년                    |
|                                           | 보라매공원<br>청소년<br>전용광장 | 한국<br>청소년<br>서울연맹             | *청소년·가족·친구를 위한<br>야외수련활동 공간·시간 제공<br>*각종 체험활동 참여·학습<br>*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br>*건강한 청소년육성 | *강력포옹, 연날리기 등<br>직접 참여 프로그램                                                             | 청소년<br>및<br>일반인        |
|                                           | 여의도공원<br>청소년<br>전용광장 | 한국<br>청소년<br>수련활동<br>협회       | *여가 활동 기회 제공<br>*무료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활동발표<br>*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br>(우주공간체험, 스카이버지,<br>인라인, 청소년 락 페스티벌)                     | 청소년<br>및<br>학부모        |
|                                           | 이촌지구<br>청소년<br>전용광장  | 한국<br>청소년<br>서울연맹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br>야외수련활동 공간·기회 제공<br>*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br>*청소년 육성에 기여                  | *주프로그램 1가지<br>(매회 별도의 체험프로그램)<br>*보조 프로그램3가지<br>(인라인스케이트, 매직풍선,<br>모터사이클체험)             | 청소년<br>및 가족            |
|                                           | 잠원지구<br>청소년<br>전용광장  | 한국해양<br>소년단<br>서울연맹           |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br>*부모의 인식 변화, 청소년과<br>부모님의 프로그램 참가유도                                | *육상 활동 프로그램<br>*수상 활동 프로그램<br>*과학 활동 프로그램                                               | 청소년                    |
|                                           | 중계공원<br>청소년<br>전용광장  | (사)한국<br>민족예술인<br>총연합<br>서울지회 | *지역 중심의 특화된 문화축제<br>*우리문화 직접체험                                                       | *노원청소년한마당<br>(청소년문화살리기, 전시보컬발표,<br>댄스발표, 알뜰장터)<br>*우리문화체험교실                             | 서울<br>초중등<br>학생,<br>교사 |
|                                           | 월드컵공원<br>청소년<br>전용광장 | 흥사단                           | *건강한 여가문화의 장 제공                                                                      | *동아리발표회, 탈춤, 풍물배우기                                                                      | 청소년                    |
| 이<br>동<br>청<br>소<br>년<br>수<br>련<br>광<br>장 | 이동<br>청소년<br>수련광장    | 한국<br>청소년<br>서울연맹             | *심신수련, 정서함양<br>*문화시민 육성의 기틀제공,<br>재정적 부담 없는 활동 공간                                    | *놀이마당, 체육활동, 심성개발<br>*신청 학교나 시설에서 원하는<br>프로그램을 해당 시설에서 실행                               | 초중고학<br>생              |
|                                           | 이동<br>청소년<br>수련광장    | 한국<br>청소년<br>지도자협회            | *서울시 거주하는 청소년들을<br>직접 찾아가 수련활동 및<br>다양한 놀이문화 체험제공                                    | *상설프로그램<br>(아이스브레이킹, 공연, 민속마당,<br>미니올림픽, 과학마당, 축제 등)<br>*선택프로그램<br>(탈춤, 전통무술, 댄스, 영상여행) | 소외<br>계층<br>청소년        |
|                                           | 이동<br>청소년<br>수련광장    | 흥사단                           | *문화소외 청소년들에게 장비,<br>프로그램, 지도자활동 지원<br>*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보급,<br>자신감과 표현력 향상                 | *전통문화 한마당,<br>학교 최고를 찾아라, 초청공연,<br>학생공연, 작은 콘서트,<br>헬리콥터제작교실(특수아동),<br>청소년 열린 페스티벌      | 청소년                    |

반면, 이동청소년수련광장은 주관단체가 시설이나 학교에 직접 찾아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참여인원의 확보의 어려움을 덜고 있다. 특히 이동청소년수련광장은 청소년 문화시설이 부족한 문화소의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수련활동 및 다양한 놀이문화 체험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 자신감,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신청한 각 대상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거나 장비나 행사 프로그램의 부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문화연대, 2003: 61). 그러나 이 역시 청소년전용광장과 마찬가지로 사후프로그램에 대한 고민 없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어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문화활동이 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2) 국제 교류

청소년전용광장과 이동청소년수련광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적 공간과 경험을 보완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 특히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서울시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의 여러 다양한 문화들을 체험하고 국제감각을 키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표 3-13> 서울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현황(국제교류)

| 구분       | 사업명               | 주관                   | 사업기조                                          | 프로그램 내용                                                                                | 대상                          |
|----------|-------------------|----------------------|-----------------------------------------------|----------------------------------------------------------------------------------------|-----------------------------|
| 국제<br>교류 | 국제<br>청소년<br>교류활동 | 한국<br>청소년교류<br>진흥협회  | *외국청소년 국제친선, 교류<br>*국제 감각, 세계시민 양성            | *참가자 사전교육 실시<br>*참가국풍물전시회, 한복체험,<br>문화교류의 밤, 세계음식축제,<br>사물놀이 공연, 탈춤 배우기,<br>국회의사당 견학 등 | 서울시<br>청소년                  |
|          | 한민족<br>역사문화<br>탐사 | (사)<br>비로자나<br>청소년협회 | *몽골루트를 탐사<br>*청소년들에게 민족정체성,<br>모험정신, 개척정신 심어줌 | *한민족 몽골루트탐사, 승마,<br>유람선관람, 전통공연 관람,<br>낙타타기, 풍등날리기 등                                   | 서울시<br>소외<br>청소년<br>(중1~고1) |
|          | 청소년<br>유럽<br>배낭여행 | (재)서울<br>키토리<br>청소년회 | *유럽 국가들 탐방<br>*유럽배낭여행 체험 제공<br>*환경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 *주로 견학 활동 프로그램<br>*조별 퀴즈전, 알프스등반                                                       | 서울시<br>청소년,<br>소외<br>청소년    |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한민족 역사문화 탐사’나 ‘청소년 유럽 배낭여행’과 같이 다른 나라들을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국제청소년교류활동과 같이 외국인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교류의 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표 3-13 참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해외방문의 경험이 흔치 않은 청소년들에게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얻어낼 수 있다. 특히 소외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상대적인 열등감을 지닌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특정한 테마가 부족한 단순한 여행에 그쳤다는 점, 사후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청소년 국제교류’라는 의의가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 프로그램 기획이나 진행에 있어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3) 체험 활동

체험활동은 학교 위주의 교육이나 도시의 생활에서 벗어나 평소 체험하기 어려웠던 경험들을 통해 감수성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된다(문화연대, 2003: 72). 이는 창의성과 다양성, 감수성 등의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체험활동은 다양한 문화·사회분야 분야에 걸쳐 실시된다. 예를 들어, 환경프로그램으로 기획된 ‘농·어촌 체험활동’이나 ‘청소년자연체험활동’, 문화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음악 감상 체험교실’이나 ‘청소년민속공예’, 그리고 직업체험, 비행체험, 예절체험 등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대상별로는 장애 청소년이나 소외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활동이 있다(표 3-14 참조).

체험활동은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체험’을 전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문화적 호기심과 욕구를 만족시킨다. 또한 체험활동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상이한 경험과 환경을 지닌 청소년들간의 교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 농·어촌 청소년과 도시 청소년들을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상이한 경험을 지닌 청소년들에게 상호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3-14> 서울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현황(체험활동)

| 구분          | 사업명                     | 주관                  | 사업기조                                                                                | 프로그램 내용                                                                              | 대상                        |
|-------------|-------------------------|---------------------|-------------------------------------------------------------------------------------|--------------------------------------------------------------------------------------|---------------------------|
| 체<br>험<br>동 | 청소년<br>자연체험<br>활동       | 한국<br>해양소년단<br>서울연맹 | *자연체험 통해 소외감 해소<br>*호연지기와 협동심을 함양<br>*수상체험 활동과 문화견학                                 | *3박 4일간 캠프진행<br>(바닷가 식물채집, 파도타기,<br>해군부대 탐방, 고무보트 체험,<br>바나나보트타기, 조개줍기 등)            | 소년소녀<br>가장,<br>빈곤<br>청소년  |
|             | 음악감상<br>체험교실            | (사)<br>꾸러기<br>예술단   | *클래식음악 감상 기초지식<br>*공연감상 통해 클래식 이해<br>*건강한 문화적 정서 함양                                 |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 악기들,<br>무대 참관, 음악감상, 토론회,<br>연주회 관람                                    | 초중고<br>학생                 |
|             | 청소년<br>민속공예             | 이 시대의<br>좋은 소리      | *자연에서의 문화체험 통해<br>자기개발, 자신감, 성취감<br>*전통공예 이해, 여가선용                                  | *도예 공예 체험프로그램<br>*공동체 프로그램<br>*아외 음악회                                                | 서울<br>청소년,<br>중고생         |
|             | 자원봉사<br>뒤집어<br>보기2      | 청소년<br>문화공동체<br>‘꿈’ | *청소년행사 직접 기획,<br>참여<br>*수동적인 자원봉사 탈피                                                | *청소년연극제, <추락>결개작업<br>*양파밭 농활, 분교 자원봉사<br>*장애청소년 연극제 자원봉사                             | ‘꿈’<br>청소년                |
|             | 청소년을<br>위한<br>예절교실      | 예지원                 | *예절교육을 통해 품성 고양<br>*전통 예절생활과 글로벌<br>시대의 에티켓 교육을 겸해<br>국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대응                | *현대생활예절<br>(생활예절, 글로벌에티켓)<br>*전통생활예절<br>(예의정신, 의생활예절, 차예절)                           | 서울시<br>초중고<br>학생          |
|             | 농·어촌<br>체험활동            | (사)<br>한국환경<br>교육협회 | *환경과 자연, 농어촌 경험<br>*팀별활동 통해 자율적으로<br>프로그램 운영<br>*자연과 조화된 교육 지향                      | *농촌 특산물 CF제작·발표회<br>*해수욕장 3중 올림픽,<br>농기구사용법, 어구·농촌조사,<br>아리랑 십리길 걷기,<br>갯벌의 쓰레기 수거 등 | 서울<br>청소년,<br>농·어촌<br>청소년 |
|             | 장애<br>청소년<br>직업체험<br>학교 | (재)<br>청소년과<br>사람사랑 | *예체능중심의 직업교육을<br>통해 직·간접적인 사회경험<br>*지역의 교육·문화·직업적<br>자원 연계하여 장애청소년과<br>비장애청소년의 사회통합 | *사회통합 위한 직업체험<br>*집단놀이체험<br>*지역사회 축제놀이<br>*성과발표회 등                                   | 강북성북<br>장애,<br>비장애<br>청소년 |
|             | 체험<br>환경교육<br>프로그램      | (사)<br>한국환경<br>교육협회 | *도시권의 자연·환경과<br>여러 환경교육시설들을 통한<br>교육과 체험을 중시                                        | *일일 체험 및 방문 교육<br>(양재천, 양재시민의숲, 청계산)<br>*캠프                                          | 환경<br>지킴이<br>청소년          |
|             | 신나는<br>비행체험<br>학교       | 청소년<br>참사랑<br>운동본부  | *항공 우주 산업의 인재양성<br>*도전의식, 호연지기 양성                                                   | *청소년자원봉사단과 함께 진행<br>*캠프(모형비행기 제작,<br>비행체험, 갯벌체험 )                                    | 소년소녀<br>가장<br>해체가정<br>청소년 |

체험활동은 평소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체험’의 영역이 이미 마련된 프로그램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다. 즉 체험활동의 방식이 다소 일방향적이며, 청소년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활동이 자율적인 참여의 방식

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일방향이거나 일회적인 교육방식이 아닌 스스로 내용을 만들어어나가고 스스로 진행하는 문화교육의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방학을 이용한 단기간의 체험이 청소년들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되고 보다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장애청소년 직업 체험 학교’나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 만큼 사후의 네트워크 형성 등의 관리를 통해 프로그램의 정기화를 모색해볼 수 있다.

#### 4) 탐험 활동

탐험활동은 역사의식, 국토애, 자연사랑 등과 같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 활동들이다. ‘서울 역사현장 순례’, ‘테마체험여행’, ‘한강사랑 자전거 릴레이캠프’는 해당 지역을 답사 혹은 탐사하면서 자립심과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향상시키고 역사의 중요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리고 ‘철인 3종 국토횡단 체험’은 국토애 함양과 더불어 극기심과 모험심을 향상시키는 수련활동의 성격이 강하다(표 3-15 참조).

<표 3-15> 서울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현황(탐험활동)

| 구분               | 사업명                         | 주관                       | 사업기초                                                                                     | 프로그램 내용                                                      | 대상                |
|------------------|-----------------------------|--------------------------|------------------------------------------------------------------------------------------|--------------------------------------------------------------|-------------------|
| 탐<br>험<br>활<br>동 | 철인3종<br>국토횡단<br>체험          | 한국<br>스카우트<br>북부연맹       | *국토횡단을 통해 극기심,<br>탐험심, 협동심, 단결심<br>*환경활동으로 국토애 함양                                        | *도보, 자전거하이킹, 래프팅,<br>유적지 탐방, 낚시, 수중체험,<br>설악산 등반             | 서울시<br>중고생        |
|                  | 2003<br>서울역사<br>현장순례        | (사)<br>흥사단               | *서울의 성곽 순례<br>*현장방문 통해 역사유적 파악<br>*애국심 함양                                                | *각 코스별 유적 답사<br>*소감 발표, 장기자랑, 공연                             | 소외<br>청소년,<br>청소년 |
|                  | 청소년이<br>직접만드는<br>테마체험<br>여행 | (사)<br>청소년<br>교육전략<br>21 | *청소년 직접 테마여행 기획<br>*여행을 통해 자립심, 판단력,<br>문제 해결 능력 향상<br>*체험여행을 통해 형성된<br>정보를 정부, 관련단체에 제공 | *지방의 유적지, 명승지 탐방<br>*체험 활동<br>(보성차발, 보성도자기,<br>낙안읍성 탐방 및 체험) | 16개<br>단체         |
|                  | 한강사랑<br>자전거<br>릴레이캠프        | (사)<br>색동회               | *자연사랑 캠페인 활동 추진<br>*한강의 역사, 유적, 유물 답사<br>*한강을 사랑하는 마음 고양                                 | *한강 주변의 유적지 답사<br>*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br>캠프파이어, 생태체험교실 등          | 서울시<br>초중생        |

탐험활동 프로그램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부분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직접참여를 통해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테마체험 여행은 지속적인 사전모임과 사전 강좌를 통해, 청소년들이 여행의 목적, 장소, 일정, 비용 등을 직접 기획하였다. 청소년들이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행사의 주체가 된 것이다. 또한 다른 분야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탐험활동 프로그램에서는 사후 프로그램을 고민한 흔적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 ‘테마체험 여행’은 여행 기록을 자료화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들간의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테마여행 기획단을 구성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릴레이캠프’는 다소 미흡하지만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청소년들이 의견과 소감을 개진하도록 함으로써 소통의 여지를 고민하고 있다.

탐험활동은 성과물의 공유, 참여 청소년들의 평가반영 및 네트워크 구성 등 사후프로그램을 고민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편이어서, 그러한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의 청소년 참여가 갖는 의의를 고려해 참여를 확대시켜야만 한다.

## 5) 문화기획 및 활동

문화기획 및 활동 프로그램은 소비문화 혹은 상업문화가 청소년들의 문화 환경을 잠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놀이문화를 스스로 개발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열린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러한 문화기획 및 활동은 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수련시설이나 청소년단체를 통해 진행되었다. ‘난나 엔터테인먼트’는 강북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동아리 활동 및 축제이며,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축제’는 구로지역 청소년들을, ‘온몸으로 노래하는 뮤직 퍼포먼스’는 수서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단위의 문화 활동 프로그램이다. 반면 ‘청소년 심리사회극’이나 ‘서울시 청소년 연극축제’, ‘청소년 전통예술 마당’은 시(市) 차원에서 비교적 큰 규모로 진행된 청소년을 위한 문화 활동 장이다(표 3-16 참조).

<표 3-16> 서울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현황(문화기획 및 활동)

| 구분        | 사업명              | 주관            | 사업기초                                                  | 프로그램 내용                                   | 대상             |
|-----------|------------------|---------------|-------------------------------------------------------|-------------------------------------------|----------------|
| 문화기획 및 활동 | 난나 엔터테인먼트        | 강북 청소년 수련관    | *공연전문 교육과 발표 기회<br>*강북지역 청소년동아리 활성화<br>*또래간의 문화공동체 경험 | *댄스, 풍물, 밴드, 연극<br>*2개월간의 교육과정 거쳐 발표회 진행. | 강북 청소년         |
|           |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축제    | 구로 청소년 수련관    | *학교에서 지역으로 활동확대<br>*지역주민과 공감하는 활동<br>*청소년 문화를 스스로 선도  | *레크레이션<br>*학교축제, 동아리공연 (보컬, 댄스, 풍물 등)     | 구로구 중고생        |
|           | 온몸으로 노래하는 뮤직퍼포먼스 | 수서 청소년 수련관    | *음악 좋아하는 청소년 활동<br>*공연기획을 위한 공동작업<br>통해 공동체익식, 자신감 향상 | *강의와 공연<br>*퍼포먼스연구, 신체훈련<br>공연관람, 나 프로젝트  | 수서 청소년         |
|           | 청소년 심리사회극        | 청소년교육 전락인     | *심리극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 스스로 해결                          | *워크숍과 발표<br>*역할놀이와 감정표현 등                 | 청소년            |
|           | 서울시 청소년 연극축제     | 청소년 문화공동체 '꿈' | *연극을 통해 자기표현 지원<br>*청소년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유도       | *청소년·교사 워크숍<br>*기획단 캠프, 연극축제              | 서울시 청소년 연극 동아리 |
|           | 청소년 전통예술 마당      | 작은 소리학교       |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향상<br>*학교 전통예술 관련 동아리 네트워크 발굴 지원          | *본 행사 전 순회지도<br>*참여마당, 길놀이, 지신밧기, 한마당 등   | 학교 전통예술 동아리    |

문화기획 및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process)’이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목표가 바로 청소년들이 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분야의 프로그램보다도 사전·사후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지역 문화기반시설이 청소년들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청소년들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평가해보는 활동은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 위와 같은 문화기획 및 활동은 사전에 청소년 문화기획단을 구성하고, 문화기획을 비롯한 문화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교육을 제공하며, 그 성과물로서 공연 및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또래 동아리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 프로그램 참여 경험자들과 새로운 참여자들 간의 교류를 모색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문화기반시설 및 지역 주민과의 연계를 고민한다. 특히 ‘난나 엔터테인먼트’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의 청소년동아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문화교육과 문화 활동을 연계를 모색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획과정에서 소수의 청소년들만이 참여한 점,

청소년기획단의 참여수준이 적극적이지 못한 점, 청소년동아리-청소년단체-학교-지역 기반 문화시설 간 네트워크의 구성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계를 이루어내지 못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서울시의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외에도,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사랑 캠프’(한빛청소년대안센터), 고3 수험생들만을 대상으로 심신수련활동을 펼치는 ‘내면의 세계를 찾아 떠나는 여행’(파라미타청소년협회), 천체관측과 과학 활동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과학영재캠프’(한국우주정보소년단), 청소년들의 친환경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감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오리엔티어링 캠프’(한국오리엔티어링 연맹), 소외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동체훈련을 진행하는 ‘희망캠프’(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청소년 스스로 유영한 체험학습 장을 발굴하고 직접 추천하는 ‘어린이·청소년 꿈지맵 프로젝트’(서울 YMCA) 등이 있다.

### 3. 청소년 민간단체 주최 프로그램

현재 서울시 소재 청소년단체는 총 97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육성 및 수련활동, 청소년문화 및 예술 활동, 국제교류, 청소년에 관한 연구사업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청소년 문화 관련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국제교류

청소년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주로 청소년 국제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스카우트 연맹, 한국 로타리 청소년,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서울 YMCA 등은 단체의 국제적인 특성을 살려 회원국 청소년들간 국제적인 상호교류를 기획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스카우트 연맹은 국내 청소년 1,200여명과 국외 청소년 1,500여명을 대상으로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한국 잼버리’를 기획하여 다양한 레포츠활동과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뉴질랜드 스카우트 대원들 약 20명씩과 함께 다양하고 상이한 학교 수업을 체험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자연생

태'를 주제로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에게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곡성 주민들과의 지역적인 교류를 동시에 기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는 한국 청소년 10여명과 일본 청소년 15여명이 참여하였다.

<표 3-17> 민간단체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현황(국제교류)

| 구분   | 사업명            | 주최            | 사업기초                                                                                                     | 프로그램 내용                                                                                               | 대상         |
|------|----------------|---------------|----------------------------------------------------------------------------------------------------------|-------------------------------------------------------------------------------------------------------|------------|
| 국제교류 |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    | 한국 스카우트 연맹    | *해외국가 청소년들과의 교류<br>*다양한 문화이해, 국제적 마인드 함양                                                                 | *정보과학 프로그램, 전시, 국제의 밤, 레포츠활동, 서바이벌, 암벽등반, 통일영원 미니 마라톤대회, 모터싸이클, 바이클링                                  | 13~18      |
|      | 내일을 위한 위대한도전   | 한국 스카우트 연맹    | *캐나다, 뉴질랜드 연맹과 파트너십 구축                                                                                   | *캐나다, 뉴질랜드 스카우트 대원과 학교수업체험<br>*각 회원국 제역대와 아영, 주말 프로그램 운영                                              | 걸스카우트 6학년  |
|      | 한일국제 Work camp |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 *자연생태계의 중요성과 보존필요성에 대한 이해확대<br>*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함께 만드는 Workcamp<br>*곡성지역주민들과 교류                            | *지역주민과의 교류프로그램<br>*곡성지역 아이들과의 캠프<br>*한일 문화 비교                                                         | 만6세 이상     |
|      | 실크로드 탐사        | 한국 탐험연맹       | *5대양 6대주 세계일주 탐험<br>*실크로드 통한 역사재조명<br>*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로인 현장 체험탐사<br>*고대 유적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니를 알 수 있는 계기 |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 탐사, 타클라마칸 사막 종주, 실크로드 · 만리장성 · 황화강 · 명사산 · 월야천 탐사, 생태탐사, 중국 소수민족 문화체험, 파미르 고원 등 고대유적 답사 | 초4~고       |
|      | 유럽8개국 문화체험     | 한국 탐험연맹       | *세계문화의 중심인 유럽지역을 탐사하여 넓은 세계관 양성<br>*다양한 세계문화를 직접 체험, 학습                                                  | *체험과 탐사를 중심으로 한 중부 유럽 배낭여행<br>*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 초4~고       |
|      | 해외 문화체험 활동     | 한국청소년 수련활동 협회 | *문화생활 체험을 통한 국가간 상호교류 및 우의증진                                                                             | *일본, 중국 문화유적 탐사<br>*생활현장 등 견학                                                                         | 초중고 교사 학부모 |
|      | 청소년 해외영어 연수    | 서울 YMCA       | *현지 원어민과 교류<br>*영어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다양한 문화체험                                                               | *벤쿠버 3주간 홈스테이<br>*문화 활동과 캠프활동 경험<br>*생활영어 학습                                                          | 10~16세     |

한국탐험연맹 역시 유럽 배낭여행으로 기획된 '유럽8개국 문화체험'과 중국 역사탐방로 기획된 '실크로드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크로드 탐사'는 단순한 배낭여행이

아닌 ‘역사 탐방’과 ‘생태 체험’을 주제로 기획되었다. 그 밖에 문화유적 탐사로 기획된 ‘해외문화체험 활동’(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 방학을 이용하여 현지 원어민과의 교류 및 영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해외영어 연수’(서울 YMCA) 등이 있다 (표 3-17 참조).

## 2) 체험활동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체험활동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농·어촌 체험을 비롯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이며, 다른 하나는 평화·통일과 관련한 ‘병영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전통문화 혹은 공동체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도시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전통사찰 및 농·어촌의 문화 환경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농·어촌의 상이한 생활환경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평화·통일체험 프로그램은 병영체험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고양과 애국심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도시 청소년들에게 전래놀이·장터 등에 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돕고 있다.

예를 들어,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는 전통 사찰에서 참선체험·생태환경체험·문화재 탐방 및 들꽃기행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린웨이리운동연합 또한 야영캠핑을 겸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도시와 농·어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민속놀이·레크레이션·갯벌탐험 및 보호활동·오리엔티어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스카우트연맹은 병영체험을 중심으로 호국수련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공동체 품은 지리산 자연체험 및 역사체험 등과 같은 특정 주제를 매해 선정하여 집단 활동과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공동체 정신을 배우는 ‘삶의 뿌리를 찾아서’(청소년문화공동체 품)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청소년문화공동체 품이 진행하고 있는 ‘삶의 뿌리를 찾아서’는 단기사업이 아닌 7개년 계획의 장기사업으로 청소년 스스로 만들어가는 다양한 소집단 활동이 프로그램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품은 프로그램

모델 제시와 사업 결과물을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청소년 문화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표 3-18 참조).

<표 3-18> 민간단체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현황(체험활동)

| 구분               | 사업명                       | 주최             | 사업기조                                                                                     | 프로그램 내용                                                                                    | 대상                      |
|------------------|---------------------------|----------------|------------------------------------------------------------------------------------------|--------------------------------------------------------------------------------------------|-------------------------|
| 체<br>험<br>활<br>동 | 청소년<br>사찰생태<br>문화기행       | 파라미타<br>청소년협회  | *도시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br>전통사찰의 수련문화 체험<br>*생태환경 살펴보고, 생태적<br>각성과 환경의 중요성 도모<br>*공동체적인 삶의 지혜 체득 | *참선체험, 문화재 탐방,<br>생태환경체험활동,<br>박물관견학, 인근<br>문화재탐방, 들뜰기행                                    | 청소년,<br>지도자             |
|                  | 함께하는<br>사회만들기             | 한국청소년<br>단체협의회 | *사회속의 서로 다른<br>노시·농촌간 문화체험, 교류<br>*농촌현실 이해하고<br>체험학습의 기회 마련                              | *문화체험활동<br>(보드게임, 포크댄스,<br>민속놀이, 레크레이션)<br>*갯벌탐험 및 보호활동<br>*야간활동(오리엔티어링)<br>*캠프파이어, 작은 운동회 | 회원,<br>전남<br>북평면<br>청소년 |
|                  | 청소년<br>환경체험<br>캠프         | 그린हे밀리<br>운동연합 |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br>필요성 고취, 자연보호운동<br>*다양한 환경교육 체험                                        | *환경교육, 숲 체험 교실,<br>레크레이션 등                                                                 | 청소년                     |
|                  | 평화통일<br>체험활동<br>SINCE1995 | 한국스카우<br>트연맹   |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 고양<br>*병영체험을 통해 애국심<br>고양                                                  | *휴전선 도보, 통일 염원제<br>*병영체험                                                                   | 중고생                     |
|                  | 청소년<br>호국<br>수련활동         | 한국스카우<br>트연맹   | *병영체험 통해 안보의<br>중요성 자각하고 애국심 함양                                                          | *병영체험, 안보교육,<br>장비견학                                                                       | 중고생                     |
|                  | 삶의<br>뿌리를<br>찾아서          | 품              | *자리산 자연환경, 역사체험<br>*집단활동과 전통문화<br>체험으로 공동체 정신 배움                                         | *전래놀이 장터, 래프팅,<br>전통음식 축제, 생태체험                                                            | 청소년,<br>지도자             |
|                  | 품캠프                       | 품              | *자연체험, 역사·문화 활동<br>*공동체 정신 배움                                                            | *연2회 진행<br>*도시지역을 벗어나 자연<br>속에서 캠프 진행                                                      | 청소년                     |

그 밖에 ‘청소년 패러글라이딩 교실’(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 충효활동·봉사활동·자연생태체험학습·문화유적탐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충효실천수련대회’(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 승마강습·실내암벽등반·농촌 환경체험을 캠프로 진행하는 ‘승마캠프’(서울 YMCA), 별자리 관측과 우주컴퓨터 시뮬레이션 교육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체험 프로그램인 ‘모험과 체험의 별자리 캠프’(서울 YMCA), 발표력 훈련과 공동체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나를 표현하기! 지도자캠프’(서울 YMCA) 등이 있다.

### 3) 탐험활동

탐험활동은 대개 우리나라 국토를 탐험함으로써 국토애와 애국심을 함양하고, 도전 의식과 독립심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탐험활동도 체험활동과 유사하게 도시를 벗어나 도시청소년들이 평소에 경험하기 힘들었던 낯선 곳, 특히 자연지대를 탐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대부분 극기 훈련 체험의 형태나 캠프의 형태로 진행된다.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탐험활동은 국토종단 탐험과 한강이나 제주도, 독도, 금강산 등과 같은 특정 지역을 탐사하는 활동, 무인도와 같은 오지 탐험활동 등으로 나뉜다.

<표 3-19> 민간단체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현황(탐험활동)

| 구분               | 사업명              | 주최                | 사업기조                                                                           | 프로그램 내용                                                                                                             | 대상          |
|------------------|------------------|-------------------|--------------------------------------------------------------------------------|---------------------------------------------------------------------------------------------------------------------|-------------|
| 탐<br>험<br>활<br>동 | 국토순례<br>대행진      | 청소년폭력<br>예방재단     | *용기와 의지를 획득<br>*청소년 인권 선포                                                      | *도보로 국토 순례                                                                                                          | 청소년         |
|                  | 한강<br>도보순례       | 그린패밀리<br>녹색소년단    | *한강의 역사, 문화적 의미체험<br>*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생태 문<br>제에 대한 관심 고취<br>*이타심과 협동심 고양        | *걸으면서, 보면서 느끼는 한강<br>*음식물 재활용 센터 견학<br>*별자리 관찰, 곤충탐사 등                                                              | 청소년,<br>지도자 |
|                  | 청소년<br>무인도<br>탐사 | 한국해양<br>소년단<br>연맹 | *심신단련, 도전과 모험심 함양<br>*의지와 진취적인 기상 함양                                           | *베이스캠프 설치, 무인도 탐사, 섬<br>지도 그리기, 해양기능 및 어구제<br>작, 해양탐구, 수산명물 시장 탐사                                                   | 전국<br>청소년   |
|                  | 소년<br>탐험대        | 서울<br>YMCA        | *진취적 기상, 독립심 함양<br>*공동생활, 각종 활동으로 공동체<br>정신과 협동의식 함양                           | *기본 훈련 캠프, 인공암벽, 등반캠<br>프, 설악산 등반, 스킨스쿠버 캠프,<br>서바이벌, 오지탐험 캠프(년 5회)                                                 | 초4~중<br>2   |
|                  | 평화를<br>향한<br>한걸음 | 한국<br>걸스카우트<br>연맹 | *금강산 평화캠프<br>*아름다운 금강산을 직접 탐험, 청<br>정지역에서 해양활동                                 | *금강산 등반, 해양활동, 평화 대행<br>진, 우정의 선물 만들기, 북한 이해<br>프로그램, 평화예술제                                                         | 청소년         |
|                  | 제주도<br>문화탐방      | 한국청소년<br>지도사협회    | *제주도 문화 체험, 이해<br>*특색 있는 지방문화를 탐사<br>*우정과 협동심, 극기심 배양                          | *제주도 지역 탐사 및 관람<br>*한라산 등반, 민속자연박물관 관<br>람, 승마체험                                                                    | 청소년,<br>지도자 |
|                  | 국토<br>종단탐험       | 한국<br>탐험연맹        | *국토원주로 애국심, 국토애<br>*옛길탐사로 선조의 지혜 배움<br>*환경의 소중함 자각                             | *마라도에서부터 국토종단<br>*마라도, 제주도 일주 탐사<br>*옛길 흔적 탐사, 옛길 복원<br>*환경보호활동, 수상훈련, 산악훈련,<br>별자리 탐사, 항공스포츠교실, 오리<br>엔티어링, 문화유적답사 | 초4~고        |
|                  | 우리땅<br>캠프        | 서울 YMCA           | *독도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br>*극기체험 통해 애국심, 국토애<br>*협동심, 단결심, 극기심 함양<br>*강인한 체력과 민족정신 함양 | *동해안 일출, 해군/해병 체험, 독<br>도 순회 프로그램, 독도 박물관 견<br>학, 울릉도 홀스테이, 성인봉 등반,<br>바닷가 해양훈련                                     | 청소년         |

예를 들어, 도보로 국토를 순례하는 ‘국토순례대행진’(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마라도에서 제주도까지 옛길을 탐험하는 ‘국토종단탐험’(한국탐험연맹)이 있으며,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한강을 탐사하는 ‘한강도보순례’(그린페밀리녹색소년단), 평화를 주제로 금강산을 탐험하고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평화를 향한 한걸음’(한국걸스카우트연맹), 제주도의 특색 있는 지방문화를 탐사하는 ‘제주도 문화탐방’(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 독도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우리 땅 캠프’(서울YMCA) 등이 있다. 또한 ‘청소년무인도탐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과 ‘소년탐험대’(서울YMCA)는 무인도 등의 오지를 탐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소년무인도탐사’는 해양탐구를 중심으로, ‘소년탐험대’는 등반캠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표 3-19 참조).

그 밖에 한국탐험연맹의 또 다른 국토종단탐험 프로그램인 ‘한라에서 백두까지’와 마라도 제주도를 자전거로 탐험하는 ‘마라도·제주도 자전거 탐험’이 있다. 또한 명작의 집필지나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곳을 탐사하고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면서 독서의 습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유도하는 ‘독서문화여행’(한국유스호스텔연맹) 등이 있다.

#### 4) 문화기획 및 활동

청소년 민간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문화기획 및 활동 분야다. 이 분야의 프로그램은 크게 동아리 축제, 영상제, 동아리 및 문화예술 경영대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아리 축제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청소년 기획단을 모집하여 축제를 기획하고 참가 동아리들의 문화 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형식을 띤다. 지역단위의 청소년축제와 서울전체 혹은 전국단위의 청소년축제가 있다. 지역단위의 청소년축제는 지역에 기반한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 시설에서 주최하는 축제로서, 인근 지역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동아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서울 혹은 전국단위의 청소년축제는 홍사단에서 주최하는 ‘대학로 청소년 축제’, 미지센터에서 주최하는 ‘미지청소년문화축제’, 내일여성센터에서 주최하는 ‘탁틴합합페스티벌’ 등이 있다.

<표 3-20> 민간단체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현황(문화기획 및 활동)

| 구분        | 사업명               | 주최             | 사업기조                                                       | 프로그램 내용                                                           | 대상             |
|-----------|-------------------|----------------|------------------------------------------------------------|-------------------------------------------------------------------|----------------|
| 문화기획 및 활동 | 대학로 청소년축제         | 흥사단            | *건전한 청소년 육성<br>*열린 문화 공간 제공                                | *먹거리마당, 바자회, 노래공연, 마술쇼, 공동체 놀이마당, 전통놀이, 청소년 축제                    | 전국 청소년         |
|           | 미지청소년 문화축제        | 미지센터           | *청소년문화축제를 통해 청소년 문화 활동 활성화                                 | *명동에서 거리축제, 공연, 전시<br>*청소년벼룩시장, 다큐제작                              | 서울 청소년         |
|           | 탁틴합합 페스티벌         | 내일 여성센터        | *문화 활동과 청소년 성교육을 병행                                        | *배틀/토너먼트 형식의 합합경연 대회                                              | 전국 청소년         |
|           | 하자 영상축제           | 하자센터           | *많은 사람들이 참여, 즐길 수 있는 영화제                                   | *청소년 제작 다큐멘터리 상영, 감독과의 대화, 축하공연 등                                 | 서울 청소년         |
|           | 청소년영상 페스티벌        | 서울 YMCA        | *청소년이 만든 영상작품 공모전                                          | *보도취재물, 다큐멘터리, 드라마, 캠페인 광고, 뮤직비디오 제작영상 작품 응모 및 상영                 | 초·중·고          |
|           | 청소년 인권영화제         | 내일 여성센터        | *청소년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대안제시                                     | *뉴스, 드라마, 뮤직비디오, 다큐, 토크쇼, 만화, CF, 애니메이션 제작 영상물 제출·상영              | 전국 청소년         |
|           |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 한국청소년 동아리연맹    | *청소년 동아리들의 교류와 선의의 경연 장 제공<br>*동아리활동의 수준향상,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 함양 | *음악, 응원, 코스프레, 연극, 수화, 연주, 풍물, 영상, 문화, 과학발명 등의 분야에서 경쟁, 우수동아리 선발. | 13~18세 청소년 동아리 |
|           | 청소년 문화대전          | 한국청소년 운동연합     | *청소년동아리들의 폭넓은 교류와 선의의 경쟁장 제공                               | *힙합댄스, 응원 댄스, 풍물, 그룹사운드, 영상, 만화, 캐릭터, 포스터 부문 경쟁, 우수작 선정           | 전국 청소년         |
|           | 청소년문화 예술대회        | 한국청소년 진흥원      | *재능 있는 청소년예술인 발굴                                           | *국악, 무용, 모델, 댄스, 미술, 서예, 웅변, 태권도, 합기도, 응원 등 경연 대회                 | 전국 청소년         |
|           | 청소년 전통예술 경연대회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 *청소년 공동체 의식 함양                                             | *국악연주, 탈춤, 사물놀이, 풍물, 살풀이, 장고춤, 가야금 병창, 합창 등의 분야에서 경연대회            | 전국 청소년         |
|           | ssro.net 아카데미     |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 *청소년폭력 예방<br>*영상과 관련한 문화교육                                 | *영상기획, 연출, 촬영, 편집 등 다큐멘터리에 관한 총체적 교육                              | 전국 청소년         |

또한 청소년들이 영상물제작에 대해 점차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 청소년 영상제작물을 응모·상영하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하자센터에서 주최하는 ‘하자영상축제’와 서울YMCA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영상페스티벌’, 내일여성센터에서 주최하는 ‘청소년인권영화제’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영상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영상물에 한하여 응모·상영하는데, 스스로넷과 같이 영상기획 및 촬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진행하기도 한다(표

3-20 참조).

청소년축제가 기획의 과정과 참여에 초점을 맞춘다면, 청소년 동아리 및 문화예술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우수 동아리 및 재능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청소년문화대전’(한국청소년운동연합), ‘청소년문화예술대회’(한국청소년진흥원),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등이 있다.

## 제 4 장

###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실태

제1절 청소년의 문화향수 실태

제2절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활동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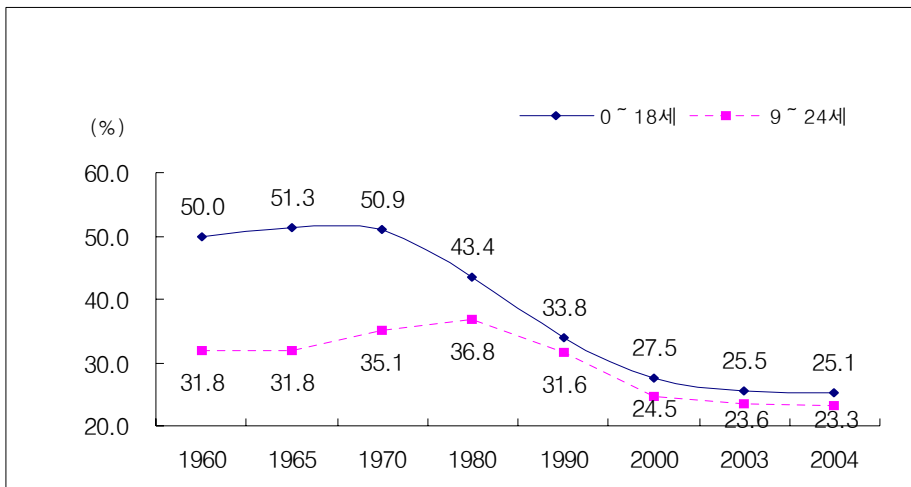
제3절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사례

## 제4장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실태

### 제1절 청소년의 문화향수 실태

#### 1. 청소년 인구 및 교육 현황 개관

한국의 총인구 중 0-18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50.9%에서 2004년 25.1%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2010년에는 총인구 대비 20.8%, 2030년에는 14.6%, 2050년에는 13.0%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문화관광부, 2003, 680, 그림 4-1 참조). 이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사회의 고령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 청소년 인구구성비

\* 자료: 통계청, 2004, 「청소년 통계」

이러한 사정은 서울시 청소년 인구구성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서울시 청소년 인구수는 1990년을 기점으로 3,395명에서 2,967명으로 그리고 2000년에는 2,466명으로 계속 하락해왔으며, 한국 전체 청소년인구 구성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도 24.8%에서 23.7%, 21.9%로 마찬가지로 감소(표 4-1 참조). 더불어 특이할 만한 사항은 남녀구성비에서 점차 여성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 4-1> 청소년 인구 추이

| 구분 | 1970년  |       | 1980년  |       | 1990년  |       | 1995년  |       | 2000년  |       |
|----|--------|-------|--------|-------|--------|-------|--------|-------|--------|-------|
|    | 인구수    | 구성비   | 인구수    | 구성비   | 인구수    | 구성비   | 인구수    | 구성비   | 인구수    | 구성비   |
| 전국 | 10,894 | 100.0 | 13,676 | 100.0 | 13,713 | 100.0 | 12,505 | 100.0 | 11,270 | 100.0 |
| 서울 | 2,078  | 19.1  | 3,054  | 22.3  | 3,395  | 24.8  | 2,967  | 23.7  | 2,466  | 2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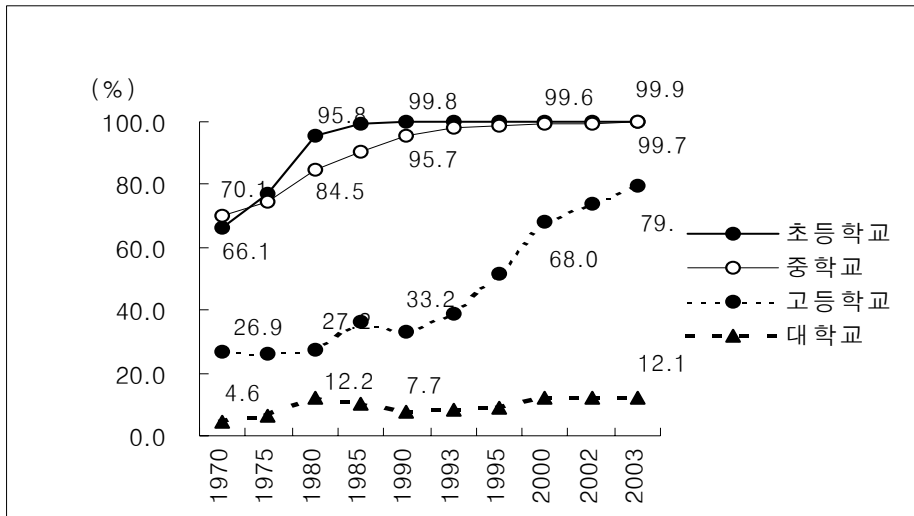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0, 「청소년 통계」

오늘날 청소년의 특징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 현재의 청소년들은 대체로 부모 세대에 비해 학력이 높고 더 많은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알고, 이동성이 높고, 사고에 있어서도 더 국제적이며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과 문화에 대한 관심 역시 더 높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결과를 보면 이들은 보다 높은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려들지 않는다. 또한 개인주의적이고 순응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sup>2)</sup> 이런 특징은 한국의 10대 청소년들에게서도 발견된다.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15-19세 한국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49%)라고 한다. 용모나 건강에 대한 고민이 그 뒤를 이었고 가정환경과 용돈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도 많았다(통계청, 2004). 전국 통계를 보여주는 <그림 4-2>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 또 중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은 거의 100%에 가까워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보통교육의 수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진학률 역시 1980년 27%에서 2003년에는 79%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실업계 고교도 취업보다 대학 진학에 치중하면서 졸업생 중 취업자 비율은 10년 전과 견주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의 2004년 '청소년 통계'를 보면, 실업계 고교 졸업생 중 대학 진학 비율이 1993년 10.3%에서 2003년 57.6%로 5배 이상 높아진 반면, 취업자 비율은 같은 기간 77.0%에서 38.1%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군 입대나 결혼 등이다. 물론 이러한 진학률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학력이 증가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2) "Are you talking to me? Communicating with young adults," Research International, London(Council of Europe, 1997: 136에서 재인용).



<그림 4-2> 진학률

\* 자료: 통계청, 2004, 「청소년 통계」

<표 4-2> 시도별 고등교육기관 세부 진학률

| 지역 | 고등학교→고등교육 |      | 일반계  |      | 실업계  |      |
|----|-----------|------|------|------|------|------|
|    | 전문대학      | 대학교  | 전문대학 | 대학교  | 전문대학 | 대학교  |
| 서울 | 17.8      | 45.0 | 14.9 | 57.3 | 27.5 | 5.1  |
| 부산 | 19.4      | 55.3 | 9.0  | 83.6 | 35.6 | 11.5 |
| 대구 | 25.2      | 55.7 | 13.6 | 79.0 | 48.0 | 9.8  |
| 인천 | 21.6      | 45.0 | 16.3 | 67.6 | 31.2 | 4.5  |
| 광주 | 15.0      | 68.2 | 6.9  | 89.4 | 33.4 | 20.2 |
| 대전 | 18.3      | 62.3 | 13.5 | 81.3 | 29.6 | 17.2 |
| 울산 | 30.8      | 55.0 | 16.5 | 79.4 | 58.9 | 7.2  |
| 경기 | 23.7      | 49.7 | 18.3 | 68.6 | 33.3 | 16.5 |
| 강원 | 23.4      | 56.7 | 15.1 | 79.0 | 31.2 | 35.8 |
| 충북 | 27.4      | 47.2 | 19.3 | 73.3 | 37.9 | 13.4 |
| 충남 | 25.0      | 49.3 | 21.4 | 68.0 | 32.6 | 10.9 |
| 전북 | 21.3      | 54.1 | 14.6 | 79.1 | 28.6 | 26.4 |
| 전남 | 24.3      | 49.8 | 18.1 | 75.8 | 32.9 | 13.6 |
| 경북 | 29.0      | 50.9 | 22.0 | 72.3 | 40.6 | 15.4 |
| 경남 | 26.7      | 54.8 | 17.9 | 74.8 | 43.2 | 17.0 |
| 제주 | 43.1      | 46.8 | 26.4 | 67.5 | 71.3 | 11.7 |

\*주: 1) 시도별 진학률 = (시도별 진학자 수/시도별 졸업자 수)×100

2) 고등학교에는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포함 3) 대학교에는 교육대학 포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2002, 「교육통계연보」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2002년 시도별 고등교육기관 세부 진학률을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 혹은 대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각각 14.9%, 57.3%로 총 72.2%에 달하고 있다. 실업계 역시 전문대학으로의 진학률이 27.5%, 대학교로의 진학이 5.1%로 약 2/3가 진학하고 있다(표 4-2 참조). 전반적인 평균학력 증가 추세가 서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서울의 중도탈락률은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3 참조). 이는 중도탈락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학·이민자의 비율이 서울에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내신 성적을 고려한 자퇴생이나 탈학교 청소년, 대안학교 청소년 등이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3> 시도별 중도탈락률(2002)

| 구분 | 중학교 | 일반계 고등학교 | 실업계 고등학교 |
|----|-----|----------|----------|
| 서울 | 1.8 | 2.1      | 6.5      |
| 부산 | 0.9 | 1.1      | 5.1      |
| 대구 | 0.7 | 1.1      | 3.6      |
| 인천 | 1.0 | 1.1      | 4.9      |
| 광주 | 1.0 | 1.6      | 4.0      |
| 대전 | 1.2 | 1.8      | 5.5      |
| 울산 | 0.6 | 1.2      | 6.1      |
| 경기 | 1.1 | 1.8      | 4.0      |
| 강원 | 1.0 | 1.7      | 3.9      |
| 충북 | 0.9 | 1.4      | 4.0      |
| 충남 | 0.9 | 1.9      | 5.9      |
| 전북 | 0.8 | 1.2      | 4.6      |
| 전남 | 0.6 | 1.6      | 5.1      |
| 경북 | 0.7 | 1.5      | 5.0      |
| 경남 | 0.7 | 1.4      | 4.7      |
| 제주 | 0.7 | 1.1      | 5.4      |

\*주: 시도별 중도 탈락률 = (시도별 제적·중퇴 및 휴학자 수/학년별 제적·중퇴 및 휴학자 수)×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2000-02), 「교육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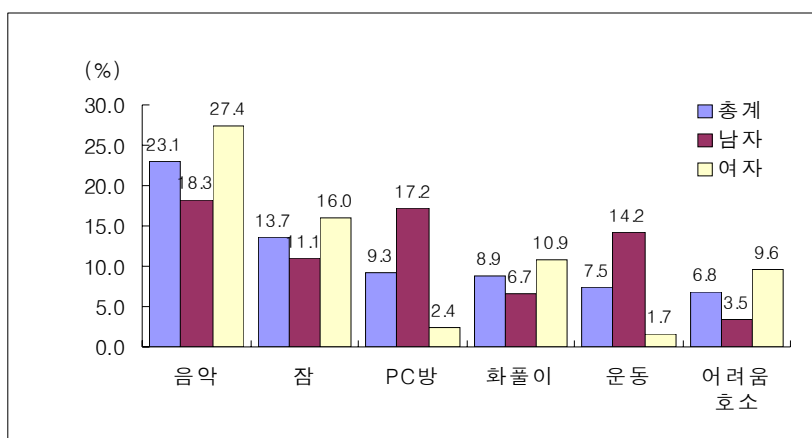
진학률의 증가와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중도 탈락률의 증가는 서울시 청소년의 힘겨운 생활환경을 보여준다. 더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일상의 상당 부분을 학교에

서 보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며, 특히 학교 시설 및 환경에 대해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다. 200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이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는 33.9%에 그치고 있으며, 불만족도 15.5%에 달하고 있다. 학교시설에 대한 불만족은 더 큰 수치를 보였는데, 만족은 21.2%인 반면 불만족은 44.2%로 나타났다(표 4-4 참조). 이러한 수치는 1996년도와 비교해보았을 때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청소년 생활환경에 별다른 발전이 없었던 것을 의미한다.

<표 4-4> 청소년들의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

| 구분       | 계     | 만족   | 매우만족 | 약간만족 | 보통   | 불만   | 약간불만 | 매우불만 |
|----------|-------|------|------|------|------|------|------|------|
| 1996년    |       |      |      |      |      |      |      |      |
| 15 - 19세 | 100.0 | 21.2 | 4.2  | 17.0 | 34.6 | 44.2 | 29.4 | 14.8 |
| 남 자      | 100.0 | 20.9 | 4.2  | 16.7 | 35.8 | 43.3 | 28.5 | 14.8 |
| 여 자      | 100.0 | 21.5 | 4.3  | 17.2 | 33.3 | 45.2 | 30.3 | 14.9 |
| 2000년    |       |      |      |      |      |      |      |      |
| 15 - 19세 | 100.0 | 22.2 | 4.4  | 17.8 | 35.3 | 42.5 | 28.3 | 14.1 |
| 남 자      | 100.0 | 23.3 | 4.3  | 19.1 | 35.7 | 41.0 | 27.1 | 13.8 |
| 여 자      | 100.0 | 21.1 | 4.5  | 16.6 | 35.0 | 43.9 | 29.5 | 14.4 |

\*자료: 통계청, 1996, 2000, 「청소년 통계」



<그림 4-3>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방법

\*자료: 통계청, 1996, 2000, 「청소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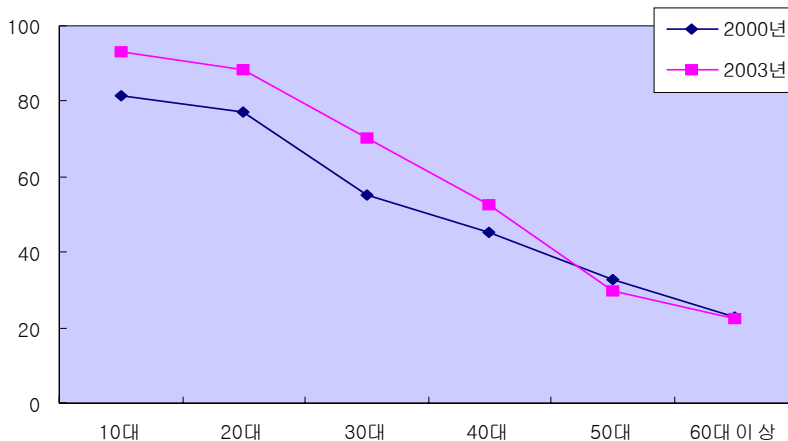
반면, 청소년들은 ‘공부’에 대한 부담감과 학교를 비롯한 생활환경에 대한 불만족을 해결할 만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00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대부분 음악을 감상하거나(23.1%), 잠을 자는 것(13.7%)으로 나타났다(그림 4-3 참조).

## 2. 일반 청소년의 문화향수 실태

최근 서울시 내에 지역간, 계층간 격차가 심해지면서 청소년 간에도 사회문화적 분리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다. 명문학군과 비명문학군, 강북과 강남, 아파트 단지 안과 밖, 인문계와 실업계, 학원 키드와 거리의 청소년 사이의 간극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낙후된 지역의 청소년들의 정서적 박탈감이 증대되고 있다. 컴퓨터, 휴대폰, 게임 등 디지털 문화상품으로 무장하고 방학이면 해외연수를 떠나는 글로벌 키드(global kid)와 최소한의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공존하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서울의 현실이다. 문화와 정보가 새로운 생산수단으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문화적 빈곤의 대물림은 장차 아이들이 자랐을 때 경제적 자원 획득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체험의 상품화, 문화교육의 시장화가 가속화되어 구매력 없는 가정의 자녀들은 문화예술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2001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은 주로 TV, 인터넷, 컴퓨터 게임 등 미디어에 치우쳐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공부나 학원을 가는 것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여가활동으로는 TV시청(17.9%), 컴퓨터 게임(20.8%)이 가장 많았다. 그 밖에도 인터넷 이용 16.8%, 음악 감상 10.9%, 케이블 및 위성 시청 5.8%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대부분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동규 외, 2001). 그러나 책읽기, 신문·잡지 읽기는 각각 1.4%에 불과하였으며, 만화책 읽기 7.0%로 여가시간에 독서를 하고 있는 학생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때, 평일 여가활동으로 여학생들은 41.1%가 TV 시청, 인터넷 23.4%로 많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에 비해 남학생들은 컴퓨터 게임 34.1%, TV 시청 24.9%라고 응답해 성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실태를 보면, 예술행사 관람률은 <그림 4-4>에서 보듯이 2003년 약 93%로, 2000년 약 80%보다 증가추세에 있고, 모든 연령층 중에서 10대 청소년층의 예술행사 관람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10대의 영화 관람률이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전시 및 공연 관람을 과제로 부여한 탓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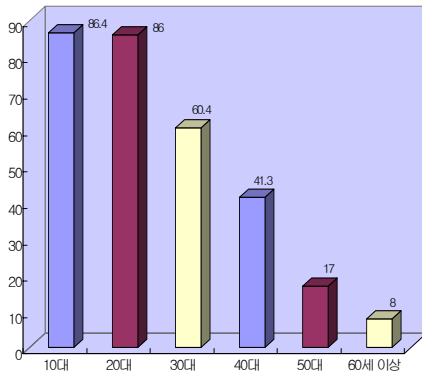


<그림 4-4> 연령에 따른 예술행사 관람률(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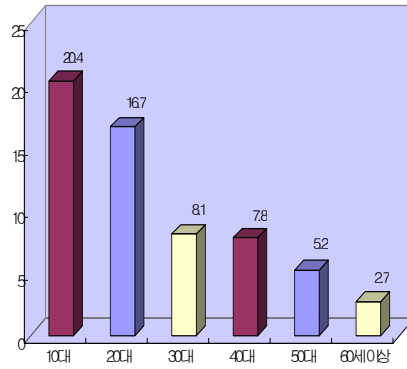
\*자료: 문화관광부, 2003, 「문화향수실태조사」

하지만 예술행사 관람률은 연평균 관람 경험, 즉 1회 이상의 관람 경험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관람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10대 예술행사 관람률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영화(86.4%) > 대중가요콘서트(20.4%) > 미술전시회(18.4%) > 연극(15.5%) > 음악회·오페라(10.7%) 순으로 영화를 제외하고는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비중이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전체 연령층과 비교할 때, 연극(20대 비중이 더 높음)을 제외한 모든 장르에서 10대 청소년의 향유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 청소년이 주요 문화 향유층임을 알 수 있다(그림 4-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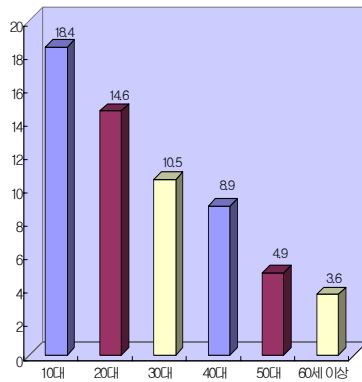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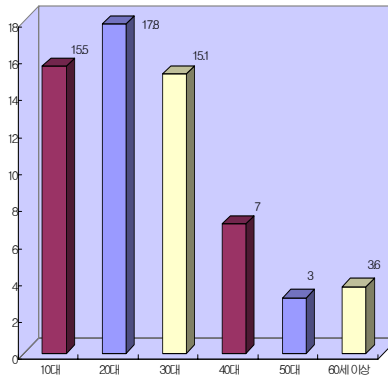
(가요콘서트)



(미술전시)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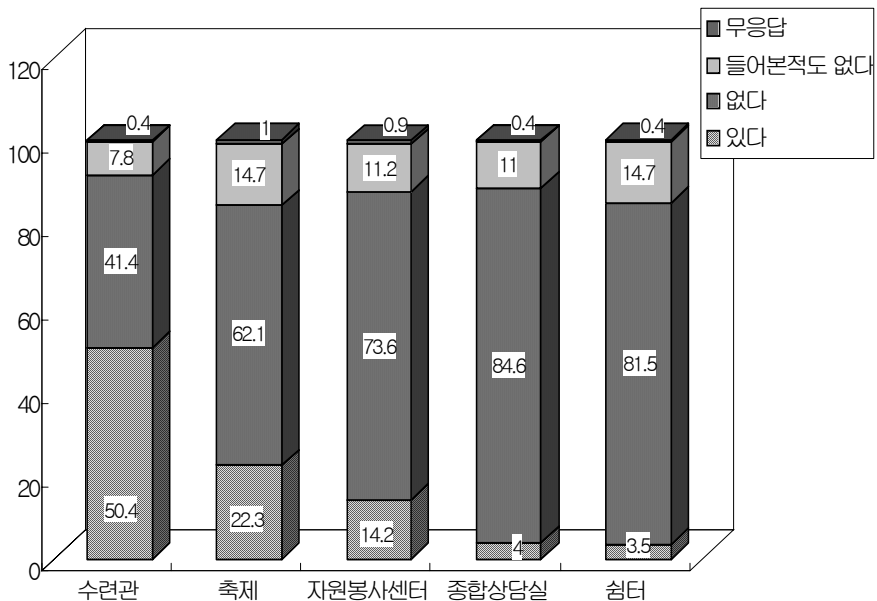
&lt;그림 4-5&gt; 장르별 예술행사 연간 관람율(단위: %)

\*자료: 문화관광부, 2003, 「문화향수실태조사」

하지만 청소년들 대부분은 이른바 고급문화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고급문화의 장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 진입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고급문화라 일컬어지는 전시 및 공연에 대해 형식이 지루하고, 접근이 어려우며, 비용이 매우 비싸다고 생각한다. 전시 및 공연이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대중문화와 지나치게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생적인 청소년 문화가 탄생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현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기는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시기로 정의된다. 이는 대단히 한국적인 현상이다. 때문에 고급문화의 영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의 영역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청소년 문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마다 설립되어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도 청소년들로부터 외면받기는 마찬가지이다. 서울시 청소년들의 문화시설 이용 및 문화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조사를 보면, 수련관(50.4%) > 축제(22.3%) > 자원봉사센터(14.2%) > 종합상담실(4.0%) > 쉼터(3.5%) 순으로 수련관을 제외하고는 이용경험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문화시설 이용경험이 없거나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의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4-6 참조).



<그림 4-6> 서울시 청소년들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단위: %)

\*자료: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4, 「서울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청소년 축제프로그램이 상당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62.1%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축제 참여경험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

며, 심지어 14.7%의 청소년은 그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시설 및 프로그램과 실제적인 청소년들의 참여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의 청소년 참여율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사회·문화 활동 분야에서는 물론이고 지역문화행사에도 청소년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교외활동을 암묵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교방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청소년 문화 활동에 대한 사회인식이 부족한 만큼 청소년들의 다양한 사회·문화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표 4-5, 6 참조).

<표 4-5> 청소년들의 사회단체 참여도 및 참여분야

| 구분            | 계     | 참여자  | 친목, 사교 | 종교 단체 | 취미, 레포츠 | 시민사회 단체 | 학술 단체 | 이익 단체 | 정치 단체 | 기 타 | 참여 없음 |
|---------------|-------|------|--------|-------|---------|---------|-------|-------|-------|-----|-------|
| <1999> 15-19세 | 100.0 | 11.5 | 26.5   | 26.4  | 23.5    | 21.6    | 0.6   | 0.0   | -     | 1.4 | 88.5  |
| <2003> 15-19세 | 100.0 | 23.7 | 33.7   | 21.4  | 25.7    | 15.4    | 2.8   | 0.1   | 0.0   | 0.8 | 76.3  |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9, 2003.

<표 4-6> 청소년들의 사회단체 참여도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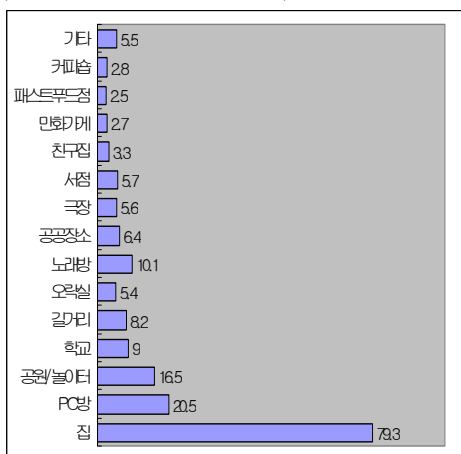
| 구분                | 계     | 있다   | 매우 만족 | 약간 만족 | 보통   | 약간 불만 | 매우 불만 | 없다   |
|-------------------|-------|------|-------|-------|------|-------|-------|------|
| < 1996 > 15 - 19세 | 100.0 | 34.1 | 1.3   | 6.8   | 17.6 | 6.8   | 1.6   | 65.9 |
| < 2000 > 15 - 19세 | 100.0 | 19.1 | 0.9   | 3.4   | 8.8  | 4.9   | 1.1   | 80.9 |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6,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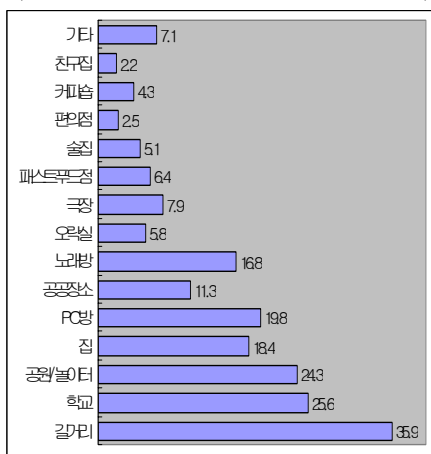
실제로 청소년들은 기획된 문화프로그램이나 문화 활동의 장을 활용하여 자신의 여가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집에서 TV시청 혹은 컴퓨터를 하면서 보낸다. 서울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현황을 보면,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집(79.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PC방(20.5%) > 공원 및 놀이터(16.5%) > 노래방(10.1%) > 학교(9.0%) > 길거리(8.2%) > 공공장소(6.4%) > 서점(5.7%) > 극장(5.6%) > 오락실(5.4%) > 친구집(3.3%) > 커피

숍(2.8%) > 만화가게(2.7%) > 패스트푸드점(2.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여가장소로는 길거리(35.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학교(25.6%) > 공원 및 놀이터(24.3%) > PC방(19.8%) > 집(18.4%) > 노래방(16.8%) > 공공장소(11.3%) > 극장(7.9%) > 패스트푸드점(6.4%) > 술집(5.1%) > 커피숍(4.3%) > 편의점(2.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4-7 참조)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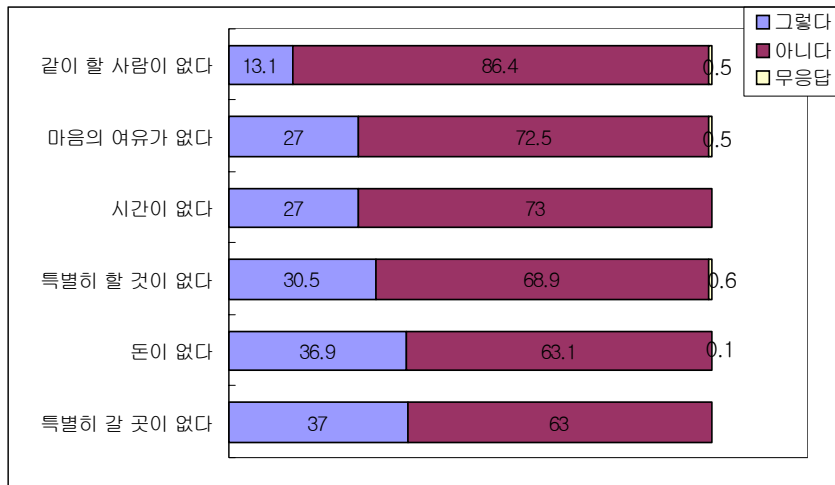


<그림 4-7> 서울시 청소년들의 여가 활용 공간

\*자료: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4, 「서울시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또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장애요인으로서는, 특별히 갈 곳이 없다(37.0%) > 돈이 없다(36.9%) > 특별히 할 것이 없다(30.5%) > 시간이 없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각각 27.0%) > 같이 할 사람이 없다(13.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4-8 참조).

결국 서울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과 시설은 그들대로 청소년 참여의 부진을 호소하고, 청소년들은 또한 그들 나름대로 마땅한 놀이공간과 놀이문화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길거리나 PC방 혹은 노래방을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청소년 문화향수 실태 결과를 통해 볼 때, 앞으로 다양한 여가공간과 프로그램 개발, 접근처 지역커뮤니티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과 프로그램 개발, 길거리·학교·공원 및 놀이터 등 공공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그림 4-8> 서울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장애요인 (단위%)

\*자료: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4, 「서울시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제2절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활동 실태

### 1. 적극적 문화실천 청소년 대상 심층인터뷰

<표 4-7> 인터뷰 대상자들의 기본사항

|    | 이름  | 성별 | 나이 | 학교   | 거주지  | 활동유형       | 활동 공간                     |
|----|-----|----|----|------|------|------------|---------------------------|
| 1  | 수봉  | 여  | 18 | 인문고  | 상도동  | 영상제작       | 정부운영<br>청소년 시설<br>(문화의 집) |
| 2  | 은지  | 여  | 18 | 인문고  | 창동   | 청소년위원회     |                           |
| 3  | 재민  | 남  | 18 | 인문고  | 상계동  | 밴드/ 동아리임원단 |                           |
| 4  | 재은  | 여  | 18 | 인문고  | 중계동  | 문화기획단      |                           |
| 5  | 지희  | 여  | 18 | 실업고  | 의정부  | 방송반        |                           |
| 6  | 창을  | 남  | 18 | 인문고  | 방배동  | 댄스         |                           |
| 7  | 현재  | 여  | 18 | 인문고  | 창동   | 문화기획단      |                           |
| 8  | 가람  | 여  | 17 | 인문고  | 마포   | 축제기획단      | 청소년 관련<br>NGO             |
| 9  | 윤진  | 여  | 18 | 실업고  | 은평구  | 연극         |                           |
| 10 | 지은  | 여  | 18 | 예술고  | 방배동  | 연극         |                           |
| 11 | 진아  | 여  | 18 | 대안학교 | 장위동  | 연극         |                           |
| 12 | 판   | 남  | 18 | 탈학교  | 대학로  | 축제기획단      |                           |
| 13 | 광우  | 남  | 16 | 중학교  | 홍은동  | 풍물         | 학내<br>동아리                 |
| 14 | 미리  | 여  | 19 | 실업고  | 신림동  | 응원단        |                           |
| 15 | 미리엄 | 여  | 16 | 중학교  | 북가좌동 | 밴드         |                           |
| 16 | 애경  | 여  | 16 | 중학교  | 북가좌동 | 노래, 마임     |                           |
| 17 | 예은  | 여  | 16 | 중학교  | 남가좌동 | 밴드         |                           |
| 18 | 우영  | 남  | 16 | 중학교  | 홍은동  | 풍물         |                           |
| 19 | 윤호  | 남  | 17 | 인문고  | 갈음동  | 밴드         |                           |
| 20 | 지울  | 여  | 16 | 중학교  | 남가좌동 | 합창단        |                           |
| 21 | 태영  | 남  | 19 | 인문고  | 용두동  | 밴드         |                           |
| 22 | 혜련  | 여  | 16 | 중학교  | 남가좌동 | 합창단        |                           |
| 23 | 혜린  | 여  | 16 | 중학교  | 북가좌동 | 노래, 마임     |                           |
| 24 | 혜선  | 여  | 16 | 중학교  | 남가좌동 | 합창단        |                           |
| 25 | 홍준  | 남  | 19 | 인문고  | 미아동  | 밴드         |                           |
| 26 | 겸   | 남  | 20 | 탈학교  | 대학로  | 영상제작       | 또래모임                      |
| 27 | 선영  | 여  | 18 | 실업고  | 사당동  | 댄스         |                           |
| 28 | 이슬  | 여  | 18 | 인문고  | 독산동  | 댄스         |                           |
| 29 | 서아  | 여  | 18 | 인문고  | 독산동  | 댄스         |                           |
| 30 | 하니  | 여  | 20 | 대학교  | 독산동  | 댄스         |                           |
| 31 | 성수  | 남  | 20 | 대학교  | 가산동  | 댄스         |                           |

서울시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운영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

의집/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민간단체(YMCA, 품, 청소년동아리연합회 등), ‘학내 동아리’, ‘또래모임(인터넷 동호회, 거리공연팀)’ 등 4가지 유형의 청소년 문화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이 곳에서 적극적으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총 31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 청소년의 인적사항은 <표 4-9>와 같다.

총 3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항목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제외하고 4가지로 나누었다(표 4-10). 하루일과와 동선을 묻는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 놀이문화와 놀이공간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문화 활동에 관한 질문, 문화 활동 참여에 있어 혹은 활동과정에 있어 부딪치게 되는 장애요인에 관한 질문, 마지막으로 문화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욕구를 질문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참여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문화 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표 4-8> 심층 인터뷰 질문항

| 질문유형           | 세부 질문내용                                                                                                                                |
|----------------|----------------------------------------------------------------------------------------------------------------------------------------|
| 기본질문           | -인구통계학적 배경<br>(나이, 성별, 학교, 가족관계 및 부모님 직업, 거주지 등)                                                                                       |
| 일상생활           | -평일과 주말의 하루 일과와 동선/ time-geography                                                                                                     |
| 문화 활동 참여 실태    | -일상적인 놀이문화와 놀이공간, 현재하고 있는 문화 활동<br>-문화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 및 동기<br>-문화 활동에 관한 전문적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br>-고급문화(발레공연, 클래식 음악회, 오페라 등) 향유 경험 유무 |
| 문화 활동 장애요인     | -다양한 문화 활동 참여의 장애요인/ 문제점 및 개선점<br>-현재 하고 있는 문화 활동의 장애요인/ 문제점 및 개선점                                                                     |
| 문화 활동 만족도 및 욕구 | -현재 하고 있는 문화 활동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br>-현재 하고 있는 문화 활동의 의미 및 중요성<br>-현재 하고 있는 문화 활동을 지속할 의향, 전망과의 연결성<br>-다른 문화 활동에 참여할 계획 여부, 원하는 문화 활동    |

## 2.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일상문화

### 1) 일상생활의 패턴과 타임스케줄(Time schedule)

서울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은 상당히 단조롭다. 기껏해야 ‘학교-학원-집’을 오갈뿐이며, ‘기상→등교→수업→학원→귀가→컴퓨터 및 숙제→취침’이라는 반복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뿐이다. 학교생활, 그 중에서도 특히 수업이 청소년의 일상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귀가 후 TV보기, 컴퓨터 하기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평일 서울 청소년들의 타임 스케줄을 살펴보면 <표 4-11>과 같다.

<표 4-9> 서울 청소년들의 time schedule (평일)

| 시간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이         |    |    |    |  |  |
|----|-----|----|---------|-----|----|----|----|----|----|----|----|----------------|--------|-----------|-------------|--------|-------------|----------|--------|-----------|----|----|----|--|--|
| 1  | 수봉  | 기상 | 등교      | 수업  |    |    |    |    |    |    |    | 학원 or 촬영       |        | 귀가/컴퓨터    |             |        | 취침          |          |        |           |    |    |    |  |  |
| 5  | 지희  | 기상 | 등교      | 방송  | 수업 | 방송 | 수업 |    |    |    |    | 방송             |        | 귀가/숙제/인터넷 |             |        | 취침          |          |        |           |    |    |    |  |  |
| 6  | 창울  | 기상 | 등교      | 수업  |    |    |    |    |    |    |    | 춤              |        | 과외        |             | 귀가     |             | 취침       |        |           |    |    |    |  |  |
| 8  | 가람  | 기상 | 등교      | 수업  |    |    |    |    |    |    |    | 독서실            |        |           |             | 귀가/컴퓨터 |             | 취침       |        |           |    |    |    |  |  |
| 9  | 윤진  | →  | 기상      | 등교  | 수업 |    |    |    |    |    |    |                | 귀가/컴퓨터 |           |             |        |             |          |        | 취침        |    |    |    |  |  |
| 10 | 지은  | 기상 | 등교      | 수업  |    |    |    |    |    |    |    | 연극             |        | 개인레슨      |             |        | 귀가          |          | 취침     |           |    |    |    |  |  |
| 11 | 진아  | 기상 | 매일확인/등교 |     | 수업 |    |    |    |    |    |    | 대학로 극장/공연준비    |        |           | 공연/뒷정리      |        |             | 귀가/공부    |        | 취침        |    |    |    |  |  |
| 13 | 광우  | →  | 기상      | 등교  | 수업 |    |    |    |    |    |    |                | 풍물     |           | 학원          |        | 귀가/TV시청     |          | 취침     |           |    |    |    |  |  |
| 14 | 미리  | 기상 | 등교      | EB  | 수업 |    |    |    |    |    |    |                | 응원     |           | 귀가          |        | 컴퓨터학원       |          | 컴퓨터/숙제 |           | 취침 |    |    |  |  |
| 15 | 미리엄 | →  | 기상      | 등교  | 수업 |    |    |    | 밴드 |    | 수업 |                | 귀가     |           | 피아노학원       |        |             | 귀가/숙제/독서 |        |           | 취침 |    |    |  |  |
| 16 | 애경  | →  | 기상      | 등교  | 수업 |    |    |    | 미임 |    | 수업 |                | 미임     |           | 귀가/TV시청/컴퓨터 |        |             |          | 취침     |           |    |    |    |  |  |
| 17 | 예은  | 기상 | 등교      | 밴드  | 수업 |    |    |    | 밴드 |    | 수업 |                | 밴드     |           | 귀가          |        | 학원          |          | 귀가/휴식  |           | 취침 |    |    |  |  |
| 18 | 우영  | →  | 기상      | 등교  | 수업 |    |    |    |    |    |    |                | 풍물     |           | 귀가          |        | 학원          |          | 귀가     |           | 취침 |    |    |  |  |
| 19 | 윤호  | 기상 | 등교      | 기도  | 수업 |    |    |    | 밴드 |    | 수업 |                |        |           | 밴드          |        |             |          | 귀가/숙제  |           |    | 취침 |    |  |  |
| 20 | 지울  | 기상 | 등교      | 수업  |    |    |    | 합창 |    | 수업 |    | 귀가             |        | 학원        |             |        | 귀가/TV시청/컴퓨터 |          |        |           | 취침 |    |    |  |  |
| 21 | 태영  | 기상 | 등교      | 수업  |    |    |    | 밴드 |    | 수업 |    |                |        | 밴드        |             | 음악학원   |             | 귀가/숙제    |        |           | 취침 |    |    |  |  |
| 22 | 해연  | →  | 기상      | 등교  | 수업 |    |    |    | 합창 |    | 수업 |                | 댄스학원   |           | 귀가/TV시청/컴퓨터 |        |             |          |        |           | 취침 |    |    |  |  |
| 23 | 해린  | 기상 | 등교      | 컴퓨터 |    |    |    | 수업 |    |    |    | 노래             |        | 수업        |             | 노래     |             | 미술학원     |        | 귀가/숙제/컴퓨터 |    |    | 취침 |  |  |
| 24 | 해선  | 기상 | 등교      | 수업  |    |    |    | 합창 |    | 수업 |    | 귀가/TV시청/숙제/컴퓨터 |        |           |             |        |             |          |        | 취침        |    |    |    |  |  |
| 25 | 홍준  | 기상 | 등교      | 기도  | 수업 |    |    |    | 밴드 |    | 수업 |                |        |           | 밴드          |        | 귀가/악기연습/독서  |          |        |           |    |    | 취침 |  |  |

앞에서 지적했듯이 청소년들은 자신의 여가 시간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 미

리암이 이야기하듯 청소년들이 집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TV보기, 컴퓨터하기, 음악 듣기다.

<미리암> (집에선?) 음악 듣고, 컴퓨터 하고 보통은 다 컴퓨터하고... 싸이... (TV는 안 봐요?) 잘 봐요. 한번 틀고 이 프로 끝나면 또 다른 데 돌리면 다른 프로 하고 계속... 한번 틀면 계속 봐요. 안 볼 생각하면 아예 안 보는데 한번 TV 틀면 계속 봐요. 재밌는 게 끊이지가 않아.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평일에 하루 평균 3시간 정도고, 그나마 이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 학교 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1-2시간을 연습시간으로 이용한다.

또한 문화 활동 시간에서 청소년들 간 드러나는 차이를 살펴보면, 실업계 혹은 예술계나 대안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 인문계 청소년들 보다 많은 시간을 문화 활동에 할애하고 있다. 특히 대안학교나 예술학교는 학교 커리큘럼에 문화예술 교육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하루의 상당 부분을 문화예술 활동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를 진학·취업 등의 전망으로 삼은 청소년들의 경우도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문화 활동에 할애하고 있다.

<표 4-10> 서울 청소년들의 time schedule (토요일)

| 시간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01 |
|----|----|----|----|----|----|----|----|-------------------|----|---------|----|----|-------------|----|----|----|----|----|----|----|
| 1  | 수봉 | 기상 | 등교 |    | 수업 |    |    | 시설에서 방송교육         |    |         |    |    | 귀가/TV보기/컴퓨터 |    |    |    |    |    |    | 취침 |
| 5  | 지희 | 기상 | 등교 | 방송 | 수업 |    |    | 시설에서 연합회의 참가 및 교육 |    |         |    |    | 귀가/TV보기/컴퓨터 |    |    |    |    |    |    | 취침 |
| 6  | 창울 | 기상 | 등교 |    | 수업 |    |    | 시설에서 춤 연습(댄스학원)   |    |         |    |    | 귀가/음악듣기     |    |    |    |    |    |    | 취침 |
| 8  | 가람 | 기상 | 등교 |    | 수업 |    |    | 시설에서 연극 연습        |    | 친구만남    |    |    | 귀가/TV보기     |    |    |    |    |    |    | 취침 |
| 9  | 윤진 | 기상 | 등교 |    | 수업 |    |    | 시설에서 연극 연습        |    | 친구만남    |    |    | 귀가/TV보기     |    |    |    |    |    |    | 취침 |
| 10 | 지은 |    | 기상 |    | 휴식 |    |    | 시설에서 연극 교육 및 연습   |    | 친구만남/영화 |    |    | 귀가/컴퓨터      |    |    |    |    |    |    | 취침 |
| 11 | 진아 | 기상 | 등교 |    | 수업 |    |    | 연극 연습 및 공연        |    |         |    |    | 귀가/독서       |    |    |    |    |    |    | 취침 |
| 14 | 미리 | 기상 | 등교 | 자습 | 수업 |    |    | 아외 공연             |    |         |    |    | 귀가/TV보기/컴퓨터 |    |    |    |    |    |    | 취침 |

한편, 주말 청소년들의 타임 스케줄은 매우 단순하게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휴식을 취하는데 보내고 있다. 학교 동아리 청소년들이 주말에 행하는 일은 TV보기, 과제하기, 컴퓨터하기, 교회가기가 대부분이다. 반면 단체 및 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토요일 5-6시간을 문화 활동에 할애하고 있다. 그 외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영화관람 등과 같은 기타의 여가생활도 주말에 즐기고 있다(표 4-12 참조).

탈학교 청소년의 경우 일상의 주된 활동이 문화 활동이 되고 있다. 이들은 외부적으로 강제된 스케줄이 없고,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시간과 일을 결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검> 정기적으로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건 글 쓰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한겨레에 글 쓰는 것. 그 외엔 없는 거 같아. 그리고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하자에서, 다큐멘터리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한번 그 수업 들으러가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 집에 있을 때도 많고 내가 하는 프로젝트 관련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 그리고 영화공부하고 있으니까 영화 볼 때도 되게 많고 내가 대학로에 사는데, 연극 볼 때도 많고, 문화소비를 많이 하는 거 같아. 혼자서. 사람 많이 안 만나고..

문화활동가로서 스스로의 전망을 찾아나가고 있는 이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문화기획 및 문화비평과 관련한 활동으로 꾸려나가고 있다. 탈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에 참여하거나, 문화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프로젝트팀을 스스로 구성하거나, 다양한 문화기획 활동에 참여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에 일상에서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최대로 보장받고 있는 반면, 적당한 지원책이나 공간이 부재하기에 따르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특히 전망으로 삼고 있는 문화 활동과 자신의 생계를 보장할 ‘일’이 괴리되면서 겪게 되는 갈등도 만만치 않다.

## 2) 일상문화 · 놀이문화와 공간

사실상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라 할 만한 것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 놀이공간 역시

마찬가지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소비문화·소비공간이 청소년들의 놀이와 놀이터를 잠식한 이래로 청소년들은 마땅히 놀만 한 곳도, 놀만한 꺼리도 찾지 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행하고 있는 청소년들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시설 및 단체를 통해서 행하는 ‘문화 활동’과 친구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놀이문화’가 다른 것이다.

청소년들의 주된 놀이공간으로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명동, 동대문, 이대나 신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쇼핑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로 청소년들 역시 쇼핑을 목적으로 이 공간을 찾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는 놀이로는 노래방가기, 쇼핑하기, 식사나 군것질하기 등이 있다.

<지희> 변화가 같은데요, 예를 들면 동대문이나 명동이나 노원이나 성신여대 같은 데 가세요, 제가 청소년이라서 술을 먹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가서 밥 먹거나 노래방 같은 데 가거나 PC방 가거나 카페 가거나. 가끔 영화 보고 그럴 때도 있구요. (...) 되게 변화가구요, 변화가이고 놀기 전에 옷가게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프레아타운이나...웬만하면 옷 사러 자주 가는데, 옷 사러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보기에 청소년, 학생 애들이 많구요, 사람이 많고 번잡하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 때문에 가는 게 많구요. 아무래도 옷 가게 있고 애들이 많다 보니까 물가 같은 것도 싼 편이고요.

지희의 말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동대문이나 명동을 찾는 이유는 그곳이 변화가이고 또래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이다. 청소년이라서 마땅히 갈만한 곳도, 할 만한 것도 없는 그들은 단지 거리의 쇼핑물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상품을 구경할 뿐이다. 청소년들이 지적하듯이 이러한 현실은 현대의 문화공간이 모두 ‘성인을 중심으로’,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의 대부분은 ‘소비문화’가 중심이 된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문화활동은 여전히 일상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표 4-11> 서울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와 공간

| 번호 | 이름  | 학교지역     | 거주지     | 놀이공간           | 놀이문화             |
|----|-----|----------|---------|----------------|------------------|
| 1  | 수봉  | 동작구사당동   | 동작구상도동  | 명동,동대문,사당동     | 식사,쇼핑,노래방        |
| 5  | 지희  | 강북구미아동   | 의정부     | 동대문,명동,노원,성신여대 | 노래방,PC방,카페,극장,쇼핑 |
| 6  | 창울  | 서초구방배동   | 서초구방배동  | 공원             | 친구들과 대화          |
| 8  | 가람  | 서대문구북아현동 | 마포구     | 이대,신촌          | 노래방,보드카페         |
| 9  | 윤진  | 은평구대조동   | 은평구연신내  | 연신내,명동         | 노래방,쇼핑,연극관람      |
| 10 | 지은  | 구로구시흥동   | 서초구방배동  | 코엑스,명동         | 영화,식사,쇼핑         |
| 11 | 진아  | 강북구수유동   | 성북구장위동  | 명동(미지), 대학로    | 식사,노래방,영화,연극,공연  |
| 12 | 판   | -        | 종로구대학로  | 수유동, 대학로,홍대    | 영화관람,미술관,충추기,쇼핑  |
| 14 | 미리  | 금천구시흥동   | 관악구신림동  | 동대문,성신여대,이대,신림 | 카페,스티커사집,쇼핑,노래방  |
| 15 | 미리암 | 서대문구홍은3동 | 서대문구북가좌 | 교회             | 친구들과 대화,식사       |
| 21 | 태영  | 종로구혜화동   | 동대문구용두동 | 동대문            | 쇼핑               |
| 23 | 혜린  | 서대문구홍은3동 | 서대문구북가좌 | 명지대            | 식사,쇼핑            |
| 24 | 혜선  | 서대문구홍은3동 | 서대문구남가좌 | 이대,신촌,명동,동대문   | 노래방,식사,쇼핑        |
| 25 | 홍준  | 종로구혜화동   | 강북구미아동  | 학교 근처          | 식사               |
| 26 | 겸   | -        | 종로구대학로  | 대학로,안국,광화문,명동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학교 청소년의 경우는 소비위주의 청소년놀이문화에 대해 비판하면서, 다른 놀이문화를 고민한다. 하지만 공간 및 시설의 부재, 소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메커니즘 속에서 이들이 대안적인 청소년문화를 고민하기란 쉽지 않은 않다. 다만, 이들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NGO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 시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며, 그를 충분히 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판> (···) 그런 애길 해요. ‘우리는 욕하지 않냐, 그런 상업적인 문화 활동, 근데 정작 우린 뭘 하고 있냐’ 그렇게 화두를 던지면 그렇다면 대학로에서 우리가 돈 안들고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애길 했는데 별로 없어요. 뭐지? 티티엘존 가서 영화 보기. 마로니에 공원 가서 뛰어 놀기. 그래서 하나 정한 거는 마로니에에 자판기가 있는데, 종류가 많아요. 나름대로 ‘마로니에 카페’라고 해서 ‘카페 가자’ 그리고 문예진흥원 옆에 보면 미술관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데 거기 가서 보고, 공짜로. 창경궁, 창덕궁 가고. 한번은 마로니에에서 얼음땡도 했었어요. 애들 데리고. 그런 식으로. 특별할 게 없어요.

점이나 판은 그나마 자신들이 알고 있는 문화공간 및 시설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고자 한다. 소비문화에 대한 비판적 문화교육을 다양한 사회단체로부터 접한 경험이 있기에, 그들은 청소년들의 상업적 놀이문화에 거리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점이나 판이 이야기하듯이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현실로 옮기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자신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재미를 느끼려면 ‘돈’이 들고, 청소년시설 및 기관은 웃고 뛰어놀기에는 ‘재미’가 부족하다. 때문에 항상 불만을 터트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소비문화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한편, 소비 문화적 경향 이외에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특징은 문화의 편식 현상이다. 앞서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문화향수 실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청소년들은 영화를 제외한 여타의 문화 전시 및 공연 관람에 적지 않은 부담감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겸> 그렇지. 난 항상 보려고 했어. 패키지라도 보려고 했는데, 근데 당시 그 기간이 되면 돈이 사라지지. 돈이 바닥이 된 거야.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이런 데는 일반인이 접촉하기 힘든 곳이라고 느낄 거 같아. 왜냐하면 세종문화회관 건물을 봐도 되게 권위적이잖아. 무섭고, 왜 저렇게 크게 만들어야 될까, 상류층 사람들 위해서 만든 거 같아. 돈 있고 문화쪽으로 되게 깊게 관련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지희> 오페라나 연극이나 이런 거가요, 청소년의 시각적으로 보기엔 접하기 힘든 거라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보기에, 자기 문화가 원래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흰 어리니까 그런 걸 접하기에 좀 많이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접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데.

<미리> 일부러 간 적은 없고, 학교에서 숙제로 음악회 갔다 오는 이런 게 있어서 일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음악회 같은 거 보고 오고. 전시회 같은 거 보기도 하고 가족이랑 연극 같은 것도 보러가고. (...) 그게 저희 정서랑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요즘 애들은 다들 활발하고 발랄하고 그런데 그런데 같은 데 가면 왜 정숙! 조용하고 그러니까 잘 안 맞죠.

그들은 미술전시회, 연극, 뮤지컬 등의 문화예술에 대해 거리감이 든다고 이야기한다. 거기에는 여타의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겹이 이야기하듯이 그러한 문화예술을 행하는 공간이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느껴지거나, 특히 관람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 또한 지희가 지적하듯이 오페라나 연극과 같은 문화예술이 청소년들의 문화취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화예술 공연의 테마도 그러하거니와, 그 공연의 분위기 또한 너무도 정적이고 지루하다는 평가다. 때문에 미치는 학교에서 과제로 내주는 수행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미술전시회나 연극, 뮤지컬 등의 문화를 관람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답한다.

하지만 자신의 전망과 관련된 경우, 고급문화예술 관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문화예술 공연을 보다 많이 즐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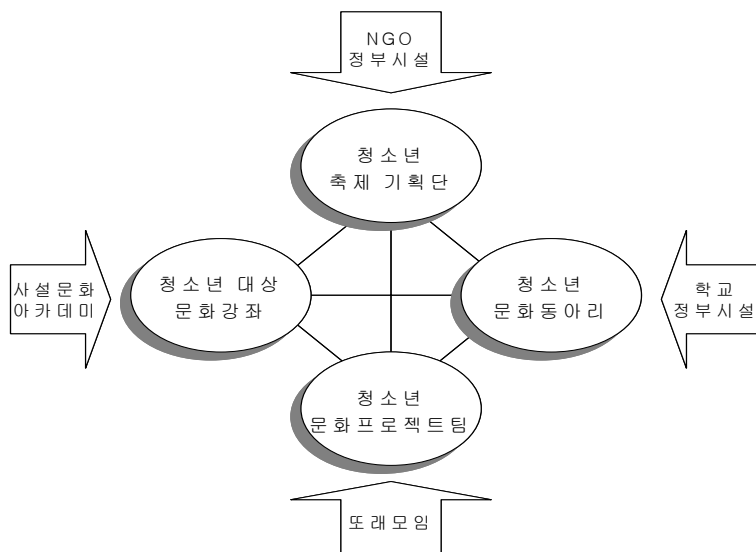
<지은> 청소년단체를 알기 전에는요 저도요 수행평가 그런 거(공연) 때문에 보러 다녔거든요. 근데 동아리 활동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니까 가게 되는 거 같아요. (연극은?) 일주일에 세 네 번씩 볼 때도 있구요. 되게 많이 보거든요. 대학 같은 데 요즘은 요 대학축제 같은 걸해요. 거기서 공연 같은 걸해요. 대학로에서요. 그런 건 다 공짜예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에게는 되게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매번 돈 내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고 같은 경우에는 공연에 할인 혜택을 또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가요.

연극을 자신의 전망으로 삼고 있는 지은과 같은 청소년들은 소위 고급문화라 칭해지는 문화예술에 관해 보다 많은 관람경험을 쌓길 원한다. 때문에 그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상당한 적극성을 보여준다. 특히 대학축제는 청소년들이 무료로 많은 공연들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하지만 그러한 기회 이외에 청소년들이 공연을 관람하기에는 관람료가 너무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이 연극관람에 흥미를 보이는 이유는 연극을 자신의 전망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연예술에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과는 달리 연극과 같은 문화예술에 친숙함과 흥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이는 지은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민간단체에서 접한 문화교육의 덕이라 할 수 있다.

### 3. 청소년의 문화활동 내용과 만족도

#### 1) 문화활동 유형과 내용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문화 활동 크게 ‘동아리 활동’, 축제기획단이나 영화기획단과 같은 ‘청소년문화기획단 활동’, 그리고 청소년들만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문화프로젝트 팀 활동’, ‘사설학원이나 개인레슨을 통한 문화 활동’ 등으로 이루어진다(그림 4-9).



<그림 4-9> 서울 청소년들의 주체적 문화활동 유형

동아리 활동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기획단 활동은 청소년 민간 단체나 정부운영 청소년 시설에서 기획·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민간재단이나 기업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문화프로젝트 팀은 청소년들만의 또래모임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가 동아리 활동이나 기획단 활동으로 청소년 문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 동아리의 경우 정기연습이 주된 활동이며, 학교 공간을 이용한다.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서 1-2시간 정기연습을 행하고, 때때로 학교축제나 외부 행

사에서 공연을 벌이기도 한다. 특히 학교 동아리가 학교 밖 시설 및 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 청소년들은 보다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이나 공원에서 정기적으로 공연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문화영역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받기도 한다. 발표의 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문화교육의 기회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내 동아리들은 이러한 기회 혹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풍물, 영상, 밴드, 방송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동아리이고 그 밖에도 합창, 마임, 연극부 등이 있다.

청소년 문화시설이나 청소년 민간단체의 경우, 여기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띤다. 관심분야의 청소년들이 모여 동아리를 구성하거나 혹은 이미 구성한 동아리들이 시설 내 연습공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한 예다. 그리고 또 다른 양상은 축제기획단과 같은 문화기획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청소년들은 스스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수봉> 저희 서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시나리오를 짜구요 저희가 직접 콘티도 짜면서 촬영도 같이 하고 편집도 저희가 직접 다 하고 말 그대로 저희가 영상을 직접 다 찍는 거데요 단편도 찍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다 하는데요. 축제 때 영상제를 해요, 저희 학교에서.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른 학교도 불러서 저희 영상제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현재 ‘환경’을 주제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는 수봉의 이야기처럼 청소년 문화시설이나 청소년 민간단체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성’에 있다. 그들은 정기적인 기획단 회의를 통해 축제의 주제 및 형식을 정하고, 지역 내 혹은 시설·단체 내 청소년 동아리들과 함께 축제의 공연내용을 기획하며, 전체적인 사업진행 및 홍보를 직접 담당한다. 여기서 청소년들이 얻게 되는 가장 큰 경험은,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활동 혹은 사업진행을 통한 보람과 자신감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행하고 있는 문화 활동의 전망을 구체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게 된다. 이는 입시 중심의 학교 커리큘럼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즐거움과 재미기도 하다.

더불어 또 한 가지 특이할만한 점은 청소년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 활동의 연장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의 역할을 고민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후배들을 좀 키우는 멘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판은 2년간의 축제 기획단 경험을 살려, 이제 막 20살이 넘는 청소년들과 중·고등학생 기획단을 연계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또래모임의 구성을 의미한다. 자신들의 문화 활동 과정을, 그리고 그를 통해 얻어낸 활동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고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나 시설 혹은 단체 밖 또래모임의 경우, 그들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문화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대학로 혹은 동대문과 같은 거리무대를 활용하여 문화 활동을 행한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끼리 모여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비슷한 관심을 지닌 또래 동호회를 구성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마땅히 소속된 기관 및 단체도, 성인 지도자도 없기 때문에 활동의 양상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적극적이다. 자신들이 참여하게 되는 문화프로젝트 사업의 진행과정에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검> (...) 영화제 기획을 두 번 정도 했었어. <\*\*영화제>랑 <\*\*\*\*페스티벌>이라고, 그 두 개를 기획했는데, 내 생각에 너무 안타까웠던 게, 내가 여기서 한 게 예전에 내가 청소년 모니터링 했을 때처럼 이런 거 하는 것도 무슨 하위기관에서 하는 거였어. 청소년 자치모임이 아니라. 그런 데서 하니까 내가 느껴지는 게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일을 다 맡으면서 우리에게 주도권을 준다는 식으로 애길 하지만 주도권은 사실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 같은 거야. 무슨 청소년 일을 하는 게 그 단체를 빗낼 수 있는 옵션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 같은 거야. 우리 자치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이익에 맞게 우리를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이미 지적했듯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즐거움’과 ‘재미’다. 특히 학교 밖에서 문화 활동을 행하는 청소년들은 학교나 가족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얻지 못했던 새로운 인간관계와 주체성을 문화 활동을 통해 확보하고자 한다. 때문에 그러한 욕구가 만족되지 못했을 경우, 청소년들은 아무리 청소년을 위한 문화 사업이라 해도 비판을 서슴지 않

는다. 검이 지적하는 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청소년 문화사업이 프로그램과 시설 뿐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가 고민되어야 한다는 점, 특히 성인과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의 위치와 역할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2) 문화활동 참여계기

청소년들은 문화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꼽았다. 친구·선생님·선배의 권유로, 여타의 문화예술 경험을 통해 문화적 욕구를 자극받아서, 같은 또래나 청소년단체의 문화행사를 보고 관심이 생겨서, 기존에 활동하던 단체의 네트워크로 다른 문화 활동이 연계되어서. 이와 같은 참여계기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화공간 및 문화 활동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헤린>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일학년 때였는데요 2학년 선배가요 막 그냥 하라고 해서 얼떨결에 오디션을 봤거든요. 그런데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되게 즐거워보이고, 선배후배 이런게요... 그래서 했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점점 오기도 생기고 종교도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고 그래서 많이 닮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른 서클 활동 하는 것보다 더 맞는 것 같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진짜 재밌어요. 이거 안 했으면 정말 후회했을 것 같아요. 진짜 막.

현재 학내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헤린은 선배의 권유로 동아리에 가입하게 된 경우이다. 그녀처럼 학내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많은 경우 선배의 권유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학교 수업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색다른 기쁨과 재미를 느끼고자 한다. 즉 단순히 공부만 하는 또래 친구들과 ‘구별 짓기’를 하고 싶어 한다. 더불어 선·후배 관계 역시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한편, 지은의 경우는 좀 다른 계기를 통해 문화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은> 저는 지금 \*\*에, 극단에서 지금 제가 제일 오래됐어요. 2년이 넘었거든요. 그동안 연극이라는 걸 제가 맨 처음에,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 제가 처음으로 뮤지컬을

보구요, 어린이 뮤지컬을 보구요 제가 연극이라는 거에 되게 매력을 느꼈었어요. 그때부터 좀 어린 나이잖아요. 나도 문화 활동을 하고 싶고 연극을 하고 싶었는데, 학교에 서는 연극동아리 같은 데는 지원이 너무 없어서 외부에서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3 때 여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지은은 어린 시절 겪었던 문화향유 경험이 자신의 취향과 관심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이다. 지은은 현재 청소년 민간단체에서 연극을 하고 있다. 자신이 관심 있는 연극을 하고 싶었지만 학교 내에서는 그러한 욕망을 채울 수 없었다. 그 와중에 지은은 청소년 연극단이 있는 청소년 민간단체를 친구로부터 소개받았고, 적절한 문화교육과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 연극단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진아는 또래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보고 관심이 생긴 경우이다.

<진아> (...) 되게 놀랐어요, 처음에 보고, 처음에 거짓말인줄 알았어요. 청소년들이 축제를 기획을 했대요. 축제를 기획하고 동아리들을 섭외하고 그걸 했대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저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했는데 자전거에 연막탄 같은 거 들고 오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 솔직히 청소년들이 놀만한 데가 없잖아요. 수련관 그 구에 몇 개나 된다고 거기 일일이 다니면서 놀 수도 없는거고, 거기 가도 그렇게 놀만한 거는 없고. 그래서 하루 축제라도 그렇게 즐거운 게 좋았고 다녀간 사람들도 계속 재밌었다고 말을 해주고 하니까 좋았었죠.

진아는 우연한 기회에 접한 청소년 축제를 통해 문화기획단에 참여하게 된 경우이다. 특히 자신의 또래가 직접 기획하고 활동하는 청소년축제는 진아에게 나름의 충격이었다고 한다. 마땅한 놀이공간과 놀이문화가 없는 상황에서, 학업에만 열중하도록 강요하는 한국적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만의 ‘축제’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색다른 경험이자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계기는 이후에 진아가 문화 활동을 자신의 전망으로 삼는데 까지 영향을 미쳤다. 진아는 이 계기를 통해 축제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 연극단에 가입하였으며, 현재에는 문화예술교육을 주요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

### 3) 문화활동 만족도

이와 같은 주체적 문화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긍정성을 발견하고 있다. ‘또래문화 형성을 통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형성’, ‘공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 및 색다른 경험’, ‘다른 또래들과의 구별 짓기를 통한 자신감 획득’, ‘주체적인 문화 활동 경험을 통한 자율성과 적극성 자각’, ‘진로 및 전망에 대한 도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청소년들의 상황과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탈학교 청소년들의 경우는, 문화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긍정성으로 평가된다.

<검> 나한테는 중요한 건 삶을 바꿀 수 있는 거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불만에만 그쳤던 문제의식들을 현실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게 나한테 정말 좋고. (...) 내 고민들 풀 수 있는 데가 생기니까 너무 좋고. 탈학교생들은 그런게 되게 부족하거든. 소속감 이런거. 자기 커뮤니티가 없다는 거. 소속감이라고 해서 학교나 가족 같은 집단주의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학교를 나왔을 때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나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힘든 거지. 소속단체라는 게 자기를 항상 보호해 주고 자기를 긍정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특히 또래집단은 상당히 중요하다. 대부분 고민과 소통의 상대가 또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학교 청소년들은 많은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 학교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좀처럼 또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따라서 검이 지적하듯이 문화 활동을 통해 만나게 되는 친구들은 매우 소중하다. 부연하자면 같은 문화적 관심과 욕구를 지니고 있는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문화 활동의 장이 중요하게 다가오며, 그 까닭에 현재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문화 활동의 긍정성을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획득에서 찾고 있다.

학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마찬가지로 선·후배의 관계를 비

롯한 인간관계의 돈독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그보다도 그들은 다른 청소년들과의 ‘구별 짓기’를 통한 자신감 획득이 문화 활동을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보물이라고 이야기한다.

<헤린> 공부만 하는 애들보다 특별한 거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 누구나 똑같이 공부만 하는 것보다 나는 좋아하는 거 하면서...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게...공부에서 못 느끼는 즐거움 같은 거...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의 즐거움...공부는 자기가 해서, 나중에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쯤 강압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취미활동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강압적인 거에서 좀... 그럼 즐거움 같은 걸 취미활동에서 느낄 수 있을 거 같아...

헤린과 같이 학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 공부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커다란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많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에 억압을 느낀다. 더구나 ‘성적’을 중심으로 질서지워지는 학교체제는 ‘모범생’ 중심으로 돌아간다. 때문에 모범생이 아닌 청소년들은 언제나 뒤처지게 마련이다. 여기서 다른 또래 청소년들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소위 ‘틸 수 있는’ 방법이 모범생들이 지니지 못한 색다른 ‘문화자본’을 획득하는 길이다. 헤린이 “공부만 하는 애들보다 특별한 거 같아요”라고 답하는 것도, 홍준이 “건전하면서도 되게 화려하게 즐거운 생활을 하는 거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태영이 “제 친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경험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것도 모두 또래와의 ‘구별 짓기’를 통해 얻게 되는 자신감과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반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공부를 통해 얻지 못했던 성취감, 즉 스스로 선택하고 몰입하고 이루어내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을 청소년들은 문화 활동을 통해 얻고 있다.

특히 자발성과 자율성이 가장 중요한 특징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문화기획단 활동 청소년의 경우는 그러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얻게 된 ‘성취감’과 ‘만족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관> (...) 그런 면에서 청소년들도 분명히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힘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힘이 있는데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거죠. 하여튼 청소년

들도 힘이 있다, 라는 걸 깨달은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거 같구요. 가장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건 인생을 사는데 스킬도 많이 얻었구요,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자리에서도 스킬이란 걸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또 기획 면에서 꼭 문화기획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기획도 할 수 있는 거고 (...).

이미 살펴보았듯이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존재라기 보다는, 보호하고 육성해야할 존재로 간주되어왔다. 그 까닭에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을 주체적으로 선택·결정하고 해결하는 데 서툴다. 언제나 성인들이 청소년들의 문제와 고민을 대신 이야기하고 다루어왔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역량을 실험하고 실현시킬만한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관심, 취향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기획하며, 실현시킬 수 있는 문화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기쁨과 만족감을 준다. 나아가 학교 이외의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가 전혀 없던 청소년들에게 타인과 혹은 사회와 관계 맺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진아> (...) 수요일마다 이 특수반에서 연극 수업을 하거든요. 보조교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정말 좋다는 걸 많이 느껴요. 처음 봤을 때는 거기가 다운증후군이나 자폐나 정신지체나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한 열 다섯명 정도 됐거든요. 처음엔 굉장히 조용했는데, 갈수록 먼저 ‘선생님’, 와서 인사하고 그럴 때마다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솔직히 내가 거기 처음 갈 때 두려웠거든요. 근데 애들이 오히려 다가와서 되게 많이 배웠고 또 하는 과정에서 애들이 점점 나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니까 나도 기분 좋고 애들도 기분 좋으니까, 연극이라는 게 꼭 남에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처럼 하면서 뭔가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꼭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었어요.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있어 문화 활동은 스스로의 가능성과 역량을 실험해보고 확인해보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성적으로 평가받는 획일적인 가치체계 속에서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 자신감과 보람을 얻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로 틀 지워진 생활공간을 벗어나 폭넓은 사회·문화 경험을 함으로

써 사람들과 혹은 사회와 ‘관계 맺기’의 방식을 터득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세대간 갈등, 개인주의적인 아이들, 이해할 수 없는 청소년들 등으로 우려만 늘어놓고 있는 요즘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부분이다.

## 4. 청소년의 문화활동 장애요인과 문화욕구

### 1) 문화활동 장애요인

문화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얻고 있는 만족과는 상관없이, 사실상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학생’으로 대표되는 청소년들의 정체성이 ‘학업’만을 의무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및 공간, 프로그램, 교육 등이 상당히 부족하다. 최근 청소년 ‘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청소년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취향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모든 요인은 청소년 문화 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 문화 활동의 제약요인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 (1)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대한 사회 인식의 부재

교사나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체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모범적인 ‘학생’이 되길 원한다. 때문에 학업 이외의 활동은 대학입학 후이나 허락될 수 있는 사치로 간주된다. 그 만큼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은 ‘탈선’ 행위가 되고, 주체적 문화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문제아’가 되곤 한다. 이는 탈학교 청소년들이 자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교외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대외적인 문화 활동을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아> 학교나 그런 데서 말하는 게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너 그거 해서 대학가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 대학을 가야한다, 라는 게 한국 사회의 통념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 그거 해서 대학갈 수 있겠어?’ 이런 식으

로 말씀하시는 거 보죠. 그럴 때 아, 정말 나는 대학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즐거워도 좋지만 같이 즐거우면 더 좋은 거잖아요. 난 그러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그렇고. 같은 청소년인데도 그렇게 말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거  
해서 대학 수시 넣을 수 있대?’ 이런 식으로 애길 해요. 어, 나는 그게 아닌데. ‘야, 너  
그거 수시 넣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나는 하고 싶어서  
했는데 보는 사람들은 저거 수시 넣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거. 그런 게  
되게 싫었고 청소년이라고 해서, 해야 되는 일하고 안 되는 일 구분하는 거 너무 싫었  
어요. (…)

<윤진> 저는요 이런 문화공간에 들어 왔을 때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의 허락  
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몰래 다닐 수만은 없잖아요. 부모님이 문화공간이나 외부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애가 딴 데로 세는 거 아닌가, 나쁜 길  
로 들어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나쁜 문화도 있잖아요, 청소년의 나쁜  
문화. 그런데 부모님은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 나쁜 문화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 좀 그런 시각을 바꿀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나  
그런 시설 같은 거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 (2)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  
분을 자비를 들여 충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모님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문화 활동  
에 필요한 기자재, 연습 공간 및 시설, 공연에 들어가는 여타의 비용에 대해 전혀 지  
원이 없다. 학내 청소년 동아리를 지도하는 한 교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30개가 넘  
는 학내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 동아리들을 위한 예산 책정은 불과 몇 십 만  
원에 불과하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명목 하에 동아  
리 구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활동에 소요되는 여타의 지원에는 무관심한 것이다.  
따라서 동아리를 구성하고 그 활동에 참여한다 해도 실질적인 활동과 운영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지원 부재는 청소년 문화 활동을 교과 과정 이  
외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미리>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아주 안 좋은 데는 단복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공연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맞춰서 입기도 하고, 큰 공연 같은 건 대여 같은 거 해서 입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단복 있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응원부 같은 거 보면 막 부츠 신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부러운데, 저희 학교는 부츠 신게 못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개인 사비로 신발을 다 맞춰어요, 스포리스 가서 단화, 제일 싼 걸로. 그렇게 해서 하니까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돈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비 많이 나가니까 싫어 해요.

### (3) 문화교육의 부족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문화 활동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길 원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문화교육을 책임져야 할 학교는 문화교육에 무관심하다. 심지어 학내 동아리 역시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공간이 아니다. “선생님이 하셔도 그런 악기는요 다 하실 수 없으니깐요.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해요. 뿔을 때 아예 악기 같은 건 오디션을 보고 올라오고요”라고 이야기하듯이, 학내 동아리는 이미 습득된 기량을 지닌 청소년들이 모여드는 공간이 되고 있다. 특기 적성 교육이 따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는 학교는 거의 없다. 대신, 학교 내에서 부족한 문화교육은 동아리 내 선배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교 내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용을 학생들이 일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커리큘럼 내 문화교육이 부족한 것과 더불어 문화예술 담당교사의 전문성 부족 역시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 밖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진아가 지적하듯이 청소년 문화교육의 문제는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이며, 커리큘럼 및 강의시간 그리고 강의 수준이 성인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싼 교육비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문화 교육에 대한 욕구 때문에 청소년들 대부분이 사실 학원이나 개인레슨을 받아오고 있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단순한 취미활동으로 강습이나 레슨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진학과 연관된 입시학원을 다니는 한에서만 문화예술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있다. 입시에 대한 부담감과 비싼 수강료로 인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진학과 상관없는 문화 활동은 포기하기 때문이다.

<판> 여유가 있으면 자주 다니죠. 근데 그런 것 또 비싸요. (그럼 비용이 가장 큰 문제네요?) 그렇죠. 정작 문화기획교육이나 축제기획교육이나 이런 거 받고 싶어도, 분명 일반 청소년들 중에 그런 애들 있을 거라구요, 너무 비싸요. <한겨레 21>에서 하는 문화기획교육 보니까 그건 백 몇 만원하더라고요.

<진아> (...) 그러니까 고등학생 신분으로 연극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기가 힘들어요. 방송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거의 강의가 오전이니까 솔직히 학교 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혼자 연출 이론이나 책 같은 거 보면서, 아, 이런 점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선배님들이나 연출님이나...들으면서 알지, 솔직히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는 방학 때 이외에는 굉장히 배우기가 힘들어요. (...)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시설이 부족해요. 청소년들이 배울만한. 연극도 그렇고. 만약 음악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학원들은 부지기수로 널려 있는 거지만 연극 같은 경우는 방송국마다 방송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그것도 시간은 오전이고 굉장히 높은 클래스여서 연영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듣는 경우가 훨씬 많고, 기존에 그런 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듣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초자들은 아, 내가 이거 배워야지, 하면서 딱 같은데 너무 어려워서 못듣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인도 그런데 청소년들은 이해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제일 낮은 클래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돈데, 만약 청소년들이 이런 거 배우고 싶다고 하면 전문적으로 배울 데가 없거든요. 그런 점들이 되게 아쉬웠어요. 다양한 걸 할 수 없는 게. 시간대도 안 맞을뿐더러 모든 게 성인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청소년들이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시설도 별로 없고.

#### (4) 문화시설과 활동기회의 부족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 활동 성과물을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과 자신들의 기량을 기를 수 있는 안정된 공간이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더불어 학교 내 커리큘럼에서 문화 활동의 비중이 지나치게 작다는 점 역시 장애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과 학업과의 병행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즉, 문화 활동과 수업을 대립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규 수업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비중

을 충분히 늘려가야 한다.

<홍준> 장애가 있다면 더 외국보다는 더 공연 같은 기회가 공연장소가 그렇고 기회 같은 게 많이 안 주어지는 거 같아요. 부러운거 같아요. 가까운 일본만 같아도. 저희가 일본에 갔었거든요. 대화 통해서 1등을 해가지고 일본에 \*\*\*페스티벌이라구요 20년 정도 계속 되는 페스티벌인데 거기에 저희가 축하공연으로 참석했었는데.. 거긴 보니까 고등학생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무대 같은 거,, 악기 음악 시설이 아주 일류급으로 엄청 좋은 시설도 좋고, 관객들도 가수 공연처럼 관심을 갖고 많이 오고요...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스태프도 이렇게 자원봉사로 뽑아서 하는데... 되게 부러웠어요..

<홍준> 수업만해도요 티비 같은데 보면은 외국에서는 저희 같은 교과과목은 오전시간에 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특활활동이라던가 이러던데.. 저희는 오후시간까지... 보통 다른 학교는 8교시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솔직히 지치거든요... 쓸데없이 수업시간이 길어가지고

#### (5) 기존 청소년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문제

이는 현재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평가이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들은 홍보의 부족, 성인을 중심으로 편성된 프로그램과 이용 시간대, 형식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사업진행방식,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지역내 네트워크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단, 청소년 문화 공간이 갖는 차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평가 지점은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현재 청소년 민간단체에서 축제기획단 활동을 하고 있는 가람은 기존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홍보의 부족’을 이야기한다. 특히 청소년 민간단체의 경우 인력부족,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체계적인 연계망 부재로 단체의 사업 및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힘들다.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가람이 이야기하듯이 자신은 우연한 기회에 운 좋게도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가람> 네. 저희 반만 해도 저 밖에 없어요. 학교에서도 대부분 어땀어땀한 것이 좋다 그러면 홍보를 해주면 좋을 텐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도요 솔직히 그런 데 잘 안 들어가잖아요. 지나가다가 홍보 전단 같은 게 붙어 있어도 잘 안 보고 지나가는데.

한편, 진아는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한 지역 내 청소년 수련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녀는 수련관의 다양하지 못한 ‘형식적 프로그램’,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련관 운영실태 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는다. 수련관 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청소년 전용공간화의 어려움은 누누이 이야기되어져 왔다. 청소년 수련관 혹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그들의 놀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지역사회 내 역할에 대한 재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 프로그램 및 재정에 대한 지원책 역시도 고민되어야 한다.

<진아> 시설은 굉장히 좋은 데 프로그램들이 뻥해요.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해봤자.....특성화된 게 없거든요. 굉장히...뭐라 그럴까, 형식적인 것 밖에 없는 거 같구요, 수련관들도 전부 다 활동적인 건 아니고 몇몇 군데군데 지역만 활동적인 것뿐이지 다른 데 굉장히 형식상 있는 것 같아요. 장소 필요하면 그냥 대관해주고.. 수련관이란 게 서울시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다양한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도 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청소년수련관도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용 시간이 성인 중심이에요, 항상. 성인클래스는 전부 있는 데 청소년클래스는 별로 없어요. 겉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이라고 해놓고 유지비 벌어야 되니까 그런 건진 잘 몰라도 청소년 보다는 성인 중심의 그런 게 훨씬 더 많아요.

검과 판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앞서 이미 이야기한 바 있듯이 청소년들은 문화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 사회참여의 즐거움을 느끼길 원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청소년 문화행사가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와는 상관없이 ‘행정적’ 절차만을 중시하고 ‘성과 및 결과 중심’의 사업진행과정을 지닌다. 이에 대해 검은 성인이 주도

함으로써 실질적인 청소년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방식에 대해, 판은 ‘결과 중심적’인 사업기획에 대해 비판한다.

<검> (···) 그래도 거기도 역시 약간 졸속 식인게 느껴졌어. 되게 막 서두르는 감, 서두른다는 게 행사 얼마 안 남아서 청소년 막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빨리 빨리 와서 해 달라. (···) 사실 우리한테 주도권 되게 많이 주긴 했지만 되게 뒤에 결합했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그 행사를 처음부터 준비한 \*\*\*\* 센터의 어른들이었고, 성인 활동가였고, 그런 사람들이 행사 때는 결국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지.

<판> (···) \*\* 챔피언이라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각 지역마다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즐기기 위해서 만든 축제라고 하는 그런 대회가 있어요. 축제라고 말을 해요, 개네는. 저는 대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면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앞에는 심사위원들이 앉아있어요. 펜을 들고 탁 이렇게 보고 있구요, 동아리 애들은 만에 하나 틀리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에 떨어요. 보는 애들 자체도 절대 즐기려고 하지 않고 유심히 봐요. 재가 일등 할까? 아냐, 재네 정말 못하네.. 이러면서. 근데 정부에서는 그런 거를 청소년문화 활성화, 청소년들의 문화를 정말 다 같이 즐기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결과주의적 이잖아요. 우리가 노력한 과정을 보지도 않고, 다만 그 무대에서 몇 초, 몇 분 동안에 그런 결과만 보고, 상금을 주고 애들은 그걸 좋아하고, 애들은 그걸 보면서 ‘재가 잘했네, 재가 1등 하겠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결과주의적 인거잖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장애 요인을 요약하면 <표 4-14>와 같다. 청소년이 존재하지 않는 청소년 문화행사, 청소년이 찾지 않는 청소년 문화시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상에서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 문화 활동의 장애요인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여, 올바르게 개선되어야 한다.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고, 청소년들의 참여와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표 4-12> 서울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장애요인

| 번호 | 이름 | 문제점                                                                                                                                                                                   |
|----|----|---------------------------------------------------------------------------------------------------------------------------------------------------------------------------------------|
| 8  | 가람 | *청소년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부족, 종합적인 정보수집의 채널이 부족<br>*학교와 시설과의 연계부족으로 학교 내에서 정보수집이 어려움                                                                                                     |
| 10 | 지은 | *청소년문화의 집은 시설미비, 담당 책임자의 의지 부족, 청소년들과의 소통 부족                                                                                                                                          |
| 11 | 진아 | *청소년 수련관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을 중심으로 편성된 프로그램 및 이용시간대, 수익사업 중심으로 운영<br>*공간 대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br>*청소년시설 및 기관의 활성화 정도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 12 | 판  | *형식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청소년 시설의 사업 방식, 결과중심적인 청소년 문화행사<br>*청소년문화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부족, 때문에 청소년문화시설이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운영<br>*청소년문화시설 내 청소년 전문가 부재                                                           |
| 14 | 미리 | *소비문화공간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놀이 공간 부족<br>*저렴한 비용으로 놀 수 있는 공간 부족, 청소년 놀이문화에 대해 금지와 통제의 사회적 태도                                                                                                    |
| 19 | 윤호 | *문화의 집과 같은 청소년 문화시설 부재, 타 지역 문화의 집 사용 어려움                                                                                                                                             |
| 21 | 태영 | *문화의 집과 같은 공간에 갇혀져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이 한정적, 다양하지 못함<br>*홍보 부족으로 공간 및 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그다지 많지 않음                                                                                                |
| 23 | 혜린 | *성인 중심으로 놀이시설 배치, 청소년들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들을 모방                                                                                                                                          |
| 26 | 검  | *기존 NGO에서 진행하는 청소년문화 프로그램은 성인활동가와 수평적인 관계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br>*성과위주의 사업진행방식,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기보다는 행사에 동원<br>*청소년들의 참여도 미비,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음<br>*문화의 집과 같은 청소년 문화시설이 공간적으로 너무 권위적임 |
|    | 교사 |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부족,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즌 시설 부재, 지역간 네트워크 부재                                                                                                                                  |

## 2)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및 문화욕구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원하는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혹은 문화 환경은 어떤 것일까. 청소년들은 문화 환경 개선 및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표 4-15>와 같은 점들을 꼽는다.

<표 4-13>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 욕구

| 번호 | 이름  | 개선점/ 제언                                                                                    |
|----|-----|--------------------------------------------------------------------------------------------|
| 1  | 수봉  | *문화 활동 기회 부여, 청소년 문화시설 및 기관 마련<br>*폭넓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 유도                             |
| 5  | 지희  | *청소년 할인 혜택,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및 공간 마련                                                           |
| 6  | 창율  | *복지관을 비롯한 지역 내 문화시설 마련<br>*청소년 문화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지원책 마련                                 |
| 8  | 가람  | *폭넓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 유도<br>*문화적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기회 제공                           |
| 12 | 판   | *청소년 문화 및 청소년 축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br>*청소년 문화 사업에 있어 전문가 배치<br>*청소년 문화정책에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참여   |
| 14 | 미리  |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 마련                                                              |
| 15 | 미리엄 | *청소년을 위한 놀이 공간 마련, 복합적인 문화센터 마련                                                            |
| 21 | 태영  | *청소년 문화 활동 및 공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br>*문화 활동 및 공연을 위한 청소년 공간과 기회 마련                            |
| 23 | 혜린  | *학교 커리큘럼에서 문화 활동을 위한 시간을 보다 많이 배정                                                          |
| 25 | 홍준  | *학교 근처 혹은 집 근처 청소년 문화시설 마련, 접근성 강화                                                         |
| 26 | 검   | *청소년 문화정책에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참여<br>*교외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 자치모임 활성화<br>*청소년문화시설을 지역적으로 재배치, 지역 중심으로 운영 |

요컨대, 청소년들이 원하는 정책은 크게 아홉가지 즉, ‘청소년 문화 활동에 관한 사회인식의 변화’, ‘청소년 전용공연시설을 비롯한 문화시설 및 공간 마련’, ‘청소년 문화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채널 구축’, ‘문화예술 관람에 있어 청소년 할인제 확대적용’, ‘문화 활동에 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문화교육프로그램 제공’, ‘학내 문화 관련 커리큘럼 확충’, ‘청소년 문화와 관련한 성인·청소년 전문가 양성’,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및 정책 참여 기회 확보’, ‘시설 및 교육체계의 지역 중심 재배치를 통한 문화접근성 강화’ 등이다.

<검> <하자>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것들은 지역 중심이 되어야 하지. 그런 자기 지역 내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 같아. 아직 시작이라서 그렇지만 앞으로 그렇게 돼야 청소년 자치 활동이 보장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니까.

<판>(…) 청소년계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그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왜? 청소년들의 문화, 청소년들의 교육 정책은 청소년들이 전문가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들이 전문가가 되는, 또는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해야만 저는 그게 전문가 집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생겨나야 될 것 같아요.

<진아> 지금 청소년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들이 즐길 공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야기거나... 그런 걸 정리를 해서 문화달력처럼 보여주는 것, 어느 청소년 수련원에서 어떤 문화행사를 한다더라, 이런 거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서 사이트를 만들거나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걸 많이 했으면 좋겠고 서울시 정책에 필요한 뭔가가 있을 때 높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들이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진아> 연극이나 공연 같은 것도 요금이 되게 비싸요. 청소년들 입장에서 연극 같은 거 한 번 보려면 큰마음 먹고 봐야 되거든요. 할인티켓이 있긴 하지만 ‘캐츠’나 이런 큰 공연들은 며칠, 며칠이 아니라 몇 개월을 돈을 모아서 보러가야 할 만큼. 문광부에서 청소년증을 만들어서 할인하고 있긴 하지만 전 그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단체나 청소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투자를 서울시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은 더 이상 ‘사치’나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문화’는 청소년들이 타인들과 혹은 사회와 관계를 맺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다. 그들은 문화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공동체 의식’이나 ‘자율성’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배워나간다. “교과서에 없는 그런 노하우를 되게 많이 배우게 됐고, 내가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는 진아처럼 입시 위주로 배치되어 있는 학교질서 속에서 학업을 통해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문화’의 장을 통해 얻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문화 활동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전망을 세워나가는 데

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청소년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도 뭔가 해 보는게 제 꿈이에요. 그렇게 단체를 만들면 영화, 영상, 노래, 음악, 축제 등 청소년들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많잖아요”라고 말하는 판처럼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표현하길 원한다.

### 제3절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사례

서울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현황 및 욕구를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한정된 시설 및 자원과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 및 기관을 특성에 맞게 적절히 연계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상당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시설 및 기관이 보유한 자원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지역 내 다른 시설 및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청소년 문화 사업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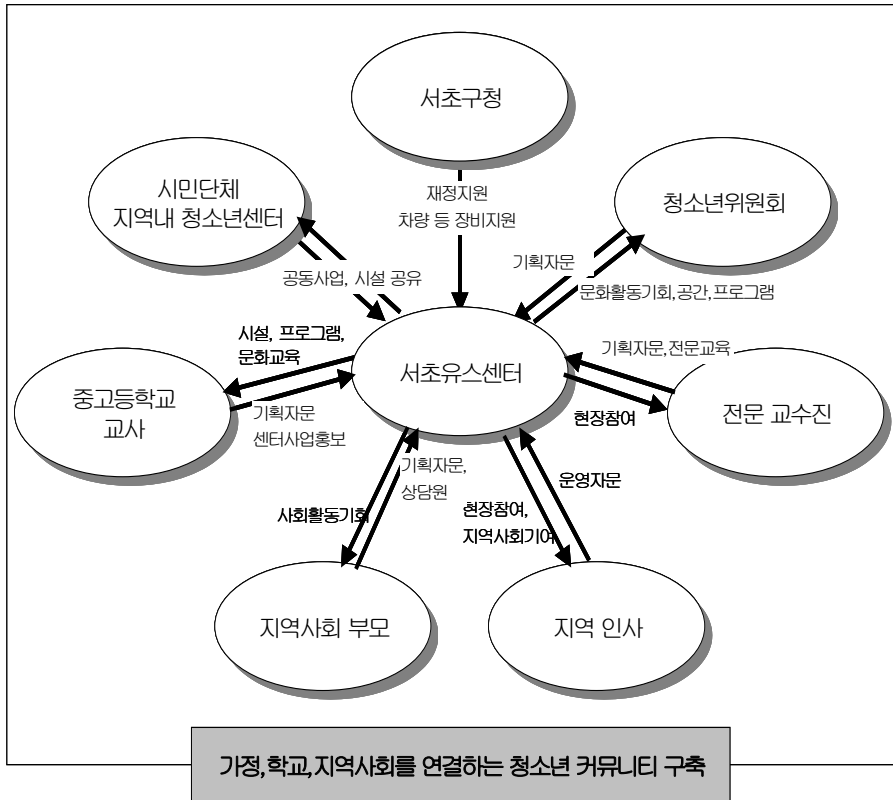
따라서 이 절에서는 서울 및 타 지역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모델 사례들은 각 지역의 특성과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자원에 따라,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의 주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 1. 서초구 ‘구립 서초 유스센터’ 모델

‘구립 서초 유스센터’가 주체로 구성된 네트워크 모델은 주로 인적 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003년 하반기에 교사·학부모·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초구 지역 욕구 조사 및 평가를 통해, 서초 유스센터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위촉하였다. 먼저 학교 교장단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를 위촉했으며, 교수와 같은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의 모임과 학부모 모임을 구성했다. 또한 청소년 위원회 역시 발족했다. 그 결과 현재 총 5개의 위원회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지역 내 타 청소년 시설, 서초구청과도 연계되어 있다.

이처럼 서초 유스센터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로 프로그램 및 운영에 관한 자문, 교육·상담을 위한 인력풀을 형성하고자 한다. 서초 유스센터가 내세우는 네트워크 구성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 및 지역사회 청소년운동 전개, 서초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한 학교와의

유대관계 강화, 지역 내의 탄탄한 인적구성 인프라 활용, 각 분야별로 전문가 확보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 전개,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21세기형 청소년시설 모델 제시 등이다.



<그림 4-10> 구립 서초 유스센터 네트워크 모델

서초 유스센터가 구성한 네트워크 모델의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인근 중·고등학교 교장단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는 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때때로 교육이나 사업의 진행을 도와준다. 특히 CA이나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같은 학교 연계사업을 공동으로 기획·추진한다. 둘째, 구 의원이나 지역인사들의 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 내 자원을 동원하거나, 센터 사업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지역 내 대학교의 청소년

관련 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프로그램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며 직접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교사가 되기도 한다. 넷째,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전체적인 문화 사업에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모임은 센터 내 상담프로그램에서 상담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에서 상담을 맡고 있다. 그리고 구청은 각종 재정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다른 시민단체 및 청소년단체와는 공동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이와 같은 각 커뮤니티는 수시 회의를 통해 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에 개입하며, 전체 네트워크 회의는 분기별 1회 진행된다.

이 모델의 특징은 지역 내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연계하여,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절히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는 전문 교수진이 교육을 담당하며,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을 돕는 ‘초등인성교실’에서는 학부모가 상담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제교류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에서는 교사가 멘토의 역할을 하며,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대학생 자원 활동가들이 동아리 교육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 또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네트워크 구성이 전적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각 주체간 네트워크 및 소통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센터와의 소통 통로만이 있을 뿐 네트워크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들간의 다양한 소통 채널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네트워크 구성 자체가 지나치게 느슨하며, 자칫 각 구성 주체들은 ‘자원봉사’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다.

둘째, 인적 인프라의 구성은 뛰어나지만, 지역 내 문화시설과의 네트워크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센터의 부족한 시설을 보충해줄만한 지역 내 문화시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예술의 전당’과 같은 문화예술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고급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타 청소년 시설 및 시민 단체와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가 갖는 문제점도 있다. 대부분 청소년 시설 및 시민단체간 네트워크 회의 및 모임에는 시설의 대표들이 참여하며,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만나는 실무진들은 배제되기 마련이다. 때문에 네트워크 구성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고, 실질

적으로 업무 진행상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이 외에 인적 인프라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문제점도 있는데, 시설 및 단체가 갖는 사업 추진력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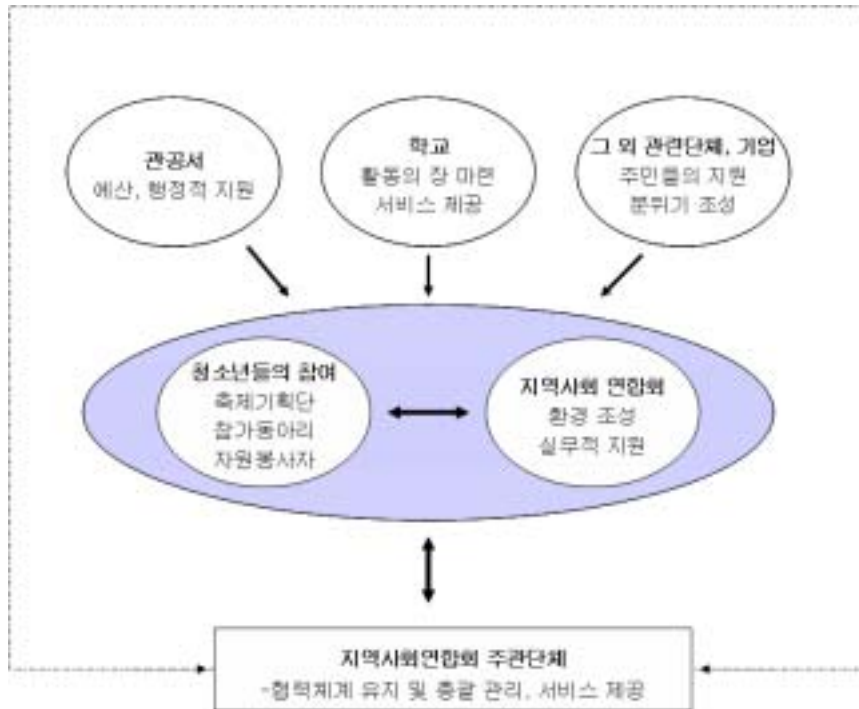
## 2. 강북구 ‘청소년 문화공동체 품’ 모델

‘서초 유스센터’가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모델을 지니고 있다면, ‘품’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설 및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하고 있다. 지역에 기반 한 청소년 문화운동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품’의 네트워크 구성 목적은, 지역사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의 요구에 따른 환경과의 연계, 그리고 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서비스 체계의 연계가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문화 사업에의 청소년 참여율 저조, 프로그램을 위한 지도자와 공간의 부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들의 협조체제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지역사회에 산재하고 있는 자원들을 지역 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구성하고 조직해나가기 위한 것이 바로 네트워크 구성이다 (품, 2002: 92).

‘품’은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계기로서 청소년 문화사업, 특히 청소년 축제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품’은 강북 청소년 문화축제인 ‘추락’을 통해 지역사회 내 중·고등학교,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단체 및 청소년단체, 자치 기관,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기타 문화시설 등을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네트워크의 주체는 실질적으로 축제를 기획·운영하는 운영주체와 직·간접적으로 청소년 축제를 지원하는 지원주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운영주체는 청소년 축제기획단, 축제 참가 동아리들, 축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청소년 팀’과 지역복지관, 시민단체, 문화의 집, 수련관, 강북구청·교육청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연합회’이다. 여기서 축제기획단은 지역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지원을 통해 구성되며, 참가동아리는 학내 동아리나 지역 내 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로 이루어진다. 또한 기획 자원봉사자는 문화 활동 동아리가 아닌 청소년들 중에서 기획단 활동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워 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한다. 그리고 지원주체는 지역 관공서, 지

역 내 학교, 기업, 주민자치기구 등이다.



<그림 4-11> 청소년 문화공동체 ‘품’ 네트워크 모델

‘품’이 구성한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은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점이다. 한편에서는 청소년들을 네트워크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내 단체 및 시설들을 끊임없이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있다. 전자를 통한 효과는 청소년들의 커뮤니티를 구성,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고 동시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반면 후자의 실무자 모임은 일종의 ‘협의체’로 발전하여 지속되고 있는데 각각의 단체 및 시설이 지니는 자원의 특징에 따라 상이한 역할을 담당, 서로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예컨대 현재 ‘강북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열린사회 북부시민회’와 ‘품’이 협의체의 간사 역할을 담당하고 다양한 지역 사회 내 청소년 단

체 및 시설,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자신들의 월별 사업계획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각 사업마다 각자의 자원과 특징에 맞는 역할을 함께 부담하고 있다. 동시에 협의체는 풍요로운 인력풀이 되고 있는데, 학교 CA활동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요구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품’이 보여주는 네트워크 모델에서 다른 중요한 점은 자치구의 연계 지점이다. ‘추락’이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자치구의 협조가 커다란 힘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구청은 ‘추락’을 위한 행사 공간 및 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성북교육청의 지원은 학교들 간 네트워크 구성을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그 밖에 ‘품’은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모색하여 부족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과 연계하여 시설·기자재·공간의 부족함을 상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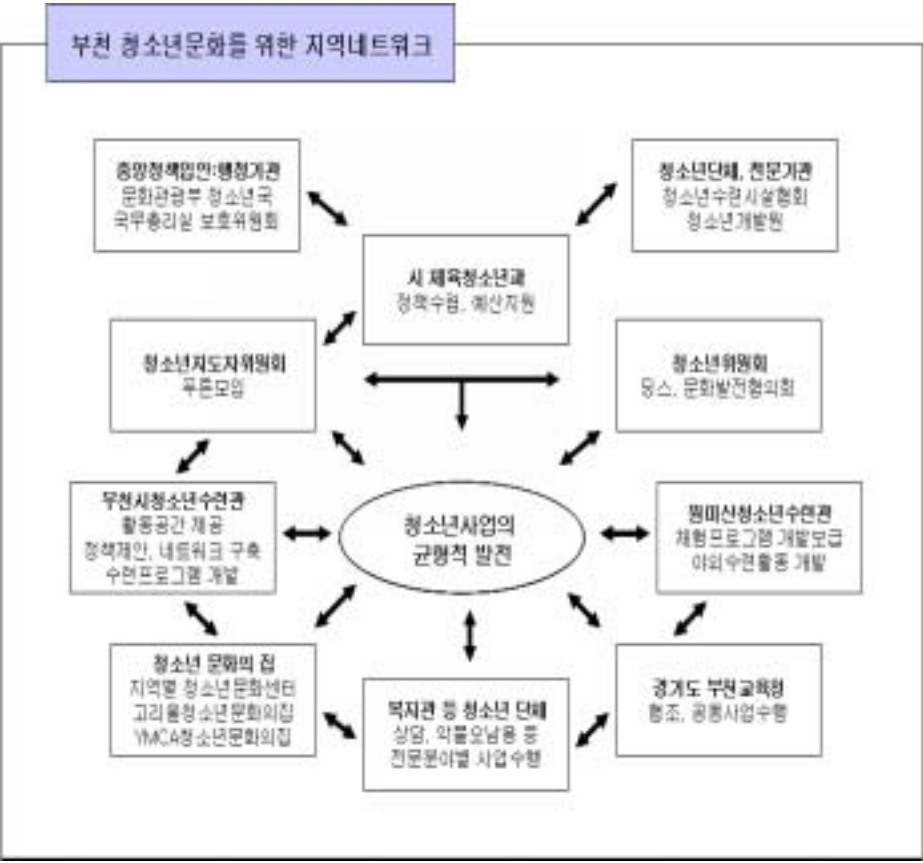
하지만 이와 같은 네트워크 구성에서도 역시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인적자원 구성에 요구되는 재정의 부족이고, 또 다른 문제는 공간 및 시설 사용과 관련한 부분이다. 청소년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물적·인적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네트워크 구성 자체에 소요되는 재정적 비용이나, 청소년 문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요구되는 인력비는 전적으로 네트워크 구성 주체가 떠안고 있다. 더불어 공간 및 시설 확보에서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 3. 부천시 ‘부천 청소년수련관’ 모델

‘부천 청소년수련관’의 네트워크는 매우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부천 청소년 수련관’ 역시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모델이다. 하지만 ‘품’에서 살펴본 네트워크 모델과 다른 점은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여타의 문화시설 및 문화재단이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부천시 청소년 문화정책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부천시의 청소년 문화정책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지역성’과 ‘네트워크’의 강조다. 청소년 사업 인프라 구축, 지역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참여확산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부천시는 ‘중핵화’, ‘파트너십’, ‘지역화’, ‘거점화’, ‘네트워크’, ‘공공책임’을 추진 전략으

로 세우고 있다. 여기서 특히 청소년과 성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파트너십’, 지역 청소년의 요구와 지역특성에 기반한 사업추진과 지역 정체성 확보를 강조하는 ‘지역화’, 지역거점·문화자원 인프라·인적자원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네트워크’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화정책 하에서 ‘부천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핵심적인 주체가 되고 있다. 부천의 네트워크 구성의 계기는 ‘품’과 유사하다. ‘부천 청소년수련관’ 역시도 특정 사업을 계기로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다. ‘차 없는 거리’ 사업 진행 과정 속에서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청소년 문화 사업을 기획하고자 네트워크 구성을 모색한 것이다.



<그림 4-12> 부천 청소년수련관 네트워크 모델

현재 ‘부천 청소년수련관’이 구성한 네트워크 참여 주체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단체, 사회복지 시설, 시 체육청소년과, 부천 교육청,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 모임인 ‘푸른 모임’과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위원회’가 있다. 여기서 ‘부천 청소년수련관’은 네트워크 구성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 복지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각 시설 및 단체의 특징에 따라 청소년 연합 동아리를 담당하여 그들을 지원, 교육하고 있다. 학내 동아리를 위한 마땅한 지원과 교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러한 동아리들을 연합 동아리로 묶어내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청소년을 연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합 동아리들의 회장단 모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청소년 문화 웹 사이트인 ‘딩가당’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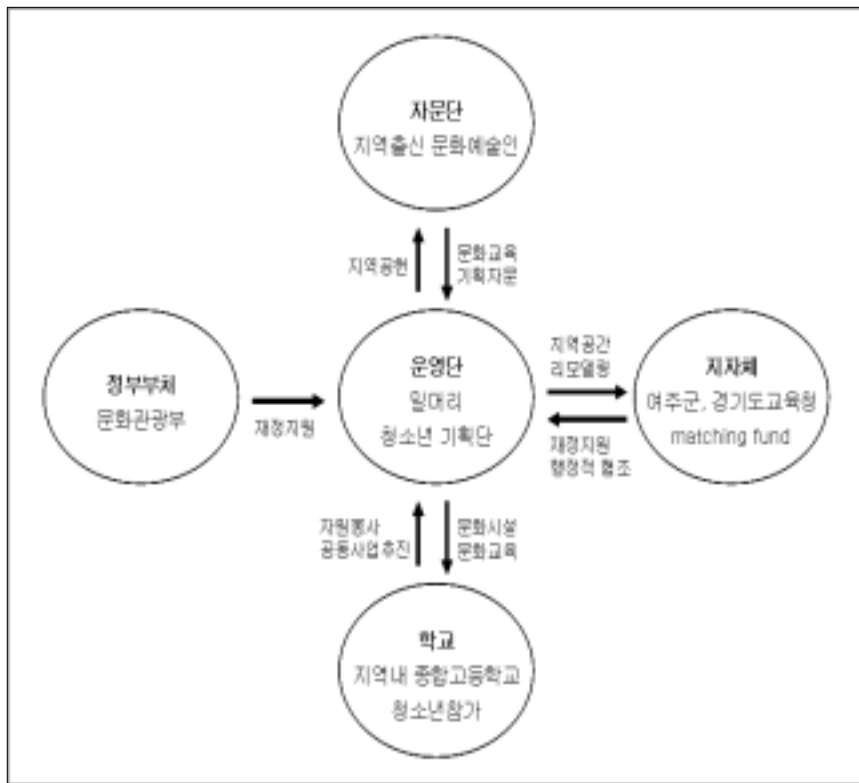
이 모델의 최대 장점은 구성된 네트워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위와 같은 네트워크 모임은 지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지역 사회 문화행사에 대한 최적의 정보 채널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네트워크 구성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홍보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상당부분 이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부천 청소년수련관’의 신념과 활동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시의 방침 덕이기도 하다. 현재 부천시는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시민사회단체, 복지관, 청소년 상담실, 컴퓨터 등 23개 기관의 청소년 지도자 및 사회사업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푸른 모임’에 약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충분한 지원이라 볼 수는 없지만, 네트워크 구성을 하나의 독립된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네트워크의 또 다른 장점은 각 기관 및 단체가 자신들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면서 ‘청소년 문화’라는 커다란 목표 아래 집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여성단체는 청소년 성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운동 단체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문화단체 및 시설과 연계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델 역시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문화시설 및 여타 문화시설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4. 여주시 ‘밀머리 미술학교’ 모델

여주시 ‘밀머리 미술학교’가 제시한 네트워크는 지역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구성되었다. 앞서 제시한 다른 모델들도 마찬가지지만, ‘밀머리 미술학교’의 네트워크 모델은 특히 지역적 성격이 강하다. 네트워크 구성의 계기가 되었던 ‘고구마 프로젝트’가 지역 내 문화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여주시는 문화시설은 부족하지만 문화 유적이 많고, 인적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지역적 특성을 살펴 ‘고구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그리고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적 주체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그림 4-13> 밀머리 미술학교 네트워크 모델

네트워크의 주체는 지역 출신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자문단, 여주군과 경기도 교

육청, 문화관광부, 지역 내 학교다. 여기서 특히 지역 출신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에는 농민, 도자가, 민예충이나 환경연합 활동가, 지역 공무원 등 현재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자들과 미술, 건축, 디자인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출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고구마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역사, 환경, 미술, 건축, 디자인에 관한 문화교육을 총 12회에 걸쳐 실시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여주시 관광자원인 ‘여주대교’를 리모델링 하는 작업에 실질적인 자문을 담당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이 지자체, 그리고 지역과 직접적인 연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즉, 밀머리 청소년 기획단은 지자체의 한 공간을 직접 리모델링 하는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자체의 사업 파트너가 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지원해줄 인력풀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네트워크 구성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작업은 학교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는데, 특히 지역 내 종합고등학교와 연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 참여를 용이하게 했다.

## 제 5 장

###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제1절 청소년의 문화활동 프로세스에 따른 지원방안

제2절 청소년의 주제적 문화실천 지원방안

제3절 지역내 민관학 네트워크 구성 지원방안

제4절 청소년의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 지원방안

## 제5장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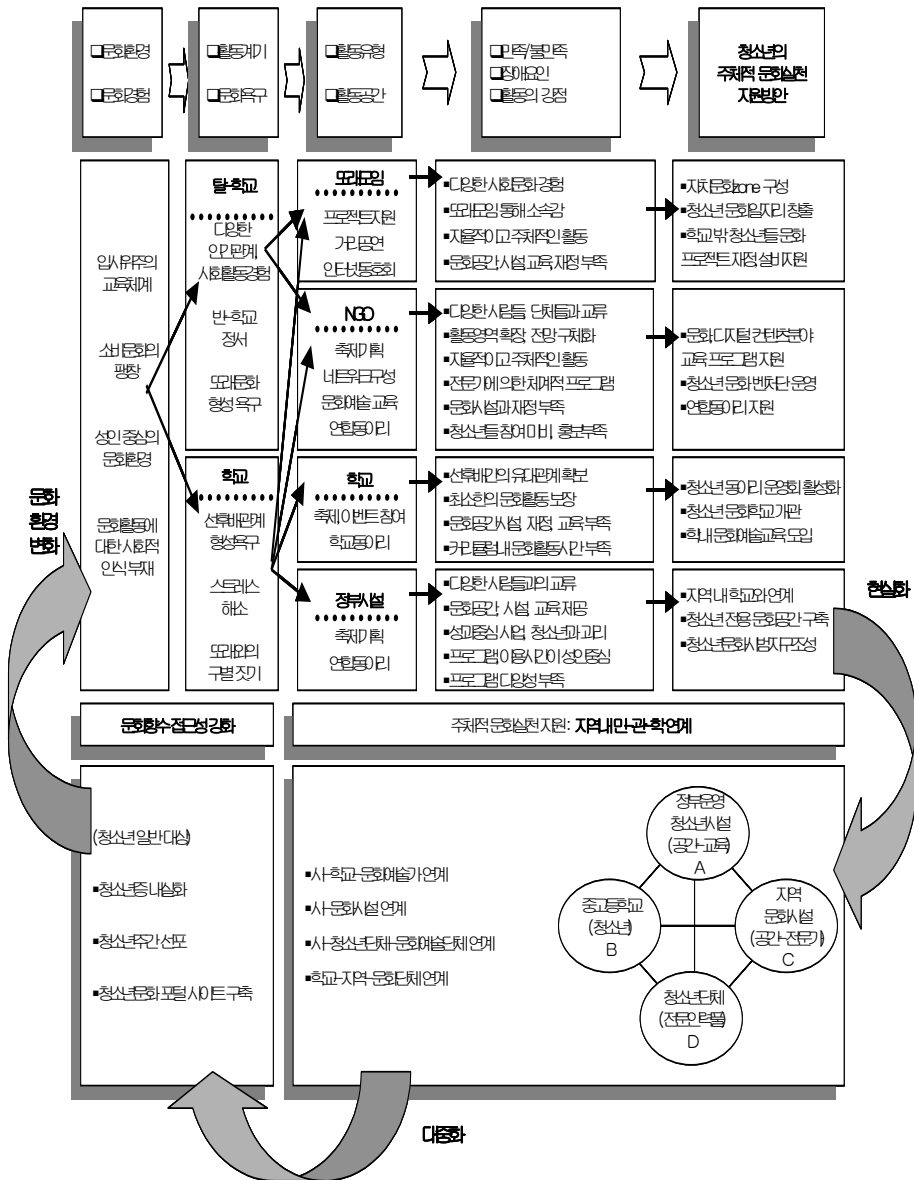
### 제1절 청소년의 문화활동 프로세스에 따른 지원 방안

서울시 청소년들의 문화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은 양적으로도 매우 부족하고, 일반 문화시설 역시도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또한 매우 많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는 저조하고 만족도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 환경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 문화시설, 문화사업과 청소년들의 문화욕구가 괴리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가 파악되어야 하며, 이에 기반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이 재배치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참여계기, 활동유형, 만족도 및 욕구, 장애요인 등을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참여 프로세스의 각 과정마다 효과적인 정책 개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선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프로세스를 요약해보면 <그림 5-1>과 같다.

이 프로세스 모형에서 보듯, 현재 청소년이 처한 문화환경은 ‘입시위주의 교육체계’, ‘소비문화의 팽창’, ‘성인 중심의 문화환경’,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대한 사회인식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 문화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청소년들이 각기 처한 다양한 위치와 특징에 따라 상이한 경로를 통해 상이한 활동 공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을 기반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문화활동의 장애물이나 문화활동에 필요한 욕구를 자각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 혹은 단계들에 개입하여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정책의 역할이라 한다면, 정책적 지원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 가지 차원, 즉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 이를 보다 현실화시키기 위한 ‘지역내 민관학 네트워크 지원’, 이를 적극적인 문화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 청소년들에게 대중화시키기 위한 ‘청소년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 지원’이 순환적·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청소년들이 처한 문화환

경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그림 5-1 참조).



<그림 5-1> 서울 청소년의 문화활동 프로세스에 따른 활성화 방안

먼저,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활동 경험을 통해 생성된 청소년들의 상이한 문화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청소년 ‘주체’별로는 탈학교 청소년과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활동공간’별로는 또래모임, 청소년 민간단체(NGO), 학교, 정부의 수련시설 등을 나누어 다양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경험을 파악하여, 그들의 문화활동 참여과정과 활동양상, 문화적 욕구 등을 알아보고 세분화된 정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지역 내 민-관-학 네트워크 구성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의 부족 및 한계, 한정된 물적·인적 자원 등을 고려할 때 지역 내 민-관-학 네트워크는 필수적이다. 각 시설 및 기관, 관련 주체들이 지닌 특징을 살리면서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공유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구성은 청소년 문화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기획하여 현실화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청소년 문화환경을 개선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 문화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시설과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활동의 계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처해 있는 문화환경 전반에 대한 고민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수립을 필요로 한다.

## 제2절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 방안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프로세스를 통해서,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해보면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공간적 측면’, ‘교육적 측면’, ‘직업 연계적 측면’에서 지원 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의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이 ‘활동공간의 부재’다. 청소년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연습공간과 공연장소 부재를, 그리고 다른 청소년들은 놀이공간의 부족을 이야기한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연계하기 위해서다.

둘째, 청소년들은 ‘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입시 중심의 교과체계, 커리큘럼 내 문화예술 관련 과목의 부족, CA활동을 비롯한 문화예술 활동 시간의 부족, 문화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이야기된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 커리큘럼을 충분히 마련하고, 교육기관 및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문화 활동을 보장해야만 한다.

셋째, 문화는 점차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놀이가 아닌 전문적인 ‘일’로 다가온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문화 활동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혹은 사회와의 관계 맺기를 배우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문화 활동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문화 활동과, 생계를 위한 일이 다르다는 점이다.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문화 활동가’로서 혹은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전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을 요구한다.

### 1. 공간적 지원: 지역사회 내 문화활동 공간 구축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 전체 문화시설 705개 중 청소년 문화시설은 131개로 전체의 약 19%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중에서 청소년 전용시설은 전체 문화시설의 10%에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청소년 시설 1개당 10,548명의 청소년이 이용해야만 하는 수준으로 청소년 시설의 절대적인 부족현상을 드러낸다. 더구나 지역편차

도 크다. 또한 청소년들의 문화 관련시설 이용경험은 수련관(50.4%)을 제외하고는 이용경험이 저조하다.

청소년들 역시도 대부분이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여타의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로는 집(79.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PC방, 공원 및 놀이터, 노래방, 학교, 길거리 등이다.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여가장소도 이와 마찬가지로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 문화시설의 부족 및 이용률 저조 현상과 더불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 및 공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함을 극적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청소년 전용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시설 및 기존 문화시설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즐겨 찾는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문화공간을 다양하게 개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욕구에 따른 문화적 공간 배치를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근처 지역커뮤니티에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 길거리·학교·공원 및 놀이터 등 공공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PC방 활용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공간지원 방안으로 세가지 프로그램, 즉 ‘청소년 동아리 활동 공간 활성화’, ‘청소년 자치문화 Zone 및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청소년 문화 시범지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청소년 동아리 활동공간 활성화

청소년 동아리 활동 공간 활성화는 기존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설 및 재정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부족의 문제를 최대한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우선, ‘청소년 문화시설 현황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문화시설 및 청소년 문화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시설

확충 및 재배치가 요구된다.

둘째로, 청소년 수련관 등 청소년 시설을 동아리 활동공간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 실적에 따른 수련관 예산지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행사에 동아리 명칭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 행사에 동아리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소속 학교만 소개되고 있어, 동아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활성화하는데 심리적인 장애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우선 청소년의 문화활동 유형에 따라 공간지원형태를 차별화하고, 지역별 청소년 인구와 활동을 고려하여 청소년 문화시설을 균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뉴타운 사업,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큰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애용하고 있는 일상공간을 대안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별도의 물리적 시설 조성없이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로, 야간시간대 운영하지 않는 일반 지역시설들(주민자치센터나 여성센터 등)의 기능·운영방식을 전환하여, ‘청소년 활용 할당제’를 도입하여 지역문화시설의 청소년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및 공연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공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대학로 등의 공연장에 ‘청소년 할인제 및 할당제’를 도입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 2) 청소년 자치문화 ZONE 및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청소년 자치문화 Zone과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은 상업화된 청소년 문화공간을 지양하고,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문화활동 공간을 보장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를 통한 기획활동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문화공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간은

청소년이 공연·전시 등의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화해방구이자,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주최하는 청소년 축제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 공원, 거리, 지하철역사, 주민자치센터 등과 같은 공공공간(public space)과 PC방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축제 및 전시를 정례화함으로써, 일상생활공간이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둘째로,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혹은 청소년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기획단을 적극참여시켜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로, ‘문화존 청소년 운영단’을 모집하고 그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유스존들을 다양하게 조성하고, 그러한 유스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공간들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지역별 공간적 특성 및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유형과 특성을 세밀하게 조사한 후,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을 청소년들 스스로 자치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활동에 관한 교육 및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 3) 청소년 문화시범지구 조성

‘청소년 문화 시범지구 조성’은 지역 내 청소년 자치문화 Zone과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보다 확대된 청소년 자치문화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사례개발 및 시범사업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현재 민관학 네트워크 잠재력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특성화함으로써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지역적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청소년과 관련한 여타의 문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고민해야 할 문제이며, 청소년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적 확보 역시 지역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청소년 문화활동과 관련한 민관학 네트워크의 잠재력이 큰 지역을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지역별로 특성화된

시범지구를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청소년 문화와 지역문화의 유기적인 조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2. 교육적 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

기존 사회인식은 청소년을 단일하고 불완전하며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했다. 그리고 기껏해야 소비주체로 주목했을 뿐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 청소년은 다양한 욕망과 이질적인 특이성을 지니며, ‘문화’를 통해 이러한 다양성을 표출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선 다양한 언어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문화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한다. 청소년을 문화생산자이자 문화소비자로서 이해하고, 청소년의 문화 권리를 인정하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생산적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특히 관리·규제·보호·선도·육성·복지의 관점에서 마련되어 있는 청소년 정책 혹은 청소년 문화정책을 자율·참여·분권·창의력·자립·문화 논리로 전환해야 한다.

청소년 문화 활동이 정규적인 교육과정 밖에 존재한다는 기존의 사회인식은 적절한 문화교육을 방해한다. 때문에 사회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앞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청소년들은 사회참여의 기회를 문화 활동을 통해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실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쳐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문화 활동이 공적 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문화 활동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로 청소년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설 기관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동아리 선배들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 활동을 위한 문화교육이 체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학내 동아리 활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뿐 아니라 보다 나아가서는 학교 정규 커리큘럼 내에 문화교육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고민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교육지원 방안으로 크게 세가지 프로그램, 즉 ‘문화콘텐츠 분야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학내 문화예술교육 확대 도입 및 문화활동 교육’, ‘청소년 문화학교 개관’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문화콘텐츠 분야 교육프로그램 지원

‘문화콘텐츠 분야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문화콘텐츠 분야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교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감수성에 맞는 전문적인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청소년을 문화생산의 주체로 자리매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우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활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동시에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생산할 수 있는 ‘청소년 특화형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그래픽티, 코스튬플레이, 힙합, 락그룹, 영상제작 등과 같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활동을 구체적인 문화콘텐츠로 개발해야 한다.

둘째로, 청소년 특화형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와 교사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문화벤처산업’을 선정하여 청소년을 전문적인 문화생산자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 2) 학내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문화활동 교육

‘학내 문화예술 교육 확대 및 문화 활동 교육’은 보다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문화교육의 통로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입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정규 교과과정에 문화예술 교육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보다 다양화된 커리큘럼을 확보, 전인교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우선,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내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

을 평가하고, 전반적인 교과 과목의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로, 문화예술 관련 커리큘럼을 확충하고, 현재 영화 부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사 인력풀제’를 다른 문화예술 분야까지 확대·활성화해야 한다.

셋째로, 폭넓은 문화예술 분야까지 문화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시설과 연계, 전문적인 교사 인력풀과 교육 시설 및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 시설에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학교와 연계하여 정식적인 교과 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과 사회가 연계된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 즉 지역 내 청소년시설 뿐 아니라 지역 내 사회단체 및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주체들이 각자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 문화교육을 위한 인력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청소년 문화학교 개관

‘청소년 문화학교 개관’은 문화예술 교육을 특성화한 전문교육기관의 개설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전문 문화기획자 및 지도자 양성 기관으로서 기능하며, 일반 학교와 연계하여 일반 학교가 담보할 수 없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두 가지 차원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 커리큘럼을 전담, 학교의 예체능 과목을 대체하여 학점 인수를 인정하는 ‘학점운영제 안’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문화예술가를 전문양성하는 ‘전문 문화예술 학교’로서 운영하는 안이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우선, 청소년 문화시설과 학교가 연계하여 시범문화학교를 개관, 문화학교의 모델을 개발하고, 학점운영제로 운영하여 학교 예체능 과목을 대체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교육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문예진흥기금 수혜자를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셋째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 예비지도자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일반문화시설과 청소년 문화시설, 그리고 학교가 연계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문화학교를 개관함으로써, 학교교육과 문화교육을 조화시키고 청소년 문화전문가 및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학과의 연계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 3. 직업연계 지원: 청소년들의 문화산업활동 지원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된 직업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일’과 ‘문화적 욕구’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회문화를 경험하길 원하고, 이를 통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의 역량을 키워나가길 바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자신의 문화 활동 성과물이 제대로 평가받고 인정받길 원한다. 또한 문화 활동이 자신의 삶과 괴리되어 부차적인 것이나 단순한 취미활동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일상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삶의 한 부분이 되길 바란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혹은 미래의 전망을 위한 직업 선택이 현재 진행중인 문화 활동과 일치되지 못함에 커다란 장애를 느낀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 확보, 문화교육 지원과 더불어 그들의 문화 활동이 보다 전문적인 ‘직업’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직업연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크게 세가지, 즉 ‘청소년을 위한 문화 일자리 창출’, ‘청소년 문화벤처단 운영 활성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프로젝트형 창작 프로그램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청소년 문화 일자리 창출

‘청소년을 위한 문화 일자리 창출’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문화예술 분야로

확장하고, 청소년을 위한 보다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일자리로 찾고 있는 곳이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PC방 등이다. 이러한 일자리는 청소년들의 특이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일자리이며, 때문에 단순한 ‘돈벌이’의 공간으로만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직업교육의 장으로서, 사회참여의 장으로서, 그리고 건강한 일터로서 문화예술의 공간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우선, 문화예술 시설의 업무와 운영실태, 인력 수용 등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현황조사가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로,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에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공공문화시설을 청소년을 위한 예비 직업 체험장으로 개방하고, 청소년 고용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길 원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경우, 장학금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친화형 문화예술시설 중심으로 청소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소년 고용 할당제’ 도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청소년 문화벤처단 운영 활성화

‘청소년 문화벤처단 운영 활성화’는 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그들의 문화활동을 사회봉사활동과 연계하여 보다 폭 넓은 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순수기초예술, 대중엔터테인먼트, 영상 및 사진예술 분야 등과 관련한 청소년 문화예술동아리를 선정하여 해당 단체에 전문 강사를 파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공간을 제공하고 행사경비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및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식 발표회 등 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청소년 문화 활동을 전문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문화벤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3) 학교밖 청소년 프로젝트형 프로그램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의 프로젝트형 창작 프로그램 지원’은 문화 활동을 계기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커뮤니티로 형성하고, 그들의 건강한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직업적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문화 활동을 통해 다양한 또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학교를 떠나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활동의 장을 제공받게 된다. 더불어 직업적 전망을 고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 프로젝트를 공모하고, 그 프로젝트 모임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및 공간, 시설,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로, 지역 내 문화인과 청소년들을 ‘mento-mentee’로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통로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체계 및 직업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문화활동을 통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제3절 지역 내 민-관-학 네트워크 구성 지원방안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현황에서 나타났듯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은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사후 연계 프로그램의 부재, 지역 네트워킹 부족의 문제점이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의 효율적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일회적·행사별 지원이 아닌 지속적·연계적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 자치구, 민간단체와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중복지원을 탈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 반드시 고민되어야 한다. 더구나 현재 서울시가 지니는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재배치와 재분배가 요구된다.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관학 네트워크 구성에 우선점을 두어 지역 내 학교, 문화시설, 청소년단체, 정부운영시설 등간의 네트워킹 방식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문화 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출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네트워크 구성의 지원 방안으로 크게 네가지 프로그램 즉,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지역사회 민관학 네트워크 지원’, ‘네트워크형 문화기획사업 지원’, ‘네트워크 모델 개발’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은 서울시 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들의 주체들을 협의체로 구성,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청소년 사업을 구상하고 각 지역 내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전략 모델을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네트워크 협의체의 역할 및 기능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네트워크 모범사례 제시, 민관학 네트워크 모델 개발, 구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연구 작업 및 사전조사 작업 자문, 구별 네트워크 주체들을 위한 교육 실시 등이 있다.

<표 5-1> 네트워크 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 구분      | 내용                                                                                                                               |
|---------|----------------------------------------------------------------------------------------------------------------------------------|
| 역할 및 기능 | *지역사회에 기반한 네트워크 모범 사례 제시<br>*민관학 네트워크 모델 개발<br>*구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연구작업 및 사전조사 작업에 자문<br>*구별 네트워크 주체들을 위한 교육 실시                      |
| 구성 및 운영 | *서울시 내 존재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주요 주체로 구성<br>*네트워크 협의체 모임의 운영지원은 서울시 청소년과 혹은 서울문화재단에서 담당<br>*주체별 사안별 협의체 구성, 소모임 구성 및 지원<br>*청소년 문화포럼 정기 개최 |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우선, 현재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둘째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에 따라, 주체별 혹은 사안별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셋째로,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기구 혹은 전담팀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청소년과 혹은 서울문화재단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특성화 시설이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직업체험 센터 ‘하자’나 미디어 특성화 교육기관인 ‘스스로 넷’,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을 주된 커리큘럼으로 갖고 있는 서울시 위탁 대안학교인 ‘난나 학교’ 등이 협의체의 실무적인 주체가 되어 서울시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기획·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네트워크 협의체를 통해, 청소년 문화단체, 청소년 문화시설, 청소년 단체 실무자, 청소년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소모임을 구성하고 그 소모임을 지원해야 한다. 장비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역시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협의체는 정기적인 청소년 문화포럼을 개최하여 청소년 전문가 및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및 전국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소년 문화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협의체를 상

설 기구화하고, 네트워크 협의체의 범주를 보다 확대하여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일반문화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2. 지역사회 민관학 네트워크 구성

‘지역사회 민관학 네트워크 구성’은 지역 문화와 청소년 문화를 조화시키고, 지역사회 내 물적·인적 문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청소년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 민관학 네트워크는 지역 내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반복되는 문화 사업을 피하고 보다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또는 청소년 문화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진행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표 5-2> 지역사회 민관학 네트워크의 기능 및 구성

| 구분      | 내용                                                                                                                |
|---------|-------------------------------------------------------------------------------------------------------------------|
| 역할 및 기능 |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조정 및 문화사업 공동 기획·진행<br>*청소년과 지역사회 연계, 공동의 지역문화 창출                                                     |
| 구성 및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문화시설, 민간 사회·복지 단체, 지역 내 중·고등학교 등 주체로 구성<br>*지역 내 청소년 단체 및 시설 중 네트워크 운영간사 선정<br>*네트워크 운영에 재정적 지원 |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우선, 네트워크 모델화가 가능한 지역, 즉 네트워크 구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 및 단체가 존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 내 청소년 단체 및 시설 관련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팀을 구성하여 지역 내 문화시설 및 청소년 문화시설, 전문 문화예술인 인적 자원, 청소년 관련 문화프로그램, 중·고등학교 문화활동 현황 및 문화교육 실태, 청소년들의 문화욕구 실태를 세밀히 조사·연구해야 한다.

셋째로,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 구성 주체 및 참여주체를 선정,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문화시설, 민간 사회·복지 단체, 지역 내 중·고등학교 등이 주체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내 청소년 단체 및 시설 중 네트워크 운영간사를 선정하고, 네트워크 운영에 요구되는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별로 다양한 네트워크 모델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3. 네트워크형 문화기획사업 지원

‘네트워크형 문화기획사업 지원’은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네트워크 구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 주기 위해 필요하다. 현재 지역 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주체 단체가 자신들의 사업비를 할애하여 충당하고 있다. 때문에 네트워크 구성 자체가 독자적인 사업으로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며, 대부분이 네트워크 구성에 의지를 지닌 소수의 청소년 문화 활동가에게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은 그 활동의 성격상 인력비가 많이 요구된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에 인력비는 제외됨으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지원책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구성에 소요되는 인력비를 포함한 조사 연구비, 네트워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우선, 서울시의 청소년 지원 공모사업 추진시 네트워크 기획 사업에 관한 지원항목을 별도로 추가하고, 더불어 청소년 문화관련 공모사업 제안서에 네트워크 평가항목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로는, 네트워크 운영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일회적인 이벤트성 사업이 많은 점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문화사업을 통해 집결된 많은 물적·인적 자원을 지속

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네트워크형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 4. 네트워크 모델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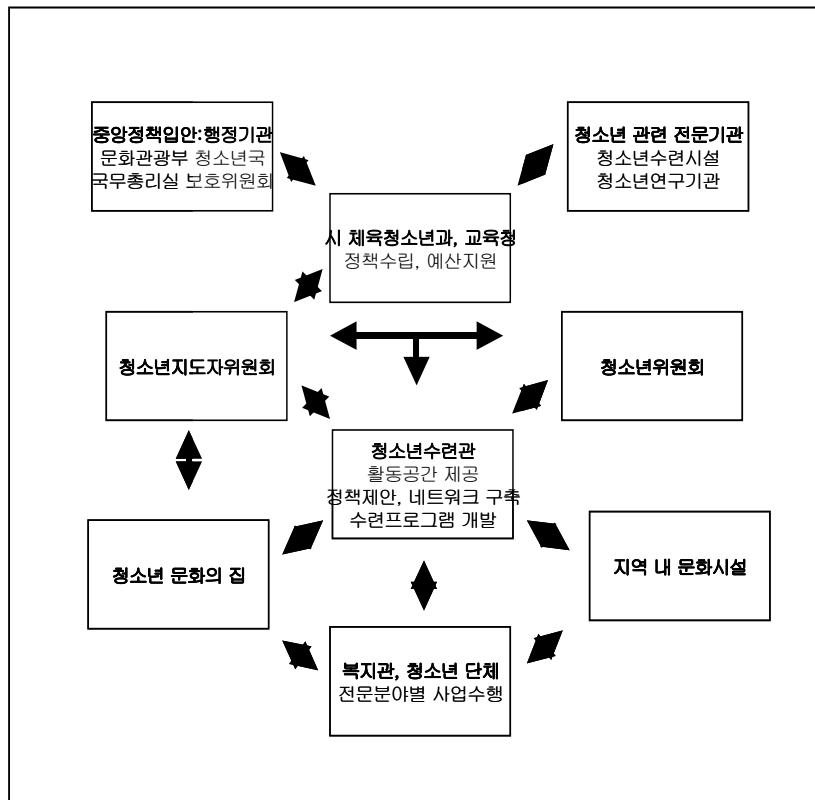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구성되어야 함으로, 지역사회의 물적·인적 자원 및 각 주체들의 특징에 따라 상이한 모델이 제시될 수 있다. 여기서는 크게 네 가지의 모델, 즉 ‘정부시설 중심 모델’, ‘청소년 민간단체 중심 모델’, ‘문화예술인 중심 모델’, ‘지역리더 연계 모델’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정부시설 중심 모델(공공성 강화 모델)

정부시설 중심 모델은 지역 내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은 청소년 문화시설이 네트워크의 주체가 되거나 혹은 하자센터, 스스로넷, 미지센터와 같은 특성화된 공공기관이 네트워크의 주체가 되는 모델을 말한다.

전자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 내 문화시설 및 청소년 단체들로 네트워크를 구성될 수 있다. 후자는 지역 단위를 넘어서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각각의 기관이 지니는 특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기관 및 단체들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양자 모두 문화시설, 청소년 동아리, 종교교, 청소년 단체 등을 네트워크 구성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

이 모델이 지니는 장점은 네트워크 구성의 핵심 역할을 정부 시설이 담당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네트워크 정기회의를 진행,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장비 및 공간을 제공하며, 지도자를 교육하고, 청소년 지도자들 및 동아리 회원간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데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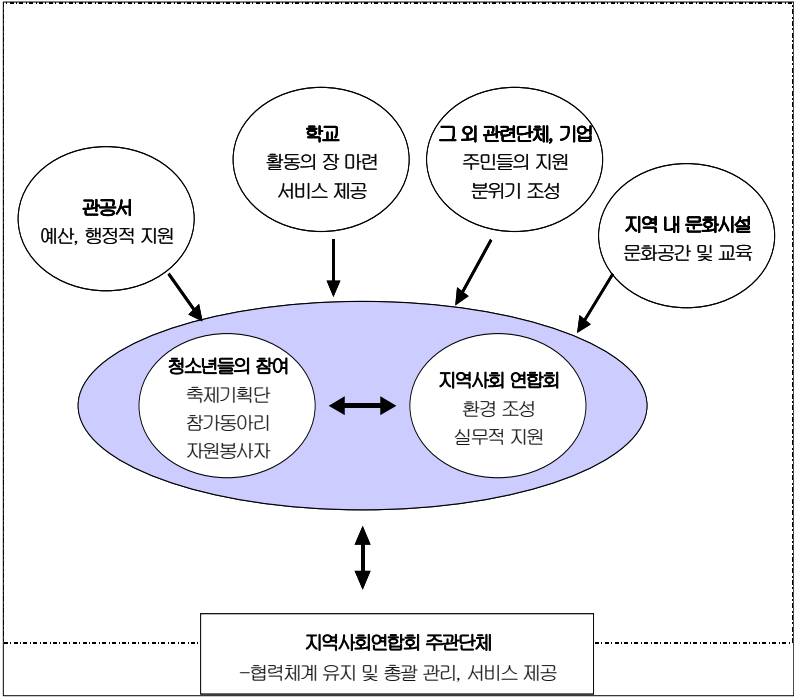
<그림 5-2> 민관학 네트워크 모델(1): 정부시설(청소년 수련관) 중심 모델

## 2) 청소년 민간단체 중심 모델(주체성 강화모델)

청소년 민간단체 중심모델은 청소년 민간단체가 네트워크의 주체가 되어 정부운영 문화시설, 중고교, 정부, 기업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모델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장기간 활동해온 민간단체가 지역사회의 신뢰와 관계망을 이용하여 구성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청소년 문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자발성’과 ‘주체성’을 중요시 하는 청소년 민간단체의 마인드가 반영됨으로써, 네트워크 구성에 참여하는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의 ‘주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이 모델은 청소년들로 구성된 기획단과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 혹은 문화시설이 공동 사업의 주체로 설정되고, 상호의사소통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지역청소년의 문화공동체 형성,

지역 청소년 축제 공동기획단 구성, 공동협력 사업 추진 등에 이점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동아리 지원 사업 등을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 학내 문화 활동에 교육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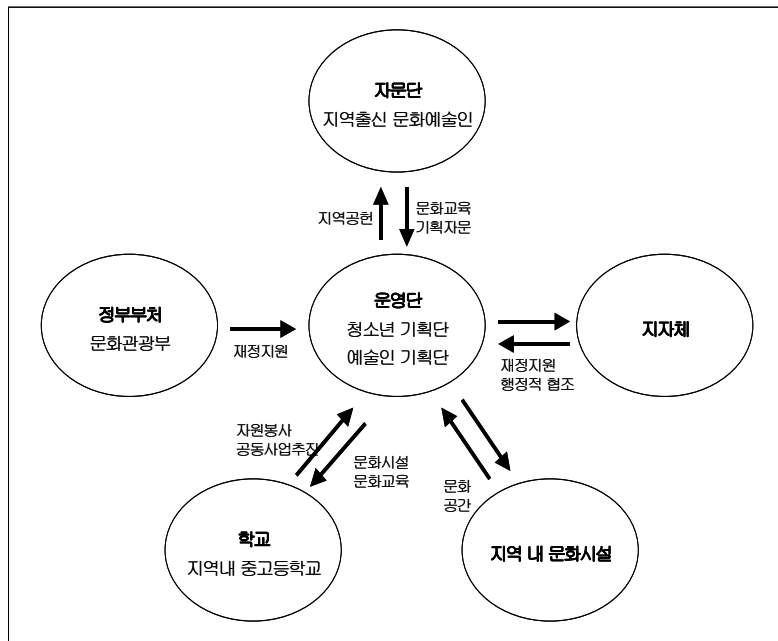


<그림 5-3> 민관학 네트워크 모델(2): 청소년 민간단체 중심 모델

### 3) 문화예술인 중심 모델(전문성 강화모델)

문화예술인 중심 모델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네트워크의 중심 주체가 되어, 지역 내 학교와 문화시설, 지역인사, 정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모델이다.

문화예술인 혹은 문화예술가 단체가 네트워크의 주체가 됨으로 문화예술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모델에 따른 네트워크는 지역문화 활동에 초점을 두면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데 이점이 있다. 주로 개별 주체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됨으로 지역 내 인적 자원에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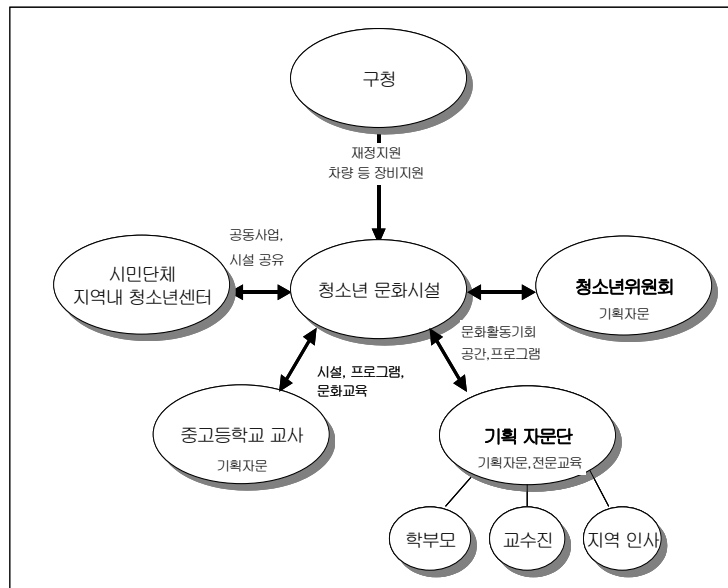
<그림 5-4> 민관학 네트워크 모델(3): 문화예술인 중심 모델

#### 4) 지역 리더 연계 모델(커뮤니티 강화모델)

지역리더 연계 모델은 유스센터 등 청소년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내 교사, 지역인사, 학부모 등이 핵심 주체가 되는 네트워크 모델이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지역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을 커뮤니티로 구성, 그들을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에 적극 개입시킴으로써, 한편으로는 청소년 문화교육을 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는 데 이점이 있다.

나아가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청소년 문화시설을 네트워크 주체로 참여시킴으로써 청소년 보호 및 상담활동, 공동 사업 기획 등을 실행할 수 있다.



<그림 5-5> 민관학 네트워크 모델(4): 지역 리더 연계 모델

이상에서 살펴본 네가지 네트워크 모델은 현재 서울시 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부 모델들을 사례로 일반화하여 도출한 것으로, 향후 새로운 모델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내 문화시설,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단체, 지역인사, 정부, 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제4절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 지원방안

청소년들의 문화향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문화정보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 보다 손쉽게 문화예술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현재 청소년들의 문화적 편식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문화향수 실태에서 살펴보면, 영화를 제외하고는 문화예술 향유 실태가 저조하여, 순수문화예술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문화향수 경험이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순수문화예술 분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공연기부 좌석제, 할인제 등이 모색되어야 하며, 청소년 수련관 등 전용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홍보 강화, 청소년문화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한 일상적·체계적 정보지원이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문화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청소년의 문화예술 관람경험을 증대시키는 프로그램,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등 크게 세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 1. 청소년 문화포털 웹사이트 구축

문화향수 접근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문화포털 웹사이트 구축이다. 즉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손쉽게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문화시설 및 장비,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청소년 문화 포털 사이트는 첫째, 청소년 문화시설, 청소년 단체,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청소년 전문가 정보 등에 대한 청소년 문화 DB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 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및 공연시설 관련 정보를 구축하고 동시에 대관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및 전문가 재교육을 위한 사이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문화 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직업 창출의 기회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 문화달력을 제공하여 각종 다양한 문화행사를 홍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삶, 이야기, 활동 등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제공하여 청소년들간의 또래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 문화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포럼, 청소년지원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 허브 사이트 등 기존의 청소년 관련 사이트와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전문단체 혹은 청소년 네트워크 단체에서 사이트 운영간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청소년 문화포털 웹사이트는 청소년 문화 관련 종합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장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 2. 청소년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 증대

청소년의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두 번째 과제는 문화예술 ‘관람’ 경험을 증대하기 위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증의 내실화’와 ‘청소년 주간 선포’, ‘순수예술 분야 공연 및 전시 관람을 위한 할인제 도입’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청소년증의 내실화

‘청소년증 내실화’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학생증을 폐지하고 청소년증으로 통합하여, 문화예술과 관련한 공연 및 전시 부문에 있어 청소년 할인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2004년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3-18세 청소년은 약 77만 명이며, 이 중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3만5천명으로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는 현재의 청소년증은 학생이 아니라는 증명처럼 보이는 낙인효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없애기 위해 학생/비학생 구분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혜택을 확대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공연예매 할인(동반자 할인 포함), 여행상품 할인, 공연당일 여석에 대해 80%이상 할인,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 할인, 일정기준의 상가에 가칭 ‘청소년 사랑’ 인증제도 실시 및 포인트 적립, 대중교통수단 할인, 극장 관람료나 음반구입비 할인 등이 있다.

또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다. 프랑스의 청소년증(그림 5-6)이나 파리의 청소년 교통카드(그림 5-7), 영국의 커넥션즈 카드(그림 5-8) 등이 예로 제시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청소년증을 여행이나 여가, 교통, 소비를 결합시킨 스마트카드화하고, 업계를 대상으로 청소년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청소년증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프랑스의 청소년증(La Carte Jeune)



- 유럽 전역에서 사용 가능
- 26세 미만에게 비밀번호와 함께 발급되며 가격은 46유로
- 발급시 이용 가능한 혜택이 열거된 소책자가 함께 제공됨
- 구매시 포인트 적립
- 운전면허학원, 여행, 여가활동, 문화행사, 대량소비상품 등에 대한 할인혜택 부여, 철도: 50% 할인

<그림 5-6> 파리의 청소년증 사례

### 파리시의 청소년 교통카드

- 중고생, 대학생 대상으로 2존 안에서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패스로, 가격은 125프랑(1998년 기준)
- 주말과 휴일에는 수도권 전역(5존)에서 무료이용 가능. 이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 2억 5,700만 프랑은 국가가 29%, 운송조합이 33% 나머지는 지방정부에서 보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할인혜택 부여

<그림 5-7> 파리의 청소년 교통카드 사례

### 영국의 커넥션즈(connexions) 카드



- 커넥션즈 카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증’과 비슷하지만 기본 정보가 담겨 있는 칩이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카드라는 점에서 차이
- 잉글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13-19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발급하며 학습, 직업훈련 및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포인트 적립. 이 포인트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체험을 포함해 상품의 무상, 혹은 할인 구매 가능
- 커넥션즈 카드 스티커가 붙어있는 아울렛이나 상점에서 즉석 할인 혹은 특별 가격으로 상품 구매 가능

<그림 5-8> 영국의 커넥션즈 카드 사례

## 2) 청소년 주간 선포 및 운영

서울시 ‘청소년 주간 선포’는 봄방학이나 졸업시즌 기간 등 특정 기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정례화하여, 문화시설에 청소년 할인혜택을 도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이용 청소년 및 청소년 동반 가족에게 50%이상의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청소년 주간을 선포하는 것이다. 사설기관의 경우에는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기관과 서울시가 할인 폭의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행할 수 있다.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포하며, 청소년이 직접 주최하고 기획하는 축제를 이 기간동안 개최하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주5일 수업제와 연계된 ‘youth day’, ‘youth week’, ‘youth month’ 등 다양한 청소년 주간을 운용할 수 있다.

## 3) 순수예술 관람 경험 증대

‘순수예술 분야 관람 경험 증대’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편식 현상을 해결하고 순수예술에 관한 거리감을 좁혀,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술 전시장, 박물관, 클래식 음악회 등을 직접 찾아가 감상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거나 현장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내 박물관, 전시장, 미술관에 청소년을 무료입장 시키거나 ‘청소년 문화의 날’을 한 달에 1회 정도 지정하여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과 같은 주요 공연시설에 청소년을 무료입장시키는 방안이 있다.

## 3. 소외계층 및 지역 지원 프로그램

소외계층 및 지역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우선,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 무료 관람 확대, 찾아가는 문화행사와 모서가는 문

화행사 병행, 최종 리허설 관람 기회 부여, 방학기간 중 낮 시간대 영화관람 할인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취약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특별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합창단, 미술반, 악기반 등에 대해 전공 지도교사를 파견하고 물품을 지원하며, 개인교습을 원하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무료교습을 실시할 수 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가를 지역에 상주시켜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제 6 장

### 결론 및 제언

제1절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방안 종합

제2절 서울 청소년 문화정책 기본계획(SYP) 수립

제3절 지원사업별 우선순위

##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제1절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 종합

지금까지 살펴본 서울의 청소년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과 청소년의 문화활동 실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청소년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청소년들의 문화 욕구에 따라 기존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을 재배치하는 일이다. 따라서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경험을 통한 문화욕구 파악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지역내 민관학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대중화하는 방안으로 청소년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서로 연계된 세가지 분야의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총 19개 과제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6-1, 2, 3, 4, 5>와 같다.

<표 6-1>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 과제(1): 공간지원(총 3개 과제)

| 공간 지원: 지역 사회 내 문화활동 공간 구축   |                                                                                                                                                                        |                                                                                                                                                   |
|-----------------------------|------------------------------------------------------------------------------------------------------------------------------------------------------------------------|---------------------------------------------------------------------------------------------------------------------------------------------------|
| 프로그램                        | 단기과제                                                                                                                                                                   | 장기과제                                                                                                                                              |
| 청소년 동아리활동 공간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문화시설 현황 정밀 조사</li> <li>*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을 동아리활동공간으로 제공 (동아리활동실적에 따른 예산지원)</li> <li>*서울시 지원 청소년행사에 동아리 명칭 소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문화 활동 유형에 따른 공간지원형태 차별화, 대안공간 개발</li> <li>*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li> <li>*일반문화시설의 청소년 활용 할 당제 실시</li> </ul> |
| 청소년 자치문화 Zone /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문화해방구 제공</li> <li>*청소년이 기획하고 주최하는 동아리 축제공간화</li> <li>*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지원</li> <li>*문화존 청소년 운영단모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특성화된 유스존 조성 및 대안공간 개발</li> <li>*청소년 자치 운영</li> </ul>                                                  |
| 청소년 문화시범지구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관학 네트워크 잠재력 큰 지역 우선 시범지구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특성화된 시범지구 조성</li> <li>*청소년문화와 지역문화 조화 유도</li> </ul>                                                   |

<표 6-2>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 과제(2): 교육지원(총 3개 과제)

| 교육 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                                                                                                         |
|------------------------------|------------------------------------------------------------------------------------------------------------------------------------|---------------------------------------------------------------------------------------------------------|
| 프로그램                         | 단기과제                                                                                                                               | 장기과제                                                                                                    |
| 문화콘텐츠분야<br>교육 프로그램<br>지원     | *청소년 선호 및 청소년 특화가능<br>문화콘텐츠분야 교육 및 교사 지원                                                                                           | *청소년문화벤처산업 선정 지원                                                                                        |
| 학내 문화예술<br>교육확대 및<br>문화활동 교육 | *학내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 평가<br>*문화예술관련 커리큘럼 확충<br>*문화예술교사 인력풀제 활성화<br>*학교밖 청소년시설과 연계, 전문교<br>육프로그램 개설                                       | *지역-학교 연계 커리큘럼 마련                                                                                       |
| 청소년<br>문화학교 개관               | *청소년문화시설과 학교 연계 시범<br>문화학교 개관<br>*학점운영제, 학교 예체능과목 대<br>체이수 인정<br>*서울시 문예진흥기금 수혜자 교사<br>로 활용<br>*청소년 예비지도자 및 지도자 대상<br>전문가교육프로그램 개설 | *‘일반문화시설-청소년문화시설-<br>학교’ 연계 지역별로 특성화된<br>문화학교 개관<br>*학교교육과 문화교육의 조화<br>*청소년 문화전문가/지도자 양성<br>기관화(대학과 연계) |

<표 6-3>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 과제(3): 직업연계 지원(총 3개 과제)

| 직업연계 지원: 청소년의 문화산업활동 지원          |                                                                                                                     |                              |
|----------------------------------|---------------------------------------------------------------------------------------------------------------------|------------------------------|
| 프로그램                             | 단기과제                                                                                                                | 장기과제                         |
| 청소년<br>문화일자리<br>창출               |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에 청소년 우<br>선 취업 인센티브 제공<br>*문화예술시설의 업무, 운영실태, 인<br>력 수요 등 파악<br>*전문교육과정 이수 희망하는 일하<br>는 청소년 장학금 등 혜택 부여 | *문화예술시설 청소년 고용할당<br>제 도입     |
| 청소년 문화<br>벤처단<br>운영 활성화          | *청소년문화예술 동아리 대상 문화<br>교육 지원 및 문화봉사활동 유도                                                                             | *청소년문화벤처 전문가 양성 지<br>원       |
| 학교밖<br>청소년들의<br>프로젝트형<br>프로그램 지원 | *직업적 전망과 문화활동 연계<br>*지역내 문화인과 mento-mentee 관<br>계맺기                                                                 | *문화활동 통해 학교 밖 청소년<br>지원 및 후원 |

<표 6-4> 지역내 민관학 네트워크 지원 과제(총 4개 과제)

| 프로그램                                 |                                      | 단기과제                                                                                                                                                                                              | 장기과제                                                                                                                                       |
|--------------------------------------|--------------------------------------|---------------------------------------------------------------------------------------------------------------------------------------------------------------------------------------------------|--------------------------------------------------------------------------------------------------------------------------------------------|
| 네트워크<br>협의체 구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청소년과(혹은 서울문화재단) 내 청소년 네트워크 지원 전담팀 구성</li> <li>*네트워크 실태조사</li> <li>*네트워크(networker) 협의체 구성</li> <li>*주체별/사안별 협의체 구성</li> <li>*청소년문화포럼 정기 개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및 전국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li> <li>*상설협의기구화</li> <li>*일반문화시설(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및 연계</li> </ul> |
| 지역사회<br>민관학 네트워크<br>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트워크 모델화 가능지역 지원</li> <li>*네트워크 실태조사 사업 지원</li> <li>*지역별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 구성주체 및 참여주체 선정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네트워크 모델화</li> <li>*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자원의 효과적 활용</li> </ul>                                       |
| 네트워크형<br>문화기획사업<br>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의 청소년지원 공모사업시 네트워크 기획사업 지원 항목 설정</li> <li>*청소년 문화관련 공모사업 제안서에 네트워크 평가항목 설정</li> <li>*네트워크 운영사업에 대한 재정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트워크 사업의 지속적, 장기적 연계지원 강화</li> </ul>                                                               |
| 네<br>트<br>위<br>크<br>모<br>델<br>개<br>발 | 정부시설<br>중심모델<br>(공공성<br>강화모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수련관, 문화의집, 하자센터, 스스로넷 등이 네트워크 주체</li> <li>*공동사업기획, 청소년 동아리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청소년지도자들과 동아리 회원들간 커뮤니티 구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내 문화시설, 청소년동아리, 학교, 청소년단체, 지역인사, 정부, 기업등과 안정적 네트워크 구축</li> <li>*새로운 모델의 지속적 개발</li> </ul>       |
|                                      | 청소년<br>민간단체<br>중심모델<br>(주체성<br>강화모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주체화</li> <li>*지역청소년 문화공동체 형성, 지역 청소년 공동기획단 구성, 학교 문화활동에 인력지원</li> </ul>                                                                     |                                                                                                                                            |
|                                      | 문화예술인<br>중심모델<br>(전문성<br>강화모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가단체의 네트워크 주체화</li> <li>*지역문화활동에 초점, 인적자원 확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li> </ul>                                                                                 |                                                                                                                                            |
|                                      | 지역리더<br>연계모델<br>(커뮤니티<br>강화모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문화시설의 네트워크 주체화</li> <li>*지역 내 관련기관 연계, 청소년 보호 및 상담활동, 공동사업 기획</li> </ul>                                                                               |                                                                                                                                            |

<표 6-5>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 지원 과제(총 3개 분야 6개 과제)

| 프로그램                      |                           | 단기과제                                                                                                         | 장기과제                                                                               |
|---------------------------|---------------------------|--------------------------------------------------------------------------------------------------------------|------------------------------------------------------------------------------------|
| 청소년<br>문화포털<br>웹사이트<br>구축 |                           | *청소년문화 DB구축<br>*청소년문화포럼, 청소년지원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 허브사이트 등 여타 청소년 문화 사이트와 연계<br>*청소년 네트워크단체에서 운영<br>*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공간화 | *청소년문화 종합 정보 실시간 제공                                                                |
| 문화<br>향수<br>증대            | 청소년증<br>내실화               | *학생증 폐지, 청소년증으로 통합<br>*문화예술활동(극장, 공연, 음악회, 연극, 전시 등)의 청소년 할인제 확대                                             | *스마트카드화<br>(여행, 여가, 교통, 소비 결합)<br>*업계대상 청소년사랑 인증제                                  |
|                           | 청소년<br>주간선포               | *특정시즌 청소년주간 정례화<br>*청소년 주최, 기획 축제 개최<br>*청소년 다중이용지역에서 개최                                                     | *다양한 청소년주간 운용 (주5일수업제와 연계된 youth day, youth week, youth month 등)<br>*실질적 네트워킹의 계기화 |
|                           | 예술관람<br>경험증대              | *청소년 문화의 날 지정, 박물관·미술관 무료입장 실시                                                                               | *순수예술체험 정규교과 반영, 현장 교육 강화                                                          |
| 소외<br>계층<br>지역<br>지원      | 소외계층<br>청소년<br>공연무료<br>관람 | *찾아가는 문화행사(이동식공연장 확대)<br>*모셔가는 문화행사<br>*최종 리허설 관람 기회 부여<br>*방학기간 중 낮 시간대 영화관람 할인                             | *프로그램의 일상화<br>*소외지역 문화시설, 프로그램 확충                                                  |
|                           | 취약지역<br>학교<br>특별활동<br>지원  | *문화예술동아리 대상 전공지도교사 파견 및 물품지원<br>*개인교습희망 저소득층학생 대상 무료교습 실시                                                    | *예술가 지역상주 프로그램 실시                                                                  |

## 제2절 서울 청소년 문화정책 기본계획(SYP) 수립

이상에서 살펴본 청소년 문화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서울시의 장기적인 청소년 문화정책 기본 계획 수립(가칭 SYP, Seoul Youth Plan)이다. 해외도시들은 <표 6-6>에서 보듯이, 나름의 청소년 문화정책의 비전과 원칙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표 6-6> 해외도시의 청소년 문화정책 비전

| 구분  | 정책 비전                                    | 관련 프로그램                                                                                                                                                   |
|-----|------------------------------------------|-----------------------------------------------------------------------------------------------------------------------------------------------------------|
| 영국  |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디자인하고, 발전시키며, 평가한다!          | *문화접근성 확대, 민관네트워크 프로그램<br>-컨넥션즈(connexions) 프로그램                                                                                                          |
| 프랑스 | 청소년을 문화적 소양과 소통능력을 갖춘 자유롭고 비판적인 주체로 만든다! | *문화주체 양성 및 지원 프로그램<br>-청소년 영화활동 참여지원프로그램, 시네클럽연맹, 영화관/영화마을에서 보내는 여름 프로그램                                                                                  |
| 미국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문화를 만들어간다!               | *학교-지역 연계 프로그램<br>-‘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 ‘Learn and Service America’, ‘Youth Opportunity’, ‘4H After-school Activity Program’, ‘ASPIRA’, ‘Voyager’, 학습지원 프로그램 |
| 일본  | 지역문화 체험을 통해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간다!               | *지역사회 문화체험 프로그램<br>-코모도 플랜(3개년 전략) 프로그램, 아동방송국, 아동센터, 상업활동체험, 박물관과 친해지기 사업, 과학실험 공작교실, 대학개방플랜 등 다양한 지역연계 프로그램                                             |

서울시 청소년 문화정책 기본계획(SYP)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청소년 문화정책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 문화정책의 비전과 원칙, 전략, 목표, 실행과제, 추진조직, 예산계획 등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로, CIS 즉, 콘텐츠, 인프라, 시스템 부문과 관련된 세부 추진방안이 명시되어

야 한다. 우선, 콘텐츠 부문에서는 체험활동 다양화, 역량개발 기회 확대, 보호 및 복지 현실화와 관련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인적인프라, 기관인프라, 지역인프라, 홍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안이 수립되어야 하고, 시스템 부문에서는 추진체계 확보, 네트워킹 강화, 참여기반 확대와 관련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로, 청소년의 문화활동 프로세스에 따른 지원영역, 즉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영역, 지역 내 민관학 네트워크 지원영역, 청소년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 영역과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 및 장기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로, 중앙정부(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자치구, 서울문화재단, 민간재단(다음세대재단, 아름다운재단 등)과의 연계 및 역할 분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기준, 항목)을 마련하고, 청소년 문화추진 기금 조성 및 같은 다양한 재원 조성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SYP는 최소 1년 혹은 3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현재는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 제3절 지원사업별 우선 순위

이상에서 제안한 서울시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사업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면 <표 6-7>과 같이, 2005년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 추진할 1순위 사업과, 4년 이내 추진할 2순위 사업, 6년 이내 추진할 3순위 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6-7>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사업별 우선 순위

| 사업명                      |                         | 우선순위               |                    |                    |
|--------------------------|-------------------------|--------------------|--------------------|--------------------|
|                          |                         | 1순위<br>(2005-2006) | 2순위<br>(2007-2008) | 3순위<br>(2009-2010) |
| 주체적<br>문화실천<br>지원        | 청소년 동아리 활동공간 활성화        | ●                  |                    |                    |
|                          | 청소년 자치문화존 /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 ●                  |                    |                    |
|                          | 청소년 문화시범지구 조성           |                    |                    | ●                  |
|                          | 문화콘텐츠 분야 교육프로그램 지원      | ●                  |                    |                    |
|                          | 학내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문화활동 교육  |                    | ●                  |                    |
|                          | 청소년 문화학교 개관             |                    |                    | ●                  |
|                          | 청소년 문화일자리 창출            |                    | ●                  |                    |
|                          | 청소년 문화벤처단 운영 활성화        | ●                  |                    |                    |
| 지역내<br>민관학<br>네트워크<br>지원 | 학교밖 청소년 프로젝트형 프로그램 지원   |                    | ●                  |                    |
|                          |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 ●                  |                    |                    |
|                          | 지역사회 민관학 네트워크 지원        | ●                  |                    |                    |
|                          | 네트워크형 문화기획사업 지원         | ●                  |                    |                    |
| 문화향수<br>접근성<br>강화        | 네트워크 모델 개발              |                    | ●                  |                    |
|                          | 청소년 문화포털 웹사이트 구축        | ●                  |                    |                    |
|                          | 청소년증 내실화                |                    | ●                  |                    |
|                          | 청소년 주간 운영               |                    | ●                  |                    |
|                          | 순수예술 관람 경험 증대           | ●                  |                    |                    |
|                          | 저소득층·소외계층 청소년 공연관람 확대   | ●                  |                    |                    |
| 기타                       | 취약지역 학교 문화예술 특별활동 지원    | ●                  |                    |                    |
|                          | 서울시 청소년 문화정책 기본계획 수립    | ●                  |                    |                    |

1순위 사업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현재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즉시 시행할 수 있거나, 사업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청소년 문화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청소년 문화 포털 웹사이트 구축’, ‘청소년 동아리 활동 공간 활성화’ 등 총 12개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2순위 사업은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교육이나 산업, 지역 등 여타 분야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학내 문화예술 교육 확대’, ‘청소년 문화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모델개발’ 등 총 6개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3순위 사업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여러 분야의 흐름이 종합적으로 연결될 때 실효가능한 사업이다. ‘청소년 문화시범지구 조성’, ‘청소년 문화학교 개관’ 등 2개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순위에 상관없이 이 모든 사업들은 지금부터 현실 여건을 고려하면서, 나름대로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라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참 고 문 헌

---

- 권두승·조아미, 1998, 『청소년 세계의 이해』, 문음사
- 김만오, 2002, '한국 청소년 정책의 역사', [www.youth.re.kr](http://www.youth.re.kr) 자료실
- 김영지 외, 2000, 「저소득층 청소년문화 실태와 문화적 권리 신장 방안 연구」, 한국 청소년개발원
- 김혜진, 2000, '빈민 지구 실업계 청소년 실태 및 의식 조사', 하자센터, 미간행자료
- 문화관광부, 2003a, 「청소년 백서」
- 문화관광부, 2003b, 「문화향수 실태조사」
- 문화연대, 2003, 「서울시 위탁 청소년문화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 성동규 외, 2001, 「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실태와 독서습관 개선 방안 연구」,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
- 신경희, 2000, 「서울시 중장기 청소년 정책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유문무, 2000, '청소년문화정책의 현황 및 대안모색',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권
- 이종규, 박순애,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전희일, 2003, '청소년 수련관 수련활동과 학교특별활동 연계에 대한 필요성 및 관련 지도자들간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4권 제1호
- 정유성, 1998, '청소년문화 담론 형성을 위한 시론',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 연구」, 제9권 제2호
- 조 은 외, 2000, 「청소년언더문화 현장 연구: 문화 생비자(prosumer)로서 청소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조성남 외, 2002, 『청소년의 하위문화와 정체성』, 집문당
- 조한혜정, 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또 하나의 문화
- 조한혜정, 2000,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 또 하나의 문화
- 청소년 문화공동체 품, 2002, 「Network와 청소년 문화 활동」, 품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청소년문화포럼 준비위원회, 2004, 「사회변동과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비전 찾기」, 청소년문화포럼 제1차 준비포럼 자료집
- 최이숙, 2002, '1970년대 이후 신문에 나타난 청소년 개념의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통계청, 1996, 2000, 2004, 「청소년 통계」
- Willis P., 김찬호·김영훈 역, 1989, 『교육현장과 계급재생산:노동자 자녀들이 노동자가 되기까지』, 민맥
- Cohen P. & Hebdige D. et al, 이동연 편역, 1998, 『하위문화는 저항하는가』, 문화과학사
-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4, 「서울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 한국청소년개발원·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2002, 「민간부문의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포럼 자료집.
- Ariès, Ph., 2003, 『아동의 탄생』, 새물결
- Besley, A. C., 2003, 'Hybridized and Globalized: Youth Cultures in the Postmodern Era', *The Review of Education, Pedagogy and Cultural Studies*, 25
- Council of Europe, 1998, *European Youth Trends*
- DCMS, 2003, 'Learning to Listen: Core Principles for the involvement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ion Plan 2003/2004
- Driskell, D., 2002, *Creating Better Cities with Children and Youth: A Manual for Participation*, Paris: Unesco Publishing.
- Fleras, A., 2002, 'The Intersection of Age and Race/Ethnicity/Official Language/Religion', draft prepared for the seminar on the Intersection of Diversity
- Hebdige, D., 1988, *Hiding in the Light*, Routledge, London & New York.
- Judy Giles & Tim Middleton, 2003, 『문화학습-실천적 입문』, 동문선.
- Morino, M., 1999, 'Community@work: Rethinking How We Help Young People', paper presented at Potomac Regional Education Partnership Spring

Conference, April 26, Morino Institute.

The National Youth Agency and London Youth Arts Network, 2002, 'Building Youth Arts Policy "Practice into Policy?"', report presented at Stratford Circus, 18 October.

# A Study on the Facilitating Cultural Activities of the Youth in Seoul

|                       |                                                       |
|-----------------------|-------------------------------------------------------|
| <u>Project Number</u> | <u>SDI 2004-R-35</u>                                  |
| <u>Research Staff</u> | <u>Mu-Yong Lee (in Charge)</u><br><u>Sung-Hee Kim</u> |

The discourse on youth policy has regarded the youth as to be protected, guided, and trained. With a view as a singular group incomplete, immatured, and passive.

With rapid change of urban environment, the lifestyle of the youth is very diversified with the advent of informational society. Furthermore the identity of the youth is very heterogeneous and multiple.

So, we need a new perspective of the youth as not a passive-single subject to be guided and disciplined but an active-various subject to be acquired diverse method and ability from society to live as cultural subject. Accordingly, it is emphasized to change youth policy into youth culture policy, that is, cultural turn of youth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cultural policy programs to facilitate cultural activities of the youth to make youth a good and creative living in a better cultural environment. This study consist of the paradigm shifts in youth culture study, the condition of youth culture environment and cultural activities of the youth, the programs of

facilitating cultural activities of the youth, a synthesis of the programs and recommendations.

The paradigm shifts in youth culture study includes changing discourse on the youth, trends in youth culture study, cultural environment and cultural identity of the youth, and implications on youth culture policy.

The condition of youth culture environment includes situation of youth culture policy, facilities, and programs.

The condition of cultural activities of the youth includes the real condition of cultural enjoyment and positive cultural activities of the youth, and samples of private-public network for cultural activities of the youth.

The programs of facilitating cultural activities of the youth includes supporting programs according to the process of cultural activities of the youth, that is, programs of supporting positive cultural activities and the access to cultural enjoyment of the youth, and programs of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private-public-academy network system in local community.

A synthesis of the programs and some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s a synthesis of total 3 types 19 programs, and proposing to establish SYP(Seoul Youth Plan) and suggesting the priority order of total 20 programs into 3 levels.

## **Table of Contents**

---

###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2. Scope and Method

### ***Chapter 2 Paradigm Shift in Youth Culture Study***

1. Changing Discourse on the Youth
2. Trends in Youth Culture Study
3. Cultural Environment and Cultural Identity of the Youth
4. Implications on Youth Culture Policy

### ***Chapter 3 The Condition of Youth Culture Environment in Seoul***

1. Policy
2. Facilities
3. Programs

### ***Chapter 4 The Condition of Cultural Activities of the Youth in Seoul***

1. Cultural Enjoyment of the Youth
2. Positive Cultural Activities of the Youth
3. Samples of Private-Public Network for Cultural Activities of the Youth

### ***Chapter 5 The Programs of Facilitating Cultural Activities of the Youth in Seoul***

1. Supporting Programs according to the Process of Cultural Activities of the Youth
2. Programs of Supporting the Positive Cultural Activities of the Youth

3. Programs of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Private-Public-Academy Network System in local Community
4. Programs of Supporting the Access to Cultural Enjoyment of the Youth

## ***Chapter 6      Summary and Recommendations***

1. A Synthesis of the Programs of Facilitating Cultural Activities of the Youth
2. Establishment of Seoul Youth Plan(SYP)
3. The Priority Order of the Programs

## ***References***

시정언

2004-R-35

##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

발 행 인    백 용 호

발 행 일    2004년 9월 30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전화:(02)2149-1273 팩스:(02)2149-1289

---

값 7000원

ISBN 89-8052-351-3-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